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8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87 호

도박승 검찰구속…출가정신·개혁의지 실종

"승단의 自淨계기 삼자"

승·재가단체, 참회·엄중 문책·사찰운영투명 등 촉구

"진정한 호법은 승단 내부의 자정노력, 즉 도덕성 회복에 있다."

13일 조계종 종회의원 J스님을 비롯한 스님 4명이 거액의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일부 스님들이 불구속 입건 되거나 수배된 것과 관련 불교계에서는 승단의 청정승풍 회복을 촉구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검찰의 '도박승 검거' 사실이 공개되자 교계의 20여 단체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사부대중의 참회와 엄정한 수사, 종단의 관련자 엄중 문책등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사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유명 무실한 사찰운영위원회를 분명하게 실시할 것도 강도 높게 촉구했으며 삼보정재보호위원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불교인권위를 비롯한 9개단체의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조계사청년회, 제주불교호법대책위원회, 한국재가불자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사설사암연합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이 잇달아 성명을 내놓았다. 또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등 25명의 재가불자들도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전불련과 경불련은 27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9개단체는 14일 가장 먼저 참회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종무원도 참회문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과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사무처장 도관스님이 19일까지 6일간 조계사 법당 앞에서 참회단식을 했다.

불교계의 참회와 자정을 촉구한 각 단체들은 성명에서 검찰의 의도적인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분명한 수사 경위와 진상의 공개등을 요구했다. 또 대부분의 성명에서 조계종 종무원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점차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6·18면>

임연태·도필선 기자 (ytlim@buddhapia.com)

농지법 개정 재촉구

조계종, 문화부에 공문

조계종이 전통사찰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은 12일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앞으로 "농지법시행규칙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6월중순 농림부·법제처와 '긍정적 검토'를 합의한 이길용 종무실장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의견이 모아진 만큼 농림부가 다시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면 법제화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연태 기자

폭우 피해사찰 150여곳으로

각종단 봉사자 파견등 수해복구 부심

7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의 1백50여 사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사찰은 복구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으나 여전히 장비와 인력 재정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19일 현재까지 종단내 사찰 1백30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교구별로는 직할 사암 22곳, 법주사 지역 11개사찰, 수덕사 지역 9개사찰, 직지사 지역 24곳, 화엄사 지역 9곳, 봉선사 지역 19곳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고종도 전국 24개 사찰이 비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수해지역에 연인원 1천1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했다. 임연태 기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제 반찬 중에 오이 장아찌는 너무 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제 30도가 넘는 날씨땜에 반찬들이 쉴까봐 걱정했는데 모두 괜찮서 다행이야. 최보살 제트카로 움직이는 퀵서비스 덕분인 것 같애. 하하"

새벽5시 노원구 상계동 사천왕사 법당. 무우채를 썰고, 손끝에 벌겋게 고추장을 묻혀 가며 나물을 버무리던 6명의 보살들이 분주하게 손을 놀리며 연신 웃음보를 터뜨렸다. 이들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마을 수재민들을 위해 반찬봉사에 나선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자들.

이번 자원봉사활동에 남을 돕는다는 즐거움 외에 또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8월10일 노원마을 수해복구현장에 참여했다가 수재민들의 급식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진성교회 점은 목사부부를 돕는데 나선 것이다.

처음에는 목사 부인의 거부와 불교자원봉사자들이 굳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도와야 하는냐는 반대도 있었다. 그러나 불교자원봉사자들은 이내 하루아침에 가진 것 모두를 잃은 수재민 앞에서는 종교적 이견 또한 사치일 뿐이라 생각해 목사부인을 설득, 매일 4백50명분의 반찬을 만들어 진성교회에 배달했다. 또 불교자원봉사자들은 지난 5월부터 과고다공원과 여의도 보현의 집에서 무료급식을 해온 '숙련된 솜씨'답게 목사부부와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수재민들의 급식을 도왔다. 종교의 벽을 허물고 목사부부와 힘을 합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자원봉사자들의 훈훈한 광경은 교회를 찾은 신자들에게는 목사님의 한마디 설교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

애초 3일간 반찬급식을 도울 계획이었으나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1주일 동안 반찬 봉사를 마친 불교자원봉사자들은 "고맙습니다. 조만간에 성먹스님(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라는 목사부부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동안의 피로를 씻어내고 흘가분한 마음으로 교회문을 나섰다. 불교자원봉사자들에겐 어느새 종교를 초월한 작은 사랑이 움아리를 틀고 있었다.

〈이희명화 명예기자〉

수재아픔 나누기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고불총림 무차선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장성 백양사에서 열렸다. '고승대법회'와 '한국선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조사선을 재조명한 무차선회에는 5천여 불자들이 성황을 이뤘다. 〈고영배 기자〉

"선불교로 21세기 좌표제시"

무차선회 77년만에 재현…5천불자 참여
고승법회·한국선 국제학술대회등 열려

한국 조사선(祖師禪)의 전통확립과 재조명을 위한 '고불총림 무차선회(古佛叢林 無遮禪會)'가 18~22일 전남 장성 백양사(주지 ㅈ선)에서 열렸다. 이번 무차선회는 1921년 건봉사 무차대회 이후 77년만에 열린 대중법회로, 서옹스님(백양사 방장) 혜암스님(조계종 원로회의장) 진제스님(동화사 조실)이 법문한 '고승대법회'와 국내·외 16명의 불교 석학이 참석한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5천여불자가 운집한 가운데 18일 대웅전 앞에서 봉행된 고불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축사를 통해 "선이 아니면 황폐화해가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이곳이 선종 중흥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허경만 전남도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21세기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열리게 된 이번 무차선회가 인류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새로운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흘간 진행된 '고불총림 무차선회'는 비백교학연구소와 나우컴의 후원으로 전세계에 인터넷 생중계됐다. <관련기사 9·12·13면>

장성=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조계종 133회 종회
9월 7~11일

조계종 제133회 임시종회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이번 종회에서는 본사주지 선거법 개정 문제를 비롯한 21건의 종법 제개정안과 남북교류협의 기구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임직원 수재의연금 전달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은 1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수재의연금 74만원을 전달했다. 또 현대불교 명예기자 이란씨가 이끄는 여여회가 기탁한 성금 28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임연태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9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여주 신륵사, 고달사지, 목아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불상을 비롯 회화·공예·민속품 등이 전시돼 있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에서 하나의 나무가 불상이 되기까지의 제작과정을 알아봅니다.

탑을 구성한 벽돌의 두께가 수려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다층전탑(보물 제226호)과 남한강가의 바위절벽에 위치한 정자 강월헌(江月軒), 나옹화상의 입적처로 우명한 여주 신륵사와 부도(국보 제4호)를 비롯해 원종대사 혜진탑(보물 제7호) 등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고달사지도 답사합니다.

9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신륵사·목아박물관·고달사지'

◇출 발: 9월13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제공)
◇안 내: 구본만 한예연구관(여주군청 향토사료관)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도서출판 남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훈빌딩 · 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역사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 · 〈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닮은 꼴 있었다 · 〈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 · 〈경향신문〉 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돌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 · 〈현대불교신문〉 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 · 〈서울신문〉 5.5.

· 신국판 | 304쪽 | 값 7,000원
· 저자 : 맹 란 자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사 설

다함께 참회합시다

"스님 돈따서 무엇에 쓰실려구요?" 어느 주간지가 승려도박사건을 보도하면서 붙인 표제이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참으로 참기 어려운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국가경제가 벼랑위에 서 있고, 수해까지 겹쳐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각계각층이 힘을 합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아이들의 코묻은 돈까지 수재의연금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어째서 일부 스님들이 깨달음과 중생구제 대신 도박을 화두로 삼았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도박스님들이 검찰에 구속되던 날은 바로 불난리로 온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저녁 9시에 보도된 승려도박 뉴스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다행히도 불교계 안에서는 즉시 참회의 목소리와 함께 자체적인 정화운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중앙승가대 학생회와 동문회, 동국대 석림회 등에서 참회성명서를 냈다. 전국불교운동연합, 실천승가회, 조계사청년회, 경불련, 대불련 등에서 잇따라 참회문과 함께 삼보정재의 유용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우리 불교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종단의 호법기구를 통하여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그룹 외에도 이와 유사한 도박성 놀음판이 벌어지고 있다면 마찬가지이다. 슬롯머신업소나 이와 유사한 오락실에 자주 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숨기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법이다.

둘째, 사찰의 재무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스님들이 삼보정재를 도박같은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원천은 사찰재정관리가 허술하다는 데 있다. 특히 보시금의 관리가 주지나 재무 등 일부 스님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종헌종법에 신도회 대표 등이 사찰운영위원회 같은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부대중이 사찰의 재정관리에 적극 참여하여 사찰재정의 투명화와 공영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종단이나 포교당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종단 차원에서 제시하고 시행을 강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셋째, 출가사문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실추된 불교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종단 자체의 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그동안 종단의 공식기구나 불교시민단체 등에서 여러번 제기되었던, 승풍을 문란시킨 타락상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범불교적 정화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교구본사나 말사 또는 단위 사찰별 정화위원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종단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강력한 호법, 정화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본래의 부처님 출가정신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단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포교당 실태파악

조계종포교원 무속행위등 실사 자격박탈키로

조계종포교원이 사설포교당 및 무속행위를 하는 포교당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포교원은 17일 전국포교사지단에 조계종 포교사의 사설포교당 개설 및 무속 등 비불교적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시했다.

포교원은 포교사지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확인 작업을 거쳐 문제 포교사에 대해서는 포교사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포교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부산 유미힐포교원의 신도 상해치사 사건 발생에 따른 것이다. 사설포교당은 조계종포교사가 포교당을 개설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고 포교원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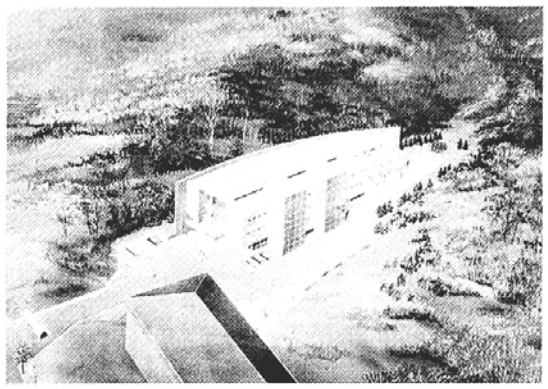
포교원은 이와 함께 향후 포교사 배출 및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비불교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또 포교사 배출원인 불교교양대학의 관리를 강화해 교육과정부터 양질의 포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종단에서 제시한 필수과목의 반영, 박사학위 소지자 및 중견스님의 교수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곳을 중점 지원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다.

김관태 포교과장은 "과거 타종교와 비교해 포교인력의 숫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다수의 포교사를 양성했으나, 이제는 양질의 포교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은 재가포교사가 개설한 포교당의 종단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에 등록된 포교당 1백20여곳 가운데 스님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재가포교사가 개설한 포교당도 상당수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포교원은 재가포교사가 개설한 포교당중에도 포교와 신도교육에 기여하는 곳이 많아 일률적인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며, 재가포교사가 개설한 포교당의 종단등록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9월10일 기공식을 갖는 전국비구니회관 조감도.

전국비구니회관 세운다

9월10일 강남 수서동서 기공…2001년 완공

전국비구니회관이 마침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9월10일 오전 11시 강남구 수서동 744 비구니회관 부지에서 석주 조계종 원로회의부의장 월주 총무원장을 비롯 각 종단 대표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추진 5년여만에 기공삽을 뜬다.

비구니활동의 근본도량이 될 비구니회관은 1천2백40평 대지에 연건평 2천5백58평으로 지하 2층 지상3층으로 조성된다. 회관은 현대식 건축물로 반야용선(배)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대법당을 비롯해 교육관 대강당 연화장 강의실 대법당 체력단련과 불교문화실 도서관 탁아실 등이 들어서 종합회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된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비구니회관은 2001년 준공될 예정이다. <관련 인터뷰 3면>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강북구청장에 사과요구
종교편향대책위

종교편향대책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성경선서' 취임식으로 물의를 빚은 장정식 강북구청장에 대해 보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13일 장 구청장이 강북지역사암연합회가 방문한 자리에서 사과를 한 바 있으나 종교편향대책위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이후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특정종교 편향문제 해결에 주력키로 하는 한편 조계종과 협의하여 종교편향 및 훼불만행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원명선원 훼불 불교에 유감"

기독교협, 전국 교회에 재발방지 권고문

제주 원명선원 훼불사건과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계종총무원장 앞으로 '유감표명' 공문을 보냈다.

교회협의회는 7일자로 보낸 '제주 원명선원 훼불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의 건'을 통해 "원명선원 훼불사건은 개인이 저지른 일이지만, 기독교신자임이 확인된 이상 조계종단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원교단의 전 교회에 권고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교회협의회는 또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타종단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조계종과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계가 훼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운 기자

신도단체 등록령 입법 예고

조계종, 등록단체 확대키로

조계종포교원은 17일 신도단체의 종단등록 자격과 절차 등을 규정한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총 18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이 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단등록 신도단체의 확대-기존의 전국 단위 및 10개 지부 이상의 단체에 한정했던 종단등록 신도단체를 의료인 법조인 교수 교사 언론인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신행단체도 종단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취소 요건의 강화-종단 지침의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종단의무 불이행 등으로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종단등록 단체에 대해서는 조계종 명칭 사용, 사업추진시 종단과 공동추진 및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미 등록된 신도단체는 이번에 제정된 종령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성운 기자

전문포교사팀 '바쁜 활동'

아미타회-노인복지 · 장례의식 봉사
전국불자회팀-군부대 방문 법회 열심

지난 6월 구성된 조계종 전문포교사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노인복지와 장례의식 봉사 활동을 펼치는 아미타회(회장 유제용), 15명의 회원들은 교통비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사례도 받지 않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즉시 달려간다. 7월 7일 서울중계동 김씨 상가의 장례봉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상가를 찾아 영가의 극락왕생을 빌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활동을 펼쳤다.

매주 한차례 안국동 동산법당에 모여 장례봉사에 필요한 각종 의식 및 염습교육도 받는다. 두 달에 한번은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황금어장에 뛰어든 전군불자회팀(팀장 강노식)도 7월 중순 팀내부 결속을 다진 후 송추 덕정 등 경기도 북부의 3개 군부대를 방문해 담당포교사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법회활동에 들어갔다. 14명으로 구성된 이 포교팀은 일단 인원의 한정으로 3개 부대 포교활동에 주력하기로 하는 한편 군법사와 인근지역의 스님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포교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구지역 교도소 포교팀, 대전 무수회(사회복지) 등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포교사단 임동현 사무국장은 "29개 포교사팀의 보고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9월중 팀장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포교방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사단은 보고서를 분석, 지침서 형태의 포교자료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이 무섭지도 않나?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룡 합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국난극복을 위한 —
봉 제2회 연꽃 대축제 축
10만 연등불사 · 수륙천도 영산대법회 · 방생법회

진흙(사바세계)에 뿌리를 두되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늘(깨달음)을 향해 피어나는 연꽃!
세계 최대규모(10만평)인 백련지에 화려한 연화장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0만평의 연지에서 10만등의 등불을 밝히고 10만 영가를 천도하는
영산 대법회 및 방생법회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일정	행사명
▶ 첫째날 (9월 10일 목요일)	· 마정수기 법회 · 법요식 및 불교TV 32스페셜 공개방송 · 개막 점등 및 불꽃놀이
▶ 둘째날 (9월 11일 금요일)	· 허수아비 행렬 · 방생법회 · 제2회 연꽃가수왕 선발대회 (예선)
▶ 셋째날 (9월 12일 토요일)	· 마정수기 법회 · 제1회 찬불가 경연대회 · 마당극(연꽃낭자전)
▶ 넷째날 (9월 13일 일요일)	· 제2회 가족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 수륙천도(수해 희생영가) 영산대법회 · 폐막행사

▶ 일 시 : 1998년 9월 10일(목)~9월 13일(일) (4일간)
▶ 장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 (회산 연꽃방죽)
▶ 증 명 : 서옹, 보성, 청화 큰스님
▶ 고 문 : 월주, 인곡, 운덕, 대호 큰스님, 총지화 통리원장
▶ 봉행위원장 : 천운 큰스님
▶ 지도위원 : 광주 전남지역 각 사암 연합회장

행사문의 TEL : 0631)282-6813 FAX : 0631)282-6815

연꽃대축제운영위원장 무안불교사암연합회장 정 평 합장

마정수기 영가천도 국제 대법회
생(生)과 사(死)가 둘이아님을 실증하신 티벳트의 화신 聖 잠양 왕측 텐징 린포체 외 수행스님 열분

❖ 참여안내 ❖
■ 일 시 : 불기 2542년 9월 10일~9월 30일
■ 장 소 : 회산 연꽃방죽 대법당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승달산 마곡사 백련사(회산연꽃방죽)
■ 후 원 : 무안불교사암연합회
■ 문 의 : (0631) 282-6813

■ 주최:무안불교사암연합회 ■ 주관:무안군 ■ 후원: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라남도, 무안농지개량조합, 불교TV, BBS광주불교방송

"10년포교 하루아침에 무너져"

도박승 구속 파장과 대책

조계종의 일부 스님들이 도박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충격이 교계를 뒤덮고 있다.

공중파 방송은 물론 일간지와 주간지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해 불교계의 '망신살'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보도를 접한 스님들과 불자들은 '허탈과 분노'를 가누지 못했다.

원인 교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돌발적인 사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찰 경영에 있어 삼보정재의 쓰임새가 투명하지 않고 종단 내부에서 심심잖게 거론돼 온 '도박승'에 대한 설을 묵인 해 온 저간의 상황이 이번 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는 분석이다.

승단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승단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무너뜨렸다는 점도 '출가정신'의 부재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또 개혁종단이 출범당시 외쳤던 비리승 척결 의지를 답보해 오는 등 승풍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돼고 있다.

이같은 분석들은 최근 11개 단체가 잇달아 내놓은 성명에서 낱낱히 거론되고 있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연관된 스님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는 물론 이번 사건을 종단의 새로운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적 경제 불황에 보름 이상 계속된 폭우로 수재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도 "스님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비난과 함께 사회적인 충격을 배가 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빠르게 사건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참회와 사과를 담은 총무원장의 입장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월 한 차례씩 포살법회를 열고있는 중앙종무기관이 이번 사건을 두고 대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의아해 하는 교계의 시선도 있다.

총무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의 업중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문책과 행정적인 방지대책으로는 청정 승풍회복의 근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많은 불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승단이 자정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9월7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제133회 임시종회에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중앙중회의원 1명이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총무원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불교계 파장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불교계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이다. 사건의 파장은 일선 포교당과 지방 사찰에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방의 한 스님은 "신도가 낙염 떨어지듯 떨어져 나갈 위기"라는 말로 이번 사건이 승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 시켰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포교일선의 스님들은 "10년 포교 성과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라며 "불자들 보기가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PC통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불자들의 분노와 자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통신에는 스님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스님들은 한결같이 참회와 용서를 호소할뿐 변명의 여지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어쩌다 한 번'의 차원이 아니라 '상습적'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다는 점에서 승가의 계율의식과 세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학자는 "불교의 도시화 현상이 낳은 하나의 폐단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수행과 포교, 일선 행정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진단했다. 즉 승가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판과 사판'을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들의 도박 사건이 발표된 14일 참회 성명을 발표하고 6일간 단식에 들어갔던 불교인권위 대표 진관스님(사진 좌)과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사무처장 도관스님이 19일 단식 해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비리승 척결' 개혁종단 의지 재검토
이판-사판 구분 제도적 장치 필요
사찰운영위 가동 정재 효율적 관리

대책 이번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낸 11개 단체는 종단과 승가의 참회와 자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련의 대책을 지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사찰 경영이 투명하게 유지 되기 위해서는 주지스님 혼자 정재를 관리하는 현재의 풍토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는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종법에 명시됐지만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사찰의 불사를 포함한 각종 운영에 7인 에서 30일 이내의 운영위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찰운영위원회의 가동이 삼보정재를 지키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또 삼보정재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임자에게 주요 소임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돼고 있다. 외부 기관이 손을 대기 전에 종단 내부에서 비리승을 척결하는 종단의 강력한 호법의지를 촉구한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종단 일각에서는 "법적장치 보다 중요한 것은 승가 개인 양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이란 어차피 한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계율 의식을 고양하는 승가의 분위기 도출이 보다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과만과로 과장을 낳고 있는 이번 사건이 적법하게 마무리 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단은 물론 소속 사부대중 모두의 뼈저린 자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불자들의 분노와 사회적 비난을 '재발심'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더 이상의 희망은 찾을 길이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 조계종 호법부장 영배스님에 듣는 대책

관련자 중징계…재발 철저 방지



"총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스님들에 대해 강력히 징계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영배스님은 이미 종단 차원에서 사건 관련자 징계가 결의 됐음을 강조했다. 현재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스님들이 형사 처벌을 면키 어려운 만큼 그들에 대해서는 승려법을 적용해 최고의 징계를 할 방침이라는 것.

또 영배스님은 "사법처리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스님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 종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련자의 징계와는 별도로 총무원은 청정승풍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중이며 특히 도박과 같은 악성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중이라고 덧붙혔다.

영배스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 종단 내부에 악성 루머들이 떠돌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점"이라며 사부대중의 자숙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수요 인터뷰

비구니회관 기공식 갖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

"수행-포교 결집 공간"

-비구니회관이 마침내 기공식을 갖게됐는데 감회가 크시겠습니다.

▲전국 7천여 비구니스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아진 불사입니다. 85년 회관건립을 발원한 이후 5년여전부터 수서동에 시유지를 불하받고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니 기공식을 하기까지 같다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지문제로 풀어야할 어려움도 컸었습니다. 회원들을 중심으로 종단의 후원 등이 큰 힘이 됐습니다.

-비구니스님들은 가람호지등에서 특히 탁월하시다는 평입니다. 절에서 활동도 많으신데 굳이 비구니회관을 건립하신 까닭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기존의 포교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중속으로 파고드는 현실적인 포교활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스님 개개인의 활동력을 결집시켜 더 큰 힘으로 이뤄내는 터전이 바로 비구니회관이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회관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비구니회에서는 비구니스님들의 교육과 계단활동 등 직접적인 수행에 대한 지원과 함께, 목동청소년회관 양천구체육센타 등을 운영해 대 사회적인 활동을 펴 왔습니다. 새로 지을 비구니회관은 이런일 들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역할하는 산실이 될것입니다.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먼저 비구니스님들의 교육을 재점검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미래 정보화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수행과 포교 사회복지 등 불교 전반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것입니다. 유아 장애인 결손가정 청소년 위안부 등 특수포교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기여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밖에 지역사회교육을 위해 회관을 개방하고 프로그램 운영에도 동참을 유도해 포교의 기능을 함께 펼 계획입니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스님 전문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으로 쓰일 것입니다.

-회관 준공예정은 언제쯤인지요.

▲3년후인 2001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95년7월 회장에 취임한 이래 줄곧 회관건립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회관준공을 위해 전념할 생각입니다. 회원스님들 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영란 기자(yryul@buddhapia.com)

목어

'제 2 건국'의 조건

여름이 가고 있다. 악몽같은 물난리 속에 수해의 상처를 남겨놓고 계절은 무심히 가을로 가고 있다.

물에 잠겼던 벼가 하늘을 향해 머리들어 영글어 가듯, 우리는 망연자실했던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복구의 삽질을 하고 있다. 여름뒤에 가을이 오듯 우리네 삶에도 새 계절은 그렇게 오나보다.

이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폭우속의 우리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다시 일어서면 언제 또 올 여름 같은 천재와 인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사람살려 사람살려 하는데 어떻게 살려줘요. 미안해 미안해…" 급류에 휩쓸려가며 구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고도 어쩔 수 없었던 여인. 어린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물살을 뒤지는 젊은 엄마.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몸 아끼지 않고 나섰다가 명을 달리한 의인들. 홍수피해를 목격하면서도 버젖이 캠핑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이들. 잠시 근무에 느긋했던 공무원들.

"저 잘나빠진 라면이나 주고…" 대피소에서의 볼멘 여인의 소리.

"이렇게 나와서 모두들 도와주니 감사하죠" 이웃의 온정에 고마워하는 아주머니.

"우리집에도 물이 찰뻔했는데 그랬으면 3천만원은 손해 봤을 거예요" 피해를 면한 중국집주인의 자짱면 무료 점심공양.

2년전 엄청난 물난리를 겪어 '수해백서'까지 펴내고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 경기도의 예방행정 실종.

집중호우에 주택 1만6천채와 농경지가 침수됐으면서도 인명피해는 사망 1명과 부상1명에 불과했던 8월4일 일본 니가타현의 재해예방의식.

수해복구에 비지땀 흘리는 현장을 지나가는 자가용 휴가행렬. 인근에서 골프치고 낚시하는 이들.

TV화면 하단에서 수시로 천원씩 올라가는 ARS 수재성금.

물난리속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되짚어 보면 무엇이 '제 2 건국'의 힘이 되고 무엇이 걸림돌이 될지 알수 있다. 힘은 키워 축적하고 걸림돌은 하루속히 고치고 버려야만 한반도의 새로운 50년과 21세기가 희망으로 열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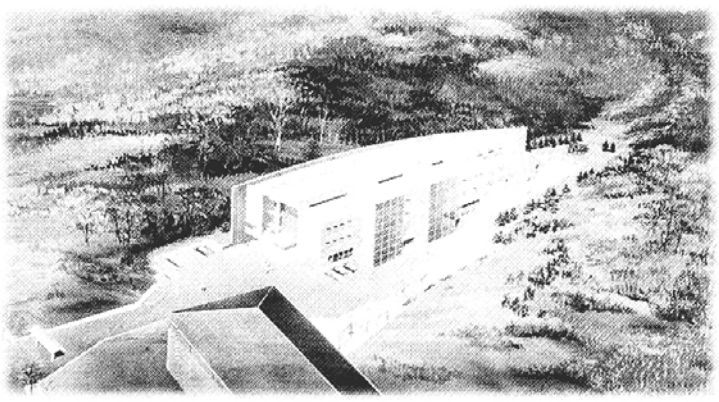
· 전국 비구니회관 기공식 법회 ·

전국 비구니의 종합교육 도량불사

정진으로 일구는 감동적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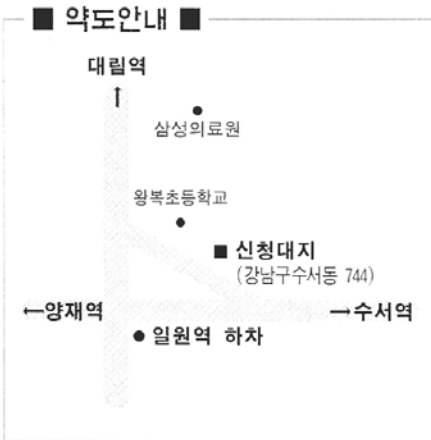
■ 법회안내 ■

▶ 증 명 : 석주큰스님
▶ 일 시 : 1998년 9월 10일 오후 2시 (음력 7월 20일)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비구니회관 부지
▶ 문 의 : 비구니회 Tel: 02)733-5467 02)734-3577 Fax: 02)735-6789



오랫동안 염원하던 비구니회관의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21세기 비구니활동의 종합도량이 될 것입니다.
다년간 한평사기와 한평짓기 운동을 펼치면서
회관건립을 위해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의 수행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감동적 불사에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한국비구니의 미래를 향한 도약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약도안내 ■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일원역하차 왕복초등학교 출구로 나오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주차장 미확보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십시오.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합장

교차로 승가



실업극복 대비자 행사

녹원 직지사 주지는 7월 28일~30일 직지사 소속 불교학생회 연합수련회를 2백60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했다.



불교학생회 연합수련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25일부터 9월 3일 까지 롯데백화점 서울지역 5개 점포에서 '실업극복 국민운동 대비자' 행사를 연다. 스님은 실업극복국민운동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다.



불우이웃에 생활비 전달

고산 쌍계사 주지는 9월 5일 백중맞이 불우이웃돕기행사의 일환으로 하동일대 주민 10세대에 각 2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전달한다.



실직자녀에 예능교육

도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장은 17일~22일 오후 2시 복지관에서 예능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등 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구족계 수계산림법회

월파 통도사 주지는 26일~27일 오전 10시 30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일연스님 709주기 다례

법타 은해사 주지는 22일 일연스님 열반 709주기를 맞아 다례재 및 경북도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를 은해사에서 열었다.



'…범어문법' 심포지엄

종림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스님은 29일 오후2시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고려 대장경에 나타난 고전 범어 문법'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부처님 개금불사 점안

정우 김포 선경암 주지는 16일 육군 제2기갑여단 933대 충성사 군법당에서 부처님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하고, 전투대원 5백명분의 다과를 전달했다.



철웅스님 초청법회

덕진 울산정토사 주지는 26일 오후7시 정토사 법당에서 파계사 성전암 철웅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명동성당 평화의집서 법문

도각스님 한국불교청년회 산하 마음의 전화 대표는 9월3일 오후 1시30분 명동성당 평화의 집에서 마련한 불교와의 대화에 초청, '우째왔다가 와 그냥 가노'를 주제로 법문한다.

여순 감옥에 安의사 추모비

삼중스님, 무궁화도 심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인 15일 오전10시, 안중근의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88년만에 중국 여순감옥에서는 고인의 추모비가 세워지고 겨레의 꽃 무궁화가 심어졌다.

여순감옥 앞뜰에 세워진 이 비석은 높이 1.2m, 폭 80cm 크기의 옥돌로 만들어졌으며 안의사의 영혼과 기개가 역사에 영혼히 빛나라는 의미의 '국제항일열사영수청사(國際抗日烈士永垂靑史)'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한 박삼중스님(자비사 주지)은 "특히 뜻을 같이해 준 김도기스님과 백명숙씨,김태원씨 등 28명의 불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삼중스님과 함께 '한중일 국제항일의사 안중근 추모사업회'를 결성한 조선족 김파씨와 재일교포 조만길씨등이 참석,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안의사 유해 본국송환문제를 공식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어린이 지도교사 자질 함양"

동련교사대학 개원 정여스님



"어린이들의 신심(信心)을 키우고 삼보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어린이 지도교사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9월1일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포교를 맡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인 동련불교교사대학을 개원하는 정여스님(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회장)은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법회 등 어린이 신행을 도맡을 지도교사 양성 교육기관이 없어 교계 일부 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인 어린이지도자연수를 치뤄왔다.

정여스님은 "이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동련불교대학 개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련불교교사대학이 마련한 교육 내용도 어린이 지도교사의 교육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불교문화교육, 아동다루기 기법, 감정통제와 '나' 전달법, 아동심성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모았다. 이외에도 사찰습의, 불교학개론, 포교방법론 등 기존 교양대학의 불교기초교리강좌도 배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법 실현이 진정한 호국이죠"

동국대 권기종 교수



"불교의 진정한 호국(護國)은 호법(護法)을 통해 구현된다."

18일 KBS 남한강수련원에서 열린 '98 역사학회 특별심포지움 '역사상의 국가권력과 종교-역사·철학·종교의 학제간 연구'에서 동국대 권기종 교수(불교학부)는 '수·당시대의 불교사상과 정치권력'을 통해 "호국사상은 왕권이나 국가에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고 국가의 안위를 비는 주술적 이념이 아닌 사회통합적 기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왕호국반야경(仁王護國般若經)〉을 통해 국가권력과 불교 호국사상을 연구한 권교수는 "불법(佛法)의 바른 실천은 곧 호국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왕권의 불교탄압도 사라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불교문화센터 가을 강좌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9월 1일 부터 제24기 불교문화센터 가을 강좌를 개강한다.

뉴욕페스티벌 심사위원에



조해형 나라기획회장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광고제인 뉴욕페스티벌 국제상(AME) 심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수재민 돕기 특별 생방송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은 22일 현대백화점 앞에서 '이웃의 아픔을 자비의 손길로'라는 제목으로 수재민 돕기 특별 생방송을 실시하고 모금운동을 벌였다.

서울신문 논설위원에



이계홍 불교언론인회 부회장은 1일자로 서울신문 논설위원에 임명됐다.

차생활 기을 강좌



감승희 한국차생활문화원장은 2학기 가을강좌 기초반과 전문반 수강생을 31일까지 모집한다.(02)737-0698

포교사과정 일일 출가교육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은 22일~23일 김천 직지사에서 제8기 포교사과정 불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일일출가 승단생활 교육을 실시했다.

동산불교대학 9기 졸업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은 23일 오후 3시 동산불교대학 제9기 졸업식을 동산교육회관에서 가졌다.

대불련 하반기 임원교육



박성철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20일~22일까지 대구 경북지구 제41차 하반기 지회 임원교육을 가졌다.

"불교계 체계적 복구활동"

수해자원봉사 지휘 이용권국장



"이번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불교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가 진일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동두천·과주지역 수해복구 현장에서 조계종 자원봉사단을 이끈 이용권(42)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96년 문산·연천지역 수해 때보다 훨씬 일사불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모두 23개 단체 1천여명에 달한다.

이 국장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첨병인 불교자원봉사 인력의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불자의원 4명 상위·특위장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제15대 16개 상위·특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불자의원 4명이 임명됐다. 산업자원위원장에 서석재(국민신당·국회정각회·맨 왼쪽) 교육위원장에 함종한(한나라당불자회 회장) 국방위원장에 한영수(자민련 부총재) 보건복지위원장에 김찬우(한나라당)의원이 선출됐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신성한 사찰서 실례를…

Focus

현직 공무원이 사찰에서 방뇨는 물론 협박까지 일삼아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전북 진안군 정천면 구암사 인근으로 계모임을 나왔던 정천면사무소 김춘섭 산업계장은 만취된 상태로 옷을 벗고 사찰에서 방뇨를 했다. 이같은 산업계장의 행동은 처음이 아니다. 구암사가 경내지에 그린 산장측이 건립한 시설(주거용집)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그후 수시로 사찰을 찾아와 신도들 보는 앞에서 불순한 언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측은 "경내지에 불법으로 건립된 시설물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인데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거세게 항의하며 방뇨에 협박까지 일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해외원정땐 반드시 예불"

산악인 박영석씨



97년 세계최초로 1년간 8천미터급 6개봉 등정에 성공한 동국대 산악회 박영석씨(36), 세계 14좌봉 완정에 도전하고 있는 박씨는 9월2일 10번째 목표인 네팔 마칼루(8,463m)와 마나슬루(8,153m)봉으로 떠난다.

해외원정을 떠날때면 반드시 모교인 동국대 정각원에 들러 예불과 기도를 올린다는 김씨는 93년에는 세계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불상을 봉안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한국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 본대학 특징 ●

1) 직장인, 가정주부들에게 불교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종교사회교육대학임.
2) 15년간 배출된 졸업생은 사찰, 군법회, 교도소등 각분야포교, 각종단에 출가 활동중.
3) 희망에 따라 고시를 통해 조계종포교사자격을 취득함.
4)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진학을 추천함.
5) 일요일 서울, 부산 본대학 캠퍼스에서 특강과 가정학습통신교재로 교육함.
6) 별도 수강료는 없으며 1학기(6개월) 12만원 교제대만 받음.

● 모집과정과 입학자격 ●

포교사과	1년코스	고졸이상 실력자와 초발심자 조계종포교사고시 집중지도
대학과정	2년코스	고졸이상 실력자 또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대학원과정	2년코스	불교교육기관에서 2년이상 수학한자
삼장법사과	3년코스	불교교육기관에서 4년이상 수학한자

● 입학절차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사진3매첨부(원서대 5천원신청), 주민등록등본1통, 1998년 9월 5일까지 본대학 또는 부산분교에 전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심사후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에 직접 전화로 문의 하기 바람.

한국불교교육대학
학장 철학박사 김공철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146 부산분교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704 석림정사
전화: 02)821-0541, 821-0542 팩스: 821-0543 전화: 051)581-4111, 582-4110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및 작법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발전 시키고져 하오니 뜻 있는 스님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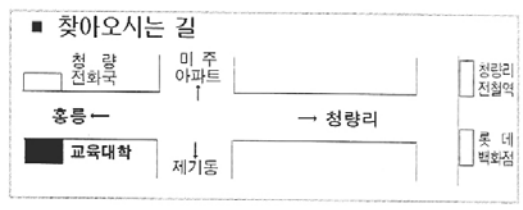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5회(월~금)
▶ 접수일자 : 1998년 8월 17일~9월 6일
▶ 개 강 : 1998년 9월 7일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불교학생회 창립붐…호남불교 '파란불'

광주 · 전남교사련 추진…40개 중고교 결실
매달 사찰순례 · 민족문화 정신 배워

'호남불교의 앞날이 밝다.'

광주 · 전남교사불자연합회가 광주시내 80개 중 · 고교중 1일 첫행사를 가진 동신여고를 기점으로 40개 학교에 불교학생회와 불교문화답사반을 창립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 전남교사불자연합회가 86년부터 '우리민족의 동량을 키우자'고 발원하며 추진해온 중 · 고교 불교학생회및 불교문화답사반 창립운동은 청소년수계식과 무등산 환경정화 및 백일장대회에서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각 학교의 불교학생회와 문화답사반은 매달 1회 사찰을 순례하며 우리불교문화를 통해 슬기를 배우고 자신을 찾는 시기에 주지스님의 감로법문으로 진아를 일깨울 수 있어 날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여타 미창립학교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태다.

광주 동신여고 불교문화답사반은 7월 31일부터 1일까지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보성 대원사 '출가생활 1박2일' 수련회에 참가한 것으로 첫 창립행사를 가졌다. 수련회에서 학생들은 예불과 108배 정근, 참선, 티벳불교 슬라이드 상영,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답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주 송원여상 불교문화답사반의 경우는 1백50여명의 회원이 참가신청하여 여러가지 여건상 1백여명으로 회원을 확정하는등 학교에서 인기몽아리로 알려져 있다.

중앙중학교 불교문화답사반(지도교사 강구)은 학년별로 50명씩 편성돼 활동하며 한달에 1회 사찰을 순례하며 주지스님 초청법회를 보고 있다.



◇광주시내 중고등학교 불교문화답사반 광주 중앙중학교 사자산 쌍봉사 답사장면.

광주 · 전남교사불자연합회 김진택 회장은 "현재 1백여명의 교사불자들이 매달 법회와 불교교리공부를 실시하고 역량이 되는대로 각 학교에서 불교학생회나 문화답사반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며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는 교사불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9월부터 회원배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 전남교사불자연합회는 7일부터 9일까지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박3일간 나주 불회사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묵언정진및 바루공양, 참선, 정진, 사찰예절 강의 등 지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성원살리기 서명 착산

(주)성원 화의신청 서명운동 본부(본부장 혜총스님)는 12일 부산 연산동 코리아나에서 교계와 언론인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명운동 촉진을 위한 모임을 갖고 교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원살리기에 동참키로 했다.

한편 성원은 3일자 한겨레신문의 '성원토건 부도직전 특혜지원 의혹'이라는 기사와 관련 "시기적으로 98년초부터 7월까지의 공정률을 근거로 지급하고 수령한 공사기성금을 마치 부도 며칠전에 지급하고 수령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회보좌진 사찰순례

국회보좌진불자회 법우회(회장 정병국) 사찰순례법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강화도 보문사에서 열렸다.

이날 사찰순례법회는 108배 기도정진, 참선순으로 진행됐다. (02)784-3860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개관준비위원회'(위원장 월주)는 14일 경기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집(원장 혜진)에서 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 이인재 신한국당고문, 임창렬 경기도지사, 대동주택 곽정환회장(건물기증자), 조영자 보살(부지 기증자)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불교방송과 불교TV는 15일 용인 호암미술관 정원에서 광복53주년 8 · 15 예술한마당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18면〉



청담복지관 노인보호센터 개소

서울 혜명복지원(이사장 동광스님) 산하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은 8월18일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식 및 경로잔치를 봉행했다. 개소식에는 도선사 주지 등광, 금천구의회 최병순의장, 금천구청 이영대 시민국장, 이무성 혜명보육원장, 연꽃마을 최재식 노인주간보호센터장, 자양사회복지관 공영애 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로잔치에는 노인 4백여명이 초청됐다.



감로사 충담스님 49일 추모영산재

불교중흥과 남북통일, 국가경제회복을 발원하고 지난 6월 소신열반한 태고종 원로 충담스님 49일 추모영산대재가 14일 청평 감로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태고종 종정 보성스님을 비롯하여 인곡 총무원장, 지성 총무부장 등 종단 간부와 천태종 총무부장 국성스님, 정덕중 태고종 전국신도회장, 서석재 국회 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결식아동돕기 '자비의 탁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본부(대표 정각스님)는 19일 범일동 자유시장과 평화시장에서 결식아동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자비의 거리탁발'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굶주린 학생들의 실태를 알리고 종교계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운동본부는 ARS(700-1800)와 은행계좌, 지로 바자회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도 모금한다.

"내 마음속 부처님 찾자"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수련회
수계식 · 수재민 위한 기도법회



나우누리 불교동호회 부처님마을(회장 허무룡) 하계수련회가 2일 경북 선산 도리사에서 열렸다(사진).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참선 및 철야정진을 비롯하여 수계식도 가졌다.

도리사 주지 법등스님은 "신라최초의 가람 도리사를 찾은 불자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여 내 마음속의 부처님을 찾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회원들은 비피해를 당한 많은 주위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원하며 철야정진 기도했다.

영어배우는 불자모임 탄생

화계사 국제선원 '더 보디사트바스'
외국인스님 회화 · 불법 무료 강의

국제화와 근검절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스님들이 직접지도하는 '영어를 배우는 불자들의 모임'이 탄생했다.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마련한 'The Bodhisattvas' 모임(반장 청공)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가입한 회원은 학생이 주축을 이루는 초급반 15명과 직장인위주의 중급반 20명등 모두 35명이다.

모임에서는 영어회화 무료강좌와 영어로 듣는 불교강의, 영어토론시간도 갖고 있다. 특히 'The Bodhisattvas'는 수준에 따라 초보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이원적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와 토론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적으로 영어를 생활화하고 있어 회화습득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가한 외국스님들이 우리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여 마련한 무료강좌는 영어에 명행스님(美 코넬대 졸업)등이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차이점' 등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화계사 국제선원 무심스님은 "많은 직장인불자들이 가입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여 불교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The Bodhisattvas' 모임의 회원들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국제선원에서 열리는 참선과 영어법회에도 참가하여 무진스님의 법문을 듣는등 알찬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The Bodhisattvas' 모임은 영어에 관심있는 학생이나 직장인등 불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는 무료이다. (02)900-4326

탐방 동국대 경주병원불자회

친절 · 쾌적한 병원만들기 '한몫'

90년 개원 당시 발족
불서 · 불교영화 서비스
연등보시 · 환경보호도

연건평 3천여평을 새로 증축하여 최근 준공검사와 고불식을 마치고 이사가 한창인 동국대 경주병원. 병원내에 설치된 의자들에는 불자회 이름이 들어가 있을 만큼 불교병원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서비스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경주병원 불자회(회장 이영현. 진료부장)는 90년 동국대 경주병원 개원과 함께 발족했다.

여러가지 행사로 병원을 홍보하고 불교병원으로서 친절한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지역내에서 기반을 확충했다. 또 8년만에 증축하는 외형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전체직원 거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불자회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경주병원 불자회는 해인법사를 주축으로 회장단 고문등이 속한 지도부와 총무부 조직부 구도부 사회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쾌적한 생활, 신행생활을 통해 병원운영의 일부분을 담당할 만큼 불자회는 부서별로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의 경조사와 회원 가입및 퇴직 생일등 모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여 선물과 도움을 주는 등 상부상조를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매달 1회 열리는 법회를 비롯하여 수련회, 성지순례행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물론 병원내 불교서적 배부와 불교영화 상영, 연등보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동국대 경주병원불자회 임원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밖에도 외부행사로 택시내 연등달아주기, 경주 유적지내 쓰레기수거등 환경보호활동, 전통한복입기 운동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영현 회장은 "앞으로 무료 진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병원이용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만들기에 불자회가 앞장 서겠다"며 입원환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기위해 합장주를 보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일년 후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대동소방은 1994년 창사이래 소방기자재 제조 및 판매분야에서 매년 100%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세계최일류의 소방제품 메이커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교계의 보기 드문 불자 기업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저희들의 주거래선인 설비업체들의 연쇄부도가 거듭되어 현재까지 그 부도로 인해 당사가 입은 피해액이 약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직원이 "일체유심조"의 사훈과 불심으로 화합하여 거듭되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그간 당한 부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부도금액의 4할 가량을 자체자금으로 변제하여 왔으나 현재는 담보여력 부족으로 은행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도 더이상 불가능하고 미수금들의 수금도 난망하여 3/4분기 변제해야할 3억원에 상당하는 부도금액 변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불자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에 맞춰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자 여러분이 만원씩만 투자해 주신다면 이번 일시적인 부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불자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40억이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도 IMF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20억을 초과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현재 $200,000 가량의 L/C가 내도 예정이며 또한 약 $300,000의 추가상담이 진행중 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액이나마 $30,000의 수출에 성공한 상태로써 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심정으로 더욱 발심 노력하여 건실하고 튼튼한 불자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저희들은 저희들이 거둔 열매를 불교발전과 불법홍포의 밑거름으로 회향할 것을 불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부도 잔액변제 및 제조생산기반 확충과 수출제품 개발을 위해 쓰여질 것이며 그 사용또한 투명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참여하실 방법

① 하기 당사구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 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②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입금확인후 차용증 혹은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투자모금액수: 5억원
- 투자한도: 1인당 1만원이상 1백만원 이하
- 투자 모집기간: 불기 2542년 7월 20일부터

참고로 저희회사에 대해서는 불교신문 5월 26일자, 주간불교신문 5월 26일자, 현대불교 5월 27일자 및 매일경제신문 7월 1일자 2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佛子企業을 키워 주십시오.
成佛하십시오.

대표이사 智眼 이남제 외 임직원일동 合掌

대표전화:02-215-0723
FAX:02-246-8503

예금계좌
서울은행: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015-026140-04-011
상업은행:178-04-105683
한일은행:097-147931-13-501
제일은행:154-20-040173
국민은행:355-25-0003-678
신한은행:313-05-014055
축협:200-72-07640-717
농협 :258-17-000764

예금주
(주)대동소방

주식회사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사 대표전화(02)215-0723 FAX (02)246-850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지사 대표전화(0561)772-0729 FAX (0561)772-3923
경북 경주시 옹강동 304-3
공장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679

▶8월 18일까지 투자자 명단
이덕기 임옥빈 백상현 이완규 임경분 김옥희 강병주 권기선 장경심 신현종 나숙희 허인사약수암 박동원 이기향 고명옥 홍연희 홍연희 이재옥 지은혜 챔피온 진남곤 윤명옥 김정봉 김윤분 이순자 박영수 김태윤 이현숙 권재슬 박현동 이종현 이재숙 이분아 배경희 강중혁 오혜주 구자원 천성봉 김금홍 허덕남 지현스님 허 주 서윤석 이석정 김성관 서승희 전이준 장정태 영월스님 조정현 오양자 한경호 이재옥 구영미 구본일 안락행 박분두 안종순 조호용 조인결 박언조 최경락 임옥희 영광도서 원태권 박승운 수 종 백암용화사 이정숙 최임자 조명숙 김미경 조명숙 노화옥 이화이 정계명 오광수 김병곤 배영숙 윤인숙 서은희 김덕화 장명만 이철은 이제선 박영원 손경자 김주덕 정은희 김유화 박건석 채봉수 강용운 이영숙 문옥남 김병순 김주훈 김미명 강순덕 이봉윤 문대식 포항관음사 조치원보사 한영자 박득채 이원형 이정순 김경자 장태영 김지숙 신우현 김영주 양재석 이경희 김효성 손순호 김인규 지현자 송범스님 최성연 김영환 김주형 · 주성 정현애 정학수 최정숙 윤혜애 이종태 태안사 김주자 박주명 지원화 구영자 이재순 이명숙 세안스님 청호스님 이혜정 배필수 최길숙 김정숙 연명순 정해진 명법사 김분남 보천사 성기훈 조선옥 황봉환 홍윤사 지일스님 김양수 황선자 이종순 기장사 허경옥 권영하 권영순 허삼수

열린마당

스님도박 왜, 이런일이…

한 스님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스님들은 물론 많은 불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미 일은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출가정신의 부재, 사찰 재정관리의 불투명, 제도의 사문화, 스님들의 도박행위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계종총무원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스님들이 알아서 쓰라'는 시주관행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 사건을 참회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님도박이 왜 일어났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지난 13일 음식점에서 도박을 벌인 승려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은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것도 한 판에 천만원대의 상습도박이었다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더욱이 나라 전체가 온통 수재로 실의에 빠져 있는 이 때에 터진 이 같은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될만한 불교전체의 치욕거리다.

이번 사건의 근본은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생의 사표가 되어야 할 수행자가 오히려 중생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이 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깊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자가 기야 할 길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 다시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수행자의 본분 "어리석음의 씨를 심지말라"

▨수행자들이여, 마음이 삿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음탕하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며, 생각이 악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부귀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 〈불반니함경〉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지느니라. 〈잡아함경〉

▨비구는 법답게 살아가면서 중생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쁜 행동을 멀리 버리고 계율을 지켜 고요히 쉬라. 〈별역잡아함경〉

▨수행자여,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들여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좌우를 보고 몸을 펴고 구부리기와 옷입기 등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앉고 눕고 오고 감에 질서가 있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장아함경〉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올바르게 살펴야 할 네가지 진리가 있다. 중생의 현실은 고통과 괴로움이라 보는 것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를 살피는 것이며,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 열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 일이요, 그 열반에 도달하는 길을 살피는 것이니라." 〈잡아함경〉

▨수행자여, 온 천하 사람들을 살펴보라.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도 죽기 마련이요,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이니라. 마치 꿈속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다가 꿈에서 깨면 꿈속에서 누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듯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부귀 영화도 꿈과 같아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보이지 않고 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세상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꿈같이 생각하고 법을 잘 수행하라. 〈불반니함경〉

▨수행자들에게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어 피안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육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계율에 대한 그릇된 견해, 그리고 따져 알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 의심하는 것이다.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가지 번뇌를 말하리니 명심하라. 탐욕, 분노, 교만, 어리석음, 의심, 자기 견해에의 집착, 그리고 세간 일에 매달리는 것들이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곱 가지 번뇌에 얽매이면 번민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증일아함경〉

▨만약 수행자의 처지에서 중생이 겪는 온갖 불행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비칠 것인가. 중생들은 근고(勤苦)의 뿌리와 어리석음의 씨를 심으며 살고 있는 것이매, 진정한 수행자의 눈에는 다 타기할 것으로 비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생사의 병을 모면코자 할진대, 주야로 정진하여 도의를 버리지 않고 무위(無爲)를 구해야 하느니라. 〈수행도지경〉

계율 어디로…참회운동 펴야

지원스님 〈전불련 상임의장〉



가끔 초발심자경문을 들춰보다 깜짝 놀라곤 한다. "만약 출가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명산을 향하여 묘지(妙旨)를 궁구하되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인정을 끊고 주리고 배부름에 무심하면 도가 저절로 높아질 것이니라."

인격을 완성시키고 사회와 인류의 중생을 제도하는 데 출가의 본뜻이 있다고 했는데, 야운스님이 남긴 자경문의 한 구절이 칼끝처럼 시리게 다가온다.

조계종포교원에서 펴낸 〈불교입문〉에서는 스님을 "재가불자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재가불자들이 받들고 존경하며 항상 가르침을 받는 친근한 분"이라고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재가불자들은 수행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복이나 음식, 약 등을 공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가불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수행자의 신분으로서 도박을 한다는 것은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한국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고, 사회는 물난리로 온통 나라 전체가 벌집 쑤셔놓은 듯 어수선하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승려들이 불교와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불교도들과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출가했는가. 배 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고자 했음인가.

종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던 일들에 대하여 과감히 대처해 종단 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책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다. 출가정신의 회복, 새로운 교단을 세운다는 각오로 대참회운동 등을 결쳐야 한다.

정재관리 투명성 확보 급선무

신근식 〈삼보법회 이사장〉



귀중한 삼보정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에 의해 도박의 뒷돈으로 쓰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사리사욕을 위해 부처님 돈을 남용한 사람들의 큰 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아울러 우리 불교신도들 또한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를 도운 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스님들을 타락으로 내몰지는 않았나. 정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위없는 부처님의 뜻을 저버린 행위로 인해 무간지옥으로 직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부처님 돈이 삿된 행위에 쓰여지는 것에 경종을 주신 부처님의 자비이시다.

삼보법회는 64년 창립 이래 68년도부터 재정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매월 항목별 수입금과 지출금을 월말을 마감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모든 회원불자들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0일을 연말결산기준일로 정하여 신년 1월 30일 이내에 연말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때 회원불자들에게 배포한다.

조계종 종법상에는 사찰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다. 사찰의 관리와 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목적으로 한 사찰운영위원회법에 따르면, 각 사찰은 7~30인 이내의 스님과 신도들로 구성, 사찰의 예·결산을 비롯한 사찰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94년 개혁종단의 개혁정신을 반영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불교계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단체가 혼탁한 물질위주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우선 재정의 확고한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이루는데 있다고 확신한다.

개혁종단 감찰행정 직무유기

김동흔 〈경불련 운영위원장〉



스님들이 무슨 돈이 그리 많아 도박을 했는지 궁금하다. 많은 부분은 신도들의 보시금이 아닐까. 각종 불사를 하며 이중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일부 승려들의 도박·부패는 이미 문제제기 되어 왔음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96년 당시 월하 조계종종정께서 총무원장에게 은처승과 도박승을 척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중앙종회에서 "도박승과 은처승이 있다"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는 총무원의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후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그렇다면 도박승이 있으며, 조사가 진척되고 있다는 보고는 엄포용이었나, 아니면 개혁종단임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묻고 싶다. 결국 총무원은 이번 '스님도박' 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조치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범한 셈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종헌종법에 의거한 엄정한 자세로 임하길 당부한다

아울러 무주상보시를 미덕으로 여기는 불자들의 의식과 헌금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신도들의 보시 가운데 재시(財施)는 교단의 수호와 발전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에 필요한 물질을 담당하는 행위이다.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너무 크고, 알아서 쓰라는 시주 관행이 스님을 도박판으로 내몰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보시를 할 때 돈이 쓰일 곳을 명확히 하고 돈이 목적대로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절에 가서 가족의 경안과 복만을 빌고 오는 것은 진정으로 불교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다.

PC통신 유감…한숨

수재의연금으로 쓰시지

○… '스님도박' 보도 이후 시내를 나가봤는데 다양한 메시지가 눈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번씩 쳐다보는 것이었고, 그리고 간혹 질시의 눈이었고, 더러는 위로의 눈이었습니다. 이 어려운때 기천만원씩 도박이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IMF, 홍수재해, 구조조정, 횡불사건등 많은 사건들의 연속인데 수재의연금은 못내더라도 기천만원대 도박이라뇨.
장성윤(유니텔/백강)

차라리 출가 말았어야

○… 스님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돈(수억도 모두 불자들이 준비한 돈 아닙니까. 정성들여,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내는 돈을 도박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님이라는 존재자체가 보통 인간들이 견딜 수 없는 유혹을 물리치고,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못할 망정 평범한 인간만도 못하다면 차라리 평범한 인간이 되지 스님을 뭐하러 합니까?
강석춘(유니텔/cutegaea)

초발심으로 돌아가길

○… 스님들도 우리 불자들처럼 발심하고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넘어진 것뿐, 넘어진 것도 공부지요. 다만 넘어졌으니 무릎이 아픈 과는 피해갈 수 없겠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도박이라는 방편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옥석을 나타내신 것이죠. 옥석을 밝혀주신 모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또 넘어지신 스님들의 빠른 회복을 원합니다. 박문수(유니텔/응119)

비온뒤 땅이 굳어지듯

○… 화투가 뭔지도 모르는 저같은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이번 기회로 스님들의 이미지가 내려간 것 같지만 심기일전해서 불자로서의 면모를 다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비갠 뒤 땅이 굳어지듯 시행착오 속에서 새록새록 불성은 더 싹트고 있겠지요? 월명암 뒷채에서 생식하시며 선객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내리는 월명큰스님을 떠올립니다.
이현자(유니텔/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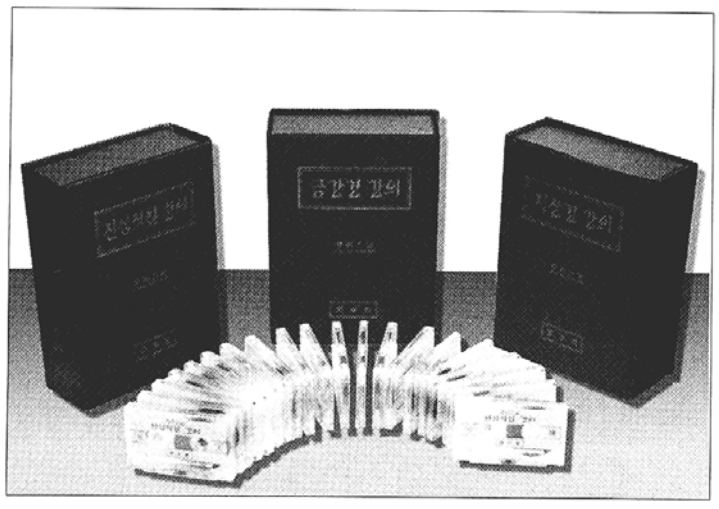
많은 스님들 오직 정진

○…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성직자들의 훌륭한 정신과 수도생활 등을 보고 듣고 따르는 것도 있지만, 본질은 종교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도박' 뉴스를 접하고서 불교도 어쩔 수 없다라든지 스님들은 모두가 그럴거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넓게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불교동(유니텔/s1bud2)

재발방지책 마련을

○… 불교는 자기 정화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무자비한 일로 보는 잘못된 자비관에 기인합니다. 아무리 승단의 부패를 개탄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배경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또 단호한 승단정화 의지를 표명하는 단체나 스님이 없는 한 그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재발되거나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악행과 비리를 묵인하는 자는 불교 가운데 원수이다."〈대열반경〉
PBOBJANG(천리안)

無比스님 경전강의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강경 · 지장경 · 진심직설 - 무비스님 직접강의

● 금 강 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지 장 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

● 구입문의 : 02)732-1522 ●

문구암스님
범음 · 범패집



▶ TAPE 목록
①불공의식 ②삼신이운 ③신장청 · 신중권공
④상단청 ⑤상단권공 · 거목 ⑥대령 · 관욕의식 I
⑦대령 · 관욕의식 II ⑧대령 · 관욕의식 III
⑨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⑩영산작법 I
⑪영산작법 II ⑫영산작법 III ⑬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⑭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⑮지장권공 II ⑯전시식
⑰배 송 ⑱운심게 ⑲법사이운 · 명전점안
⑳종성 · 천수작법 · 요잡

큰스승 문구암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테잎 1질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

● 구입문의 : 02)732-1522 ●

기묘년 불교달력 '나왔다'

조계종 출판사 · 감로기획 등 달력 선보여
산사의 사계 · 연꽃 · 석불 · 문살등 내용 다양

안방에서, 사무실에서, 또 사찰에서, 각 관공서에서 일년내내 보게되고, 또 보아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달력이다. 음력과 불교의 각 명절·의례의 식일이 적혀있는 불교달력은 신행활동을 위한 필수품이면서 말없는 포교사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무인년 여름도 다 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벌써 불기 2543년(1999년) 기묘년 불교달력이 나오고 있다. 새해 달력들은 사계절의 산사, 연꽃, 석굴암 등 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재는 물론, 석불, 동자승들의 모습, 문살, 사군자, 달마도, 나한도 등 다양하다.

조계종 출판사가 내놓은 달력은 3종. '처염상정'과 '산사의 향기', 그리고 숫자판으로만 된 '무상'이다. '처염상정'은 지난 7월 개인전을 가진 일선스님의 탁월한 색감의 연꽃그림을 선별해 묶었으며 '산사의 향기'는 서명스님이 촬영한 유명사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았다. 칼라와 흑백 2종이며 조계종 종무기관의 연락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02)733-6390

감로기획에서는 각 불자들의 취향에 따른 달력 8종을 마련했다. 해맑은 동자승을 통해 천진불심을 되새길 수 있는 '동자승의 세계', 산사의 4계를 담은 '산사의 향기', 국보 보물로 지정된 석불들을 모은 '한국의 석불', 부처님의 땅 경주 남산의 마애불을 볼 수 있는 '경주남산', 금강산의 사계, 익살맞은 나한의 모습을 소개한 '나한도' 등. 최근 각광받는 사찰문살의 아름다운 문양을 모은 '불교전통문살의 미'와 석불, 산사의 향기 등은 사진작가 안장헌씨의 사진들이라 특유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02)723-4306

불광출판부가 내놓은 달력은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을 비롯 불 보살상들을 모은 안장헌씨의 사진 '석굴암'과 윤명숙씨가 찍은 해인사 송광사 실상사 금산사 등 명찰의 특색있는 부분을 잡은 '한국의 사찰' 2종류. (02)420-3200

불교이벤트사는 전통적 불교문화에 동화적 요소를 가미한 '어진이' 2종과 산사의 고즈넉함을 주위 풍경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한 동양화작품, 매란국죽의 사군자 그림을 통해 육바라밀을 표현한 '육바라밀' 등 4종의 달력을 선보이고 있다. (02)716-7790

불교극단 '바탐' 달력사업부는 모두 9종류의 달력을 마련해 놓았다. 사진작가 이승민씨의 '연화의 사계', 월연스님의 '달마도', 사찰의 사계를 담은 '절이 있는 풍경' '보살도' '사찰풍경에 목각으로 된 동자상을 배치한 '목아동자', '천진불' 등이다. (02)725-6824

대구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 노춘애 · 김성복 · 김종언 · 김도환씨 등도 각각 유화로 그린 산, 연꽃, 경주남산 석불, 산사 달력을 펴내 이채. (053)654-3465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다양한 그림 · 사진들을 소재로 한 1999년 기묘년 새 달력들.



◇세계순회전을 갖는 원성스님의 동승그림 '봄볕'.

동승그림 '지구촌 순회'

9월부터 서울→밀라노→뉴욕→도쿄

천진불심 동승의 미소가 세계로 나들이를 떠난다. 천진무구한 '동승'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중앙승가대 복지학과 4년)이 9월부터 세계 유명 4대 도시를 순회하는 초청전시를 갖는다.

9월 4~13일 서울(안국동 백상기념관)을 시작으로 10월 10~25일 이탈리아 밀라노(극동 아시아예술 및 민속학 박물관 전시실), 11월 1~7일 미국 뉴욕(맨하튼 한국문화원 전시실), 11월 15~21일 일본 도쿄 등에서 차례로 갖는 순회전시의 주제는 '산중일기', '지대방 이야기' '사유' '봄볕' '관세음보살' '청송아래서' 등 산사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의 여러 모습을 해맑게 표현한 그림 80여점이 소개된다.

자연과 교감하는 천진스러움과 청정한 향기를 느끼게 하는 원성스님의 그림은 이미 수차례의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어왔다. 원성스님은 "외국인들의 눈에 동승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모르지만 세계의 주요도시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불심의 꽃을 활짝 피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창무예술제 한중일 무용가 한자리
아시아의 정신 찾는다

'미래를 밝힐 '아시아의 정신'은 아시아인들의 신체를 통해 발현된다.'

동양인의 신체에 관한 왜곡된 시선과 서구화된 관점을 지양하고 '저개발의 신체'에 눈을 돌린 '98 창무국제예술제 '아시아의 정신-저개발의 신체'가 26일 서울 창천동 포스트극장에서 개막된다.

창무예술원 주관으로 열리는 예술제는 9월4일까지 서울공연을 마치고 10월12일부터 16일까지는 중국 북경 인민예술극원 수도소극장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8월26일 오프닝 무대는 일본 오노 요시토 무용단의 '공(空)'으로 시작된다. 오노는 자신의 춤은 사람과 자연, 사물의 삶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것과 함께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한국의 '춤과 음악과 시의 만남-세개의 사랑노래', 중국 북경현대무용단의 갈라공연, 일본 윤명희씨의 현대무용 'Yang-노조꾸히쯔지'등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중국 북경공연에는 김경주씨의 '승무', 운주사에 얽힌 천불천탑이야기를 소재로 한 김선미씨의 '천불탑 월영'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소개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창무국제예술제에 선보일 오노요시토의 '공'.

불심시심 〈141〉

석양 보내는 종소리

來自鳳城明月路 봉성의 달 밝은 길로 와서
(래자봉성명월로)
登臨方丈白雲峰 산사의 흰 구름 봉우리에 올랐네
(등림방장백운봉)
詩香碧砌花千片 푸른 섬돌 일천 꽃잎에 시는 향기롭고
(시향벽체화천편)
語冷疎林竹萬叢 일만 그루 성근 대숲처럼 말씀 서늘해
(어랭소림죽만총)
紅影日飜秋樹岸 붉은 그림자는 가을나무 언덕에 번득이는 햇살
(홍영일번추수안)
寒聲風送夕陽鐘 바람에 나부끼는 저녁 종소리의 차가운 울림
(한성풍송석양종)
重逢又得瓊琚句 다시 만나자 또 얻게 되는 구슬 글귀에
(중봉우득경거구)
却愧山僧和未工 산승의 공교롭지 못한 화답이 부끄럽소.
(각괴산승화미공)

상월대사의 시이다. 지방관리인 봉성의 책방 김공에게 주는(呈鳳城冊室金公) 시이다. 방외의 사귐에서 주고 받는 시이다. 두 사람의 우정을 이야기하되, 다만 자연사물만 이야기하여 간접적으로 우정을 짐작케 하고 있다. 떠나온 곳은 봉성이라는 저자 거리이다. 그런데 그 길을 밝은 달 거리 명월로라 하였으니 상대방의 거처에 대해 미화하고 있다. 이 명월의 거리에서 백운봉을 찾았으니 그야말로 궁합이 맞았다. 명월과 백운은 항시 같은 공간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만나서 주고 받는 시는 향기롭다. 왜 향기로울까. 파란 이끼의 섬돌에 진홍의 일천 꽃잎이 수놓고 있다. 이것이 모두 시의 소재들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가 향기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주고받는 말씨는 어떠한가. 빈틈없는 논리가 싸늘하리만큼 느껴진다. 온갖 대숲의 풍미가 깃든다. 시의 수사에도 묘미를 더하면서 상대방의 문학이나 인품도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다.

해에 번득이는 가을 단풍의 진홍빛이 바로 산의 그림자이다. 굳이 이 산의 절경을 언덕(岸)으로 대표하였다. 역시 시인의 사물 인식의 독특함이다. 햇살과 단풍의 조화는 지는 해를 사선의 대칭으로 맞서는 언덕이라야 제 빛을 낸다. 거기에 바람소리 따라 울리는 저녁노을의 종소리이다.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경관이지만 시의는 경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 상대방의 그림자(影嚮)요, 소리(色聲)이다. 이것은 자연물로 사람의 품성을 유추하되 드러내지 않는 미화의 수법으로, 바로 대사의 시가 자연물을 맞아들이는(迎入) 높은 수법이라 하고 싶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느낌, 극락같은' 재공연

'98 서울국제연극제 참가
9월 18~24일 문예회관

외적으로 보이는 완벽한 형태에 치중하는 동연,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외적인 완벽함이란 무의미하다는 서연. '느낌, 극락같은'(이강백 극본 이윤택 연출)은 이러한 상반된 가치관이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화합해 함께 조화된 삶을 이루나가는 가를 집요하게 추구한 불교연극이다〈본지 제174호 7면 참조〉. 지난 5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강백연극제에서 호평을 받은 이 연극은 '98 서울국제연극제 공식 참가작으로 결정돼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재공연된다.

'…극락같은'은 불상제작이라는 상징적 작업을 두고 형식이 내용을 보장한다는 동연과 내면의 의미를 보다 중요시하는 서연 두 사람의 세계관을 대립시키면서 예술가로서 가야할 길과 인간삶에서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묻고 있다. 초연때에도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대사와 이윤택 특유의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무대가 돋보였다는 평을 들었다.

함묘진역을 관록파 배우 신구씨가 맡으며 조영진(서연 역) 이용근(동연 역) 김소희(함이정 역) 이승헌(조숭인 역) 등 초연때의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한다. 이 연극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화제를 모았던 12명의 불상 코러스들이 화려한 채색의 봄의 불상, 여름을 상징하는 금동불상, 쓸쓸한 가을의 토우, 황량한 겨울 들판의 돌부처 등을 형상화하며 인물들의 갈등과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느낌, 극락같은'의 기획 홍보를 맡고 있는 '해연'은 많은 불자들이 관람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불자에 한해 입장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02)741-7853



◇서울국제연극제 참가작으로 9.18~24일 문예회관대극장에서 재공연되는 '느낌, 극락같은'의 한 장면.

문화 단신

성호스님 달마展
수익금은 수재민돕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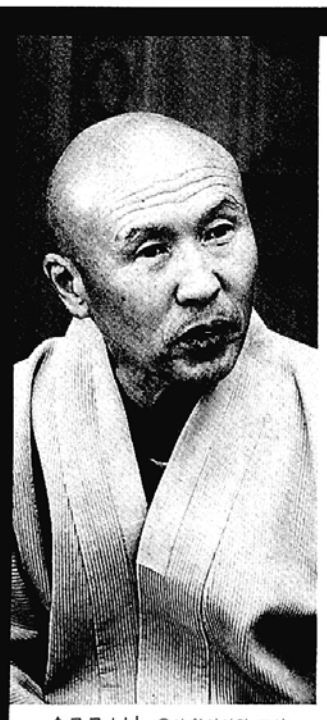
성호스님(광주 관음암 주지)은 9월 5일까지 광주 관음암에서 수재민돕기 달마도전시회를 갖고 있다. 30여년간 수행의 한 방편으로 달마를 그려온 성호스님이 수묵으로 그린 달마 50여점이 전시되며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모두 수재민돕기에 쓰여진다. (062)266-0108

찬불가합창경연대회
9월12일 전남무안사암련

전남 무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령)는 9월10일~13일 무안군 회산 연꽃방죽에서 열리는 제2회 연꽃대축제의 일환으로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제1회 찬불가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각 교구 및 말사 소속 합창단으로 8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0631)282-6813

훈할머니 인생역정 연극무대 오른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50여년만에 영구귀국한 훈할머니(73)의 파란만장한 삶이 연극으로 꾸며진다. 인천시연극협회는 10월7~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훈할머니의 인생역정을 재구성한 1막 8장의 '데이신따이(정신대)'를 공연한다. 이 작품에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훈할머니가 발견돼 지난해 8월 고향인 경북 경산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우룡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기도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절을 하는 횟수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을 잘 모아 염(念)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믿음의 주춧돌을 견고히 놓아, 일어나는 번뇌를 좇아가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종교론·진리론' 읽으면 불교의 진리 새삼 확인



불교를 종교학·종교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불교가 제시하는 진리와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의 학자 사이구사 미쓰요시(三枝充悳)가 엮은 〈종교론·진리론〉(불교시대사 刊)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불교를 고찰한 학술서. 일본에서 발간되는 '강좌 불교사상' 제5권 〈종교론·진리가치론〉(1982, 理想社, 동경)을 번역한 것으로 현대 일본의 불교학·종교학·철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했다. 역자는 조윤호씨(전남대 강사).

제1부 '종교론'에서는 니시타니 게이지(西谷啓治)를 포함한 5인 학자의 '공(空)과 즉(卽)' '연기사상' '정토사상과 종교철학' '선사상과 종교철학' '불교사상의 종교심리학적 고찰' 등 다섯 편의 논고를 통해 종교학·종교철학·종교심리학적 시각에서 불교의 종교성과 종교로서의 불교를 고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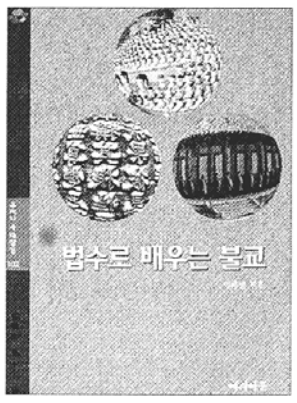
제2부 진리론에서는 인도·중국·일본 등에서 전개된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와 가치 문제를 논하고 그것들의 추구, 달성과정, 사상적 특징 등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도불교의 진리관' '중국불교의 진리·가치론' '본각사상' 등 세 편의 논고가 실려 있다.

한명우 기자

일념부터 팔만사천까지

이제열법사 '법수로 배우는 불교'

법수에 담긴 가르침
경전·일화등 인용
마음닦기 쉽게 풀이
도서출판 여시아문 펴내



일념(一念) 이공(二空) 삼법인(三法因) 사성제(四聖諦) 오온(五蘊) 육바라밀(六波羅密)…십우도(十牛圖)…12연기(緣起) 53선지식(善知識)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불교용어들이다. 여기에는 일, 이, 삼…팔, 구, 십 등 수의 개념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처럼 법의 가르침을 담은 수(數)를 법수(法數)라 한다. 즉 법수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하며, 수의 개념이 담긴 불교용어를 총괄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제열법사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교리·입문편의 두 번째 권인 〈법수로 배우는 불교〉는 법수(法數)의 의미와 법수가 들어있는 불교용어를 살핌으로써 불교를 쉽고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

절 입구에서 만나는 일주문이나 불이문, 부처님 탄생과 입멸과정을 여덟 단계로 그린 팔상도,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물(6법공양) 등 불교의 갖가지 구조물과 문양 그리고 의식 속에는 어떤 의미있는 숫자가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의미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딱딱한 설명조가 아닌 갖가지 일화와 경전말씀, 일상의 소재를 인용한 이야기 전개는 마치 단편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다. 교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기에 법수 용어 풀이가 독자들의 신심증장 및 수행과 어우러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즉 단순한 용어설명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법수를 통해 불법의 심오함과 삶의 지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신행 필독서'라 칭할 만 하다.

'일심(一心)'의 설명을 보면 이같은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을 중생들 각자가 지닌 하나의 마음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순간마다 삶을 통해 발생되는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일심 속으로 뛰어들어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수행불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관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중생들이 해탈에 들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러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책에 실린 법수는 일념에서부터 팔만 사천 법수까지 모두 43개로 이들 하나하나에 이같은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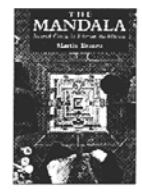
이제열 법사는 "정법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불교의 숫자는 법수로 보아야 하며 그 속에는 반드시 법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으로 법수를 정의한 후 "부처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간의미를 밝혔다.

〈법수로 배우는 불교〉는 97년 1월 15일(제110호)부터 98년 2월 25일(제163호)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돼 호평을 받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해외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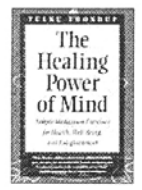
만다라



불교학자 마틴 브라우언(美)이 펴낸 〈만다라:티벳불교의 성스러운 원(The Mandala:Scared Circle in Tibetan Buddhism)〉에는 로버트 서먼교수 등 7명의 불교석학들이 철학 종교 정신분석학적 면에서 만다라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한 글이 실려있다. 서먼교수는 "만다라에는 불자들이 따라야 할 최상의 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총 1백여개의 만다라 사진도 부록으로 들어있다.

삼발라출판사 刊. (p.p 152, ISBN 1570623805)

마음의 치유력



"명상은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미국에 개설된 티벳하우스에서 명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손두프 툴쿠가 발간한 〈마음의 치유력(The Healing Power of Mind)〉에는 고래(古來) 경전에 나타난 48종류의 명상법이 소개되어 있다. 또 이 명상법에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중요한 역할이 잘 설명되어 있다. 손두프 툴쿠는 "48종류의 명상 수행법은 실천적 명상법이며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발라출판사 刊. (p.p208, ISBN 1570623309)

현대어역 대승기신론

대승불교의 종심사상을 이론과 실천의 양측면에서 적절히 요약, 설명하고 있는 〈현대어역 대승기신론〉이 나왔다. 저자는 이케다로신.

이 책은 천태교학의 입장에서 대승기신론의 내용을 조명했다. 또 불교의 보편성을 밝히고, 다른 가르침이나 불교에 대한 비난 등에 유혹되지 않고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는 이치 등을 현대인에게 쉽게 제시했다. 일본 다이죠(大藏)출판 刊.

'벽암록' '햄릿' 재해석

김용옥교수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통나무 刊)는 도올 김용옥 교수가 도올선원에서 〈벽암록〉에 대해 강론했던 내용을 묶은 책이다. 선불교의 공안집중 가장 탁월한 〈벽암록〉을 풀이하면서 달마 혜능 남전 조주 설봉 임제 등 기라성같은 선사들의 일대기와 진면목을 저자의 정교한 언어로 오늘에 되살려냈다.

이와 함께 〈햄릿〉의 주요부분을 원문과 함께 싣고 선(禪)과 관련해 재해석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 하다. 햄릿의 고뇌를 통해 본 셰익스피어는 당대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아나 연기, 자연적 순환론



인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추구한 것도 구원이 아닌 해탈임을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햄릿〉은 공안이고 셰익스피어도 하나의 공안이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셰익스피어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만한 신선한 충격이다.

서문에서는 한국불교와 불자들에게 보내는 충언도 잊지 않았다. '교육적 비젼의 결여'와 '사회적 비젼의 결여'에 대한 한국불교 스스로의 반성과, 21세기를 이끌어 갈 비젼을 제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종교의 실천'에 접근하는 詩들

김영무 시집 '산은 새소리마저…'



김영무 시인(서울대 영문과 교수)은 종교의 궁극적 목표를 '여래의 씨앗을 싹 틔우는 길'로 이끌고, 그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은 최근 나온 그의 시집 〈산은 새소리마저 쌓아두지 않는구나〉(창작과비평사 刊)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처음 조선땅 용인에 있는 천주교 묘지를 찾아보고/참으로 많이는 가슴이 아팠느니라.…얼마전 입적한 성철의 죽음을 보면서/너는 무슨 생각을 했더냐.…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생각조차 남기지 않고/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안되느니라.'

시 '조선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첫째 편지-금강경의 어법을 본따서'에서 그는 주교들의 무덤이 지나치게 큰 것을 민망해 하면서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불교의 무욕사상이 어떤가를 묻는다. 그리고 시 '…둘째 편지'와 '…셋째 편지'에서도 '석가세존이 들어올린 연꽃 한송이 그 깊은 속뜻' 등을 소재로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 등을 비판한다.

하지만 불경의 어법을 본따서, 사도 바울로의 서간문 형식으로 쓴 이들 시편들은 불교사상의 설교가 아닌 종교적 차별성에 대한 근본적 관용을 설파한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안타까운 현실을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각성하자고 촉구한다.

한명우 기자

혜당스님이 펴낸 영어발음책 '룰루랄라…'

혜당스님(해남 성불암주지)이 한국인을 위한 영어발음책 〈룰루랄라 영어발음〉(두산동아 刊)을 펴내 화제다.

이 책은 집이 가난해 중·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농사를 짓던 스님이 열여덟살에 처음 영어를 접하면서 겪었던 온갖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쉽고 편안하게 발음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화제의 책

번뇌속으로 세상속으로 법륜스님 지음

자신을 바로 볼 때 자기 삶의 주인



"빨갛게 달구어진 쇠공을 갖고 싶어 손을 옮겨가며 쥐어도 손은 뜨거워질 뿐이다." 법륜스님(월간 정토 발행인)은 자신을 올바로 돌아보고자 할 때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말한다.

〈번뇌 속으로 세상 속으로〉는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로 우리 삶의 괴로움과 갈등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게 하는 법문집. 일상에서 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삼았기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명쾌히 알 수 있다. 희망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우쳐 준다. 〈정토, 5천원〉

현대인과 선(禪) 시게오 외 지음

일상생활서의 수행 구체적 제시

일상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선을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한 선의 지침서. 선에 대한 개념 정의와 선의 역사도 설명했다. 자신이나 주변 친구의 체험을 통해 선의 참 정신을 이 시대 언어로 표현한 것이 특징. 선과 문화의 관계도 다뤄 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정신적 가치를 높여주고, 또 어떤 문화 양태로 발전했는지도 소개했다.

욕심, 노여움, 어리석음을 말끔히 쓸어낸 '빈 마음'에서 비롯되는 삶의 지혜를 제시한다. 양기봉씨가 옮겼다. 〈대원정사,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등쪽나라
2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	나 무 불	민 족 사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여시아문
5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6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이효걸외	예문서원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8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10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	정 태 혁	여시아문

구입문의:(02)737-0695

주머니 속 대장경 - 502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붓다의 교육관,
그리고 …
미래 교육의 열쇠



교육 현실의 병폐를 뼈저리게 통감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부처님의 음성
— '천상천하 유아독존'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의 칼'을 들이대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인간에 대한 무지막지한 횡포에 가깝다.

김중서 지음/ B6 182쪽 /값 4500원여시아문 펴냄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조사선은 21세기 주도할 핵심사상"



◇ '한국선 국제학술대회'에는 16명의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참석, '조사선'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무차선회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불성(佛性)의 실체에 대한 서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한국 조사선(祖師禪)의 전통 확립을 통해 조사선을 21세기 세계문명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사상으로 제시하기 위한 '한국선 국제학술대회'가 19~22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16명의 불교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분과 동북아시아의 조사선 전통, 제2분과 여러 불교 전통하에서 본 불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 제3분과 한국 선불교 전통에서 본 불교적 깨우침에 대한 이해, 제4분과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그 요지를 지상중계한다.〈편집자주〉



◇ '한국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외국 불교학자들이 학술대회 개회 법회에 참석, 서옹스님께 합장하고 있다.



◇랭카스터 교수



◇기무라 교수



◇김지견 박사



◇브룸크호스트교수



◇매크래 교수



◇샤프 교수



◇빌레펠트 교수



◇니시무라 교수



◇마쯔모토 교수



◇종림스님



◇성본스님



◇박성배 교수



◇심재룡 교수



◇김용정 교수



◇윌러 교수

1분과: 동북아시아 조사선 전통

한국 선불교는 중·일 비해 독창성 확보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서 한국 선(禪)의 역할과 의미-루이스 랭카스터(美 버클리대 교수)=한국의 선불교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사상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0세기에 발전한 동아시아 불교의 학문적 연구과정에서 연구성과가 미흡했던 관계로 그 특성을 내외에 밝히지 못했다. 한국 선불교가 재조명된다면 중국의 선(Ch'an)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발전에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줄 수 있다. 특히 불교가 억압당했던 조선시대에 불교 정신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명상' 때문이며, 그 원동력에 대한 주의깊은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선불교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논평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선불교가 21세기에 정신적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랭카스터=지역성과 국제성을 갖춤과 동시에 다양성을 지닌 이념으로 발전한다면 가능하다.

▪보리달마의 보원행과 선불교의 형성-기무라 기요다카(동경대 교수)=선의 실천적 견지에서 보리달마의 보원행(報怨行)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선불교 전통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다. 현대세계에서 효과적인 선불교를 다시 살리고자 한다면 보원행의 의미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5세기경 중국에 〈능가경〉이 전래된 이후, 선불교의 형성으로 보리달마가 1대조사로 여겨지고 있으나 조사선이 주창되기 시작하면서 보리달마가 수행 실천법의 하나로 '고뇽의 감내'를 강조한 보원행은 무시돼 왔다. 조사선의 계승자로서 자처하고 있는 선승(禪僧)들은 '보리달마가 주창한 보원행을 인식할 만한 열의가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 보원행이 대승불교의 불가결한 하나의 요소가 될 때 선불교는 대승불교의 한 학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평 윤원철(서울대 교수)=보리달마의 보원행이 잊혀지게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기무라=돈오사상이 대두되는 정신 풍토상 그렇게 된 것으로, 보원행의 '잊혀짐'은 좋고 나쁨을 떠나 당시 동아시아 선의 역사적 전개로 인식해야 한다.

▪돈황단경(敦煌壇經) 재고(再考)-김지견(前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돈황출토 불교자료의 하나로 일본 야부끼게이끼(矢吹慶輝·1879~1939)가 선보인 사진판 〈돈황단경〉을 수록한 〈명사여운〉이 1930년에 간행된 이후, 연구되고 있는 여러 전적들은 돈황본 〈육조단경〉을 텍스트로 삼지 않고 일본 흥성사본을 모본으로 교감·역주해 심각한 오류가 발생시키고 있다.

논평 종묵스님(서울 경국사)= 〈돈황단경〉의 성립설의 문제는 성립년대 등 여러 이해와 서로 맞물려있다. 어느쪽에서든지 확실한 발판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확실한 논증을 더해 연구자들이 공통의 인식에 이를 것이다.

2분과: 불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

불성내재론·연기법 이원론적 구조

▪인도불교에서의 자아(自我)와 선정(禪定)-요한네스 브롱크호스트(스위스 로잔느대 교수)=열반을 위한 전제조건인 움직이지 않는 자아(自我)에 대한 관념은 고전 힌두사상에서 등장했으나 붓다는 윤회하는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붓다는 자아에 대한 지식을 열반에 이르는데 결코 필수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나 그의 추종자들이 처음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여래장(如來藏)과 같은 형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논평 김호성(동국대 교수)=자아와 명상의 관계에만 너무 치우쳐 인도불교의 명상 체계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간과해내지 못했다. 비불교적 요소들이 불교명상안에 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교명상의 본질적 요소들은 여전히 무아사상 위에 자리하고 있다.

▪불성에 대한 논의: 중국불교의 선문답 시원-존 매크래(美 인디애나대 교수)=선문답의 기록과 간화선의 출현에 대한 8가지의 길을 제시했다. △스승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형태 △지사문의(指事問義)와 같이 질문만 있는 형태 △〈경덕전등록〉과 같이 질문과 답이 있는 형태 △깨달은 스승과 익명의 제자가 등장하여 대화하는 형태 △〈오방편(五方便)과 같이 실제의 스승과 제자가 등장하여 대화하는 형태 △일화를 들어 진의(眞義)를 전하는 형태 △〈절관론(絶觀論)〉과 같이 가상의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형태 △〈조당집〉과 같이 정형화된 스승과 제자의 대화형태 등이다.

논평 허일범(진각대)=〈조당집〉 이전의 교리나 사상적 변화를 감안, 선사상의 교리적 전개속에서 선문답의 시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조당집〉이 선문답을 기록한 최초의 문헌이라면 그 이전과 이후의 문답 형태에 나타난 양상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무정중생의 불성에 대하여-로버트 H 샤프(美 미시간대 교수)=조주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풀이나 나무에 사는 바로 그 정령(精靈)일 뿐이다. 무정의 불성을 주장하기 위해 쓰인 많은 전략들은 일반적으로 인도불교, 특히 유식과 여래장 교리에서 나온 것(모든 것이 마음이고, 그리고 마음이 불성이라면 불성이 결여된 것은 없다)이다.

논평 신규탁(연세대 교수)=무정중생(無情衆生)의 성불 논의가 갖는 의미와 그것이 중국사상사의 흐름속에서 갖는 의미를 평가해봐야 한다.

▪道元의 〈正法眼藏〉에 대한 고찰-칼 빌레펠트(美 스탠포드대 교수)='현존하는 산과 강들은 옛 부처님들의 도의 구현(道現成)'이라고 표현한 도원의〈정법안장〉에 나타난 사상은 우리에게 자연세계 그 자체가 법임을 가르치는 하나의 경전이다. 도원은 특히 종류의 사상을 인간적 영역으로 확대해 개인의 삶과 불법의 역사로 확장해 놓았다.

▪그의 제자 동령원자(東嶺圓慈)의 텍스트에서 검토된 백은선(白隱禪)의 수행원리-니시무라 에신(하나조노대 교수)=학생들이 깨달음이라는 경험에 도달할 때마다 진정한 선사(스승, 明師)를 방문하지 않으면 자기만족이라는 위험스런 동굴에 떨어질 것이라고 한 동령의 불법 전파는 제자들에게 선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전승한 것이다. 일본 임제선의 전통을 계승한 백은혜확 제자 동령은 그의 저서 〈종문무진등론(宗門無盡燈論)〉에서 자기 확신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놓았다.

▪禪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마츠모토 시로(고마자와대 교수)='관(觀)'은 불교전통의 초기부터 중요하게 쓰였지만 선불교는 '불관(不觀)'을 깨달음으로 보며 관을 거부했다. 이것은 하택신회의 '무념설(無念說)'로, 이후 일본의 도원에 이르기까지 사유를 거부해 온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사상은 일원론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 도신 홍인 신수 혜능 신회 마조 백장 황벽 임제에 이르기까지 '일체중생실유불성'이라 하여 주장된 '불성내재론'은 '자아' 이론과 같이 이원론적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

논평 김종명(동국대)=선불교의 수행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한국의 승단과 불교학계에서 활발히 전개돼 왔다. 불성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시도는 한국학계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의 본성론적 전제들에 대한 반성-종림스님(고려대장경 연구소장)=불변의 실체를 전제로 하는 본성론적 사고는 비불교적인 입장으로, 인간의 삶을 빗나가게 하는 출발점이 인간을 이끌어주고 규정지어 주는 어떤 실재로서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것다. 연기의 법 역시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속에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비롯된 불교의 신앙화 경향이 타락인지 발전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불교의 본질적인 면을 변화시켰을 뿐만아니라 불교의례에 다른 종교적인 신앙을 습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논평 홍성기(숭실대 교수)=불성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부정할 경우 진정한 불교와 비불교의 구별은 불가능해진다. 불교를 '연기'와 '무아'로 못박으려 해도 체험적 이해가 없는한 다양한 해석은 불가피하다.

3분과: 한국선불교 깨우침의 이해

조사선의 기본정신 자타불이 이웃사랑

▪조사선(祖師禪)의 수행체계-성본스님(동국대 교수)=조사선의 기본정신은 자각된 근원적인 평상심(平常心=本來心)으로, 일상생활을 일체의 경계에 매몰되거나 걸림없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활종교다. 오염없는 자각된 평상심으로 무애자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체득해야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와 즉심시불(卽心是佛)의 선생활을 할 수 있다. 조사선의 수행체계는 △좌선수행의 실천 △선문답을 통한 수행 △작무(作務)와 노동생활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것일뿐 그 기본적인 정신은 평상심(본래심)으로 일상 생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조사선의 수행체계는 곧 선의 생활의 전부인 참선이다. 조사선에서 말하는 선은 본래심, 즉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참선은 이러한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각적인 자신을 만들어가는 선의 생활이다. 불도(佛道)나 참선, 불법(佛法) 모두 자기 자신의 일인 것으로, 참선은 결국 스승에게 참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참문하는 수행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논평 김성철(중앙승가대 교수)='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것은 부처와 조사의 진정한 정신을 계승하라는 임제스님의 고언(苦言)이다. 이 시대에 진정한 조사선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과거 조사선의 정신은 계승하나 그 언어와 형식은 극복해야 한다.

▪참사람 되는 길-박성배(뉴욕 주립대 교수)=조사선이란 '깨친 스님들의 선'으로, '참사람'이란 조사선을 주장하는 스님들이 바라는 '참된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사람이 되는 길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이웃사랑을 △너와 나를 구분하는 보통사람들의 이웃 사랑 △너와나의 구별이 없는 성자들의 이웃사랑으로 분류한다면,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이웃사랑이야말로 '조사선의 사랑'이며 '참사람의 사랑'이 아닐수 없다. 깨친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참나'가 아닌 것처럼 조사선의 참사람 사상은 연기설과 일즉일체(一卽一體)를 지금 이 자리의 '나' 자신에게서 보자는 것이다.

논평 안옥선(전남대)=우리는 자본주의 가치 지향의 사회이면서 자유주의 가치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 자비 지향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다른 구체적 방법들이나 전략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제선과 한국 조사선 전통-심재룡(서울대 교수)=한국 선불교는 임제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종파로 확립되지 않았고, 또한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종파의 이름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임제록〉은 한국 선불교 전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의 전통이 확립될 때, 어떤 것은 선택되어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버려지면서 전통은 변화된다. 한국 선가(禪家)에서의 '참사람 결사운동'은 〈임제록〉에 있는 '무위진인(無爲眞人)'의 사상을 이어나가며 임제선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분과: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

선은 국가·종교 얽매이지 않는 보편성

▪현대 과학시대에 있어서의 선의 의미-김용정(동국대 명예교수)=선은 세계의 어느 국가·민족·종교·사상·문화적 형식에도 매이지 않는 일종의 절대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 선은 모든 국가의 정치·경제 등 사회생활의 보편적 기반이 될 수 있을 망정 그것들에 배치되지는 않는다. 현대 과학문명을 기계의 문명, 소유의 문명, 욕망확대의 문명, 투쟁문화라 한다면 선문화는 생명의 문화, 무소유의 문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문화, 화합의 문화라 할 수 있다. 현대과학은 불교와 배치되는 면과 일치되는 면과의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과학을 수용함에 있어 이 점을 잘 통찰해야 한다. 문제는 현대 과학문명시대의 사람들은 복잡 다난한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잃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선수행 뿐이다.

논평 최순택(원광대)=선은 과학적 탐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자기힘으로 깨달아 가는 자력내심의 수행법이다. 따라서 과학문명세계의 종말적 현상을 직접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인간존재의 진면목이며 우주의 본체이다.

▪동북아 불교의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스튜어트 맥팔레인(英 랭카스터대 교수)=환경에 대한 불교의 논점을 △비판불교적 관점 △참여불교적인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관점은 불교의 본질과 자연관의 형성,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책 등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나 관점의 기초는 불성이나 최초의 깨달음 등에 두고 있다.

참여불교의 관점은 자본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은 인간조건의 분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것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위기에 대응을 할 원동력까지 불교에서 구하고 있다. 비판불교 관점은 불교가 인간본성이나 인간조건에 대한 실체주의적인 가정들에 대해 도전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

▪본각사상과 무념:선에 대한 비판불교의 입장, 그에 대한 답변-찰스 뮬러(도요가쿠엔대 교수)=불교는 처음부터 연기라는 개념적인 틀을 통해 실체화된 자아를 논박해 왔으나 비판불교의 입장에선 불교학자들은 실체화된 자아-아트만에 대한 믿음에 바탕, 여래장 사상이나 본각사상의 개념이 본래의 불교와는 다르다는 확신에 차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선의 가르침 '무심(無心)'은 종교적 수련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중·일 각각의 선에 대해 비판이 가해져야 함에도 오직 본각사상과 선교리 전반에 대한 개념들이 독특한 일본선만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정리=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무차선회 이모저모

법회시작 폭우그쳐

○…무차선회 개최 하루 전인 17일 저녁부터 폭우가 내리자 무차선회조직위원회는 첫날 대웅전 앞 노천에서 열리는 고승법회를 우려해 안절부절. 그러나 아침까지도 쏟아지던 폭우가 법회 시작 무렵에 완전히 그치자 부처님 가피라고 다들 가슴을 쓸어내렸다. 특히 운문암에 주석하는 서옹스님은 밤새 불어난 계곡물로 백양사로 내려오는 길이 두절돼 급히(?) 달려온 소방차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법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역시 대선사" 찬탄

○…이번 무차선회의 주창자인 서옹스님은 8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법해 노익장을 과시. 주장자로 법상을 내리치며 법당이 떠나가도록 '할'을 하자 사부대중은 "역시 대 선사"라며 찬탄을 금치 못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로 존경을 표했다.

인터넷 지구촌 생중계

○…이번 무차선회는 첫날부터 행사진행의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해 화제가 됐다. (주)나우콤의 협조로 비백교학연구소의 '인드라넷



(http://indra.indranet.net)' 사이트를 통해 고승법회의 법문과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제공했다.〈사진〉 또 현장의 소리를 웨이브 파일(소리파일)로 가공, 안방에서도 무차선회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했다.

김대중대통령 축전 보내

○…5일간 진행된 무차선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온 것을 비롯 교계 안팎의 유명인사와 30여명의 신문·방송사의 취재진이 몰려 무차대회에 쏠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8일 오후 백양사에 도착한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1배를 올린 뒤 서옹스님을 친견하고 백양관광호텔에서 행사 관계자 및 참석자들에게 저녁 만찬을 베풀었다.

자원봉사자 활약 돋보여

○…이번 무차선회에는 자원봉사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학생 주부 등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렸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천주교 신자 2명과 기독교신자 1명도 동참해 화제가 되기도. 한 타종교 자원봉사자는 "불교에서 여는 무차선회에 대한 궁금함을 해결하고자 참석했다"며 "른스님들의 법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불교학자 7백명 참석

○…나흘간 열린 '한국선 국제학술대회'에는 '조사선의 전통확립과 재조명'이라는 홍미로운 주제탓인지 국내·외 7백여명의 불교학자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티벳 승려 3명과 수녀 2명, 원불교 교무 3명이 행사장 바깥에 마련된 멀티비젼을 통해 논문발표과 논평을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한형조

무문관 답방

62

오조의 외나무다리

* 오조가 말했다.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이나 침묵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자, 말해보라,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나 혜개가 말한다. "만약 여기서 절실하게 응대할 수 있다면 정말 유쾌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모름지기 모든 곳에 주의를 기울이라."

* 송하여 가로되, 길에서 도에 이른 사람을 만나면 말이나 침묵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주먹으로 내질러, 곧바로 나를 알아보게 해야 한다.

路逢達道:

五祖曰, 路逢達道人, 不將語默對. 且道, 將甚??對, 無門曰, 若向者裏對得親切, 不妨痛快. 其或未然, 也須一切處著眼. 頌曰, 路逢達道人, 不將語默對. 糊 劈面拳, 直下會便會.

이번 화두 역시 오조(五祖, ?~1104)의 것이다. 천녀유혼 가운데 누가 진짜냐고 물어 학인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그 사람.

참, 잊었다. 지금 말하는 오조는 일찍이 6조 혜능에게 진리의 등불을 전해 선의 황금시대를 기약했던 5조 홍인(弘忍)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참람하게도 오조란 이름을 달고 있는가.

혜능과 더불어 선맥은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홍인이 살던 황매산은 을 시로 읊었다. "산등성이에 놀리는 밭 하나, 팔러 왔다가 늘 내가 사 간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백운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 "요새 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오지. 다들 똑똑해, 나름대로 깨달은 바도 있고, 화두를 물어보아도 척척 대답하고 비평과 감회까지 읊어대는데… 그런데 말이야. 아직 일이 남았어." 이 말에 법연이 흔들렸다. 갑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자신이 없어진 것이다. 침식을 잊고 다시 문제를 붙들고 분투하던 어느날, 홀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느꼈고 깊은 법열에 젖었다. 곁에서 보던 백운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법연은 나중에 이때를 가리켜 "전신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 이후는 맑은 바람을 얻은 듯했다"고 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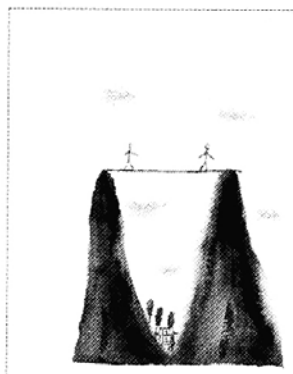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그의 제자에 불과원오(佛果圓悟)가 있다. 이 인물을 기억하시는지. 선의 최대 기서인 〈벽암록〉의 틀을 잡은 사람이다. 그로부터 5세가 지나 〈무문관〉의 저자 무문혜개가 등장한다.

화두의 맥락과 구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지금의 화두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서 오늘은 문자 속 몇군데를 짚어볼까 한다. 우선 達道人이란 글자 그대로 "도에 닿아 있는 사람", 즉 "진리의 비밀을 체득한 사람"이란 뜻이겠다. 將은 미래와 가능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로 하려 한다"의 의미를 품고 있다. 且道에서의 道는 길이나 진리가 아니라 "말한다"는 동사로 쓰였다. 여기서는 명령형이다. 若向者裏對得親切에서 者裏는 그 당시의 속어이다.

이 말이 현대 중국어의 這裏로 이어졌다. "여기, 이것"이라는 뜻이다. 得은 對라는 본동사를 지원하는 보조어로 완결적 뉘앙스를 갖고 있다. 우리말의 "-해 버리다" 정도에 해당할까. 의미가 영 달라진 것은 親切이다. 지금은 "친절하다"로, 영어의 kind나 friendly의 뜻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親이란 "몸에 다가드는", "실지경험에 입각한"의 뜻이다. "몸소"를 뜻하는 "친(親)히"에 이 뜻이 살아 있다. 切은 말 그대로 "절박한, 간절한"의 뜻이니 두 글자는 서로 어울려 "절실하다"는 뜻을 갖는다. 不妨은 본시 우리말의 무방(無妨)처럼 "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적극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해도 괜찮은"의 단계를 넘어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가 되는 것이다. 也도 전형적으로 구어적 표현. 조건절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여래장이란게 무엇입니까"

도에 이른 사람 만나면 나를 알아보게 해야

그 연원지로서의 명성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기려 이 산을 오조산이라 불렀다. 오조가 거하던 성소란 뜻이 담겨 있다. 그로부터 3~4백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말 이후 쇠퇴해진 선의 전통은 임제 계열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풍혈과 수산, 분양과 석상 등의 쟁쟁을 거쳐 양기가 종풍을 진작시켰고, 그 여적(餘滴)으로 이윽고 법연(法然)이라는 한 선장이 나타났다. 그는 마침 홍인의 발자취가 서린 오조산에서 법을 폈고, 그 인연으로 오조라는 이름을 얻었다.

오조법연(五祖法然)은 지금의 사천성 북부인 면주(綿州)에서 태어났다. 35세에 집을 떠나 삭발하고 계를 받았다. 동기는 알 수 없다. 생사의 일대사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처음 유식과 중관을 배우다가 의문이 풀리지 않아 선의 문을 두들겼다. 부산(浮山法遠)이라는 노(老) 선지식이 젊은 백운(白雲守端)을 추천했다. "내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임제의 삼돈방(三頓棒)을 읊은 송을 보건대 커다란 그릇임에 틀림없다." 스승을 떠나 백운을 만난 그는, 사람마다 갖고 있다는 여의주에 대해 물어보았다. "모두가 여래를 갖추고 있다는데 그 여래장이란게 무엇입니까." 백운은 소리를 질러 꾸짖었고, 그 힐난에 법연은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 기쁨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라"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2

정념①

올바른 마음집중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면 훌륭한 결실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집중은 모든 갈망과 혐오와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어느 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팔정도의 일곱번째 수행은 '바른 마음집중', 즉 정념(正念)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매 순간 호흡을 자각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호흡에 대한 의식을 훈련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식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있다. 주의를 호흡에 고정시키겠다고 아무리 확고하게 마음을 먹어도 의식은 어느새 몰래 빠져나가 버린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되고 비틀거리는 것과같다.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면 현 순간에 대한 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가능한 한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러한 자각을 잘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집중이다. 호흡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 속에서는 우리의 잠재된 힘이 있으며 관대함이 있다. 매 호흡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느껴보라. 내면에서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그 순간의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는 산소, 수소, 질소 등 수많은 물질이 있는 기체의 바다이다. 이 기체들은 우리의 폐로 들어와 일부는 우리 몸의 작은 기낭과 기포(氣胞)로 또 다른 일부는 폐에서 산소와 탄소 산화물로 변화해 생체 리듬을 유지해 준다. 땅에 발을 붙이고 공기의 대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물 속의 작은 고기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대부분은 호흡을 자각하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은 우리의 육체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호흡은 우리의 거울 거칠고 무거우면 부정적 규칙적이면 평화상태"

어떤 산모가 아이를 분만했는데, 그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산모의 분만을 도왔던 의사는 급히 영아용 인공호흡 장비를 가져와 아이의 입과 코에 연결했다. 분만실 창 밖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산모의 가족들도 아이의 가슴과 배를 유심히 살피며 아이의 생사(生死)를 가늠했다. 이때 산모의 가족들은, 비록 자신들의 호흡은 아니었지만, 호흡을 보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것은 주목하고 보는 것이다.

호흡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위험에 처했을 때의 호흡을 살핀 적이 있는가. 그때의 호흡은 몹시 거칠지 않았는가. 또 우리는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느낄 수 있는가? 무서운 광경과 마주친 사람들은 휭경막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계속 가슴만을 두근거릴 뿐이다. 이같은 변화는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생긴다. 그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라.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즐거운 일이 생길 때, 바쁜 업무 시간에 교통이 혼잡한 곳을 지날 때, 우리의 호흡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몸을 곧게 세워 또렷하게 마음을 집중하고 들어오는 숨에 마음을 집중하고 나가는 숨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명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숨을 길게(짧게) 들이쉴 때는 숨을 길게(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길게(짧게) 내쉴 때는 숨을 길게(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려야 한다. 마음과 몸의 상태를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잔차 스님은 "욕심을 버림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마시고(내쉬고), 멸(滅)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마시고(내쉬고), 벗어남을 관찰하면서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호흡을 보며 자신을 수련할 때, 그때 세상의 욕망과 슬픔을 현명하게 보고 평등심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호흡에 대한 자각을 발달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호흡을 자각함으로써 끊임없는 욕망과 미움과 무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화롭고 차분하면 호흡이 규칙적이고 부드럽다. 그러나 마음에 분노 미움 공포 욕망 등 부정적인 것이 떠오르면 호흡은 보다 거칠고 무겁고 빨라진다. 그러므로 호흡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리고 그것을 조절하도록 도와준다.

번역=오증욱 기자 (gobaoou@budc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1

불교와 수학

66

세계수학과 불교

김 용 운



개화 이후 한국인이 받아들인 문화(수학)는 서양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세계의 수학, 크게는 문화가 동서를 넘나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유럽에서 체계화된 내용이며 도입된 경로도 여러 가지이다. 명말청초(明末淸初) 이래 서양 가톨릭 신부에 의해 중국에 소개된 것을 조선왕조시대의 사신들이 가져온 것과 직접 서양 선교사가 소개한 것, 또 명치유신 이후 서양인 교사에 의해 일본에 소개된 것 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럽인이 만들었다는 오해가 생겼다. 순박한 한국인은 신식 문화를 '양식'이라 부르며 특히 수학은 서양수학이라고 믿었고 무의식중에 서양 콤플렉스에 빠져들었다.

수학에 관한 처음 기록은 약 5000년전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접어들었을 때의 것이다. 그곳은 유럽보다는 고대 중국의 황하와 양자강 유역,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바빌로니아에서 진흙판에 쐐기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남아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60진법은 중국의 갑자(甲子), 올해(乙亥)의 60간지와 같은 사상에서 나왔으며 오늘도 시간의 단위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집트에는 분수와 기하학의 지식이 실용화되어 있었다. 그 흐름을 이어받은 희랍에서 논증적 기하학을 성립시킨 것이다. 희랍 수학은 실용중심으로 구성된 이집트, 바빌로니아의 수학에서 벗어나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배경에 깔고 철학적으로 구성되었다. 그 전형이 유클레이데스의 '원론'이며 그 밖에 아르키메데스의 수학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있다.

서양수학 뿌리는 동양 대수학 · 카오스 이론 불교사상에서 비롯

그러나 희랍문명의 계승자인 로마는 그처럼 화려했던 수학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희랍수학은 불교, 이슬람권에서 발굴, 보존되었다. 유럽중심의 문명사는 이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 특히 인도수학의 최대의 업적은 불교의 공(空)사상에서 나온 '0의 발견'이다. 0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당한 수로서 연산구조에 편입시킴으로써 십진법의 자리잡기 기수법으로 이어졌다. 이 결과 수의 체계는 질서정연해졌고 0, 1, 2, …, 9의 10개의 기호만으로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희랍수학이 위대하다 해도 0이 없었음으로 수론(數論)이나 대수학(代數學)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7세기경 세계 수학의 중심은 인도에 있었다. 인도수학의 특성은 불교사상 등과 혼존하면서 문학적 수법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특히 오늘날의 수학의 기초 부분을 명확한 형태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 무렵 당나라에서 삼장법사(三藏法師)와 같은 인도형 구법(求法)스님들이 나왔고 여러 불전과 함께 수학지식이 당을 통해 신라에 들어왔다. 동양수학의 핵심적인 〈구장산술(九章算術)〉도 신라 산학자의 기본 서적이 된 것이다.

한편 인도수학은 아라비아 지역에 전해진다. 지금 십진기수법은 그 소개자의 이름을 따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데 큰 잘못이며 정확하게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야할 것이다. 대수학을 알제부라(Algebra)라는 것도 아라비아어가 어원이기 때문이다. 이 인도수학은 아랍인의 손을 거쳐 8세기경에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인도식 숫자가 유럽에 정착하는 데는 수백년이 걸린다. 심지어 로마법왕이 그 사용을 금지할 정도였다. 여러차례의 십자군 원정으로 이탈리아의 상업도시는 번영하고 0을 포함한 인도식 기수법을 완전히 소화하게 된 것이 13세기이며, 이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막이 오른다.

그후 유럽은 수학을 중심으로 여러 문화를 발전시킨다. 유럽은 대항해와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수학의 중심이 되고, 그것은 개화기의 한국에도 전달한 것이다. 이상이 간추린 세계수학사라 한다면 이것과 평행해서 세계종교사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서양수학(과학)으로 기독교가 문명사의 중심으로 과장되게 해설되는데 실지로 그 발전의 뿌리를 찾을 때는 오히려 불교문화의 역할이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수학인 카오스 이론이 놀라울 만큼 불교사상과 공명하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 · 연 · 건 · 강 · 식 · 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괴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 · 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 · 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 · 둘째 부(富:부와 귀) · 셋째 강녕(■:편안함) · 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 ·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시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 · 소화불량 · 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인 신선(神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이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회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나도 정선 스쳐가는 한줌 바람일뿐"

산문밖의 禪 정선아라리 명창 최봉출 翁

평생 부른 아라리 1천2백여 수
가락마다 민초들의 애환 담겨
들판의 일꾼들 신명 돋우고
고통받는 이들엔 위로의 소리

93년 문 연 '정선아리랑학교'
매년 전국서 2백여명 동참

삼십육년간 피지 못하던 무궁화 꽃은
을유년 팔월 십오일에 만발하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라리의 첫번째 기능보유자인 최봉출 옹(80)은 다시 광복절을 맞으며 아라리 가락을 불러본다. 해방되던 해에 자신이 지은 가락이다. 일제로부터 29번이나 징용 영장을 받았지만 번번히 산으로 들로 피신을 다니며 끝내 응하지 않았던 청년기의 고통이 해방을 맞아 한 소절의 아라리 가락으로 터져 나왔던 것이다.

정선 아라리.

정선 사람들은 누구나 한 두 가락씩 음을 줄 알뿐 아니라 그 가락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는 노래다.

5백년을 넘는 세월동안 정선 사람들의 숨결로 이어져 온 정선 아라리 가락을 평생토록 불러 온 최옹은 "나도 정선을 스쳐 가는 한 줌의 바람일 뿐"이라는 의미 심장한 말을 먼저 꺼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면 그 사람이 대를 이어가며 부르는 노래 역시 자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는 생명을 갖는 것이며 절대적인 완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최옹은 정선 아라리를 사람과 자연의 노래라고 강조한다.

최옹은 일곱살에 정명록 명창의 숲하로 양자를 들어 아라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정명록 명창은 고명덕, 김천유, 박순태 명창과 더불어 정선 아라리의 대표적인 소리꾼이다. 아라리는 민초들의 노래여서 굳이 명창의 족보를 따지 않았지만 초선 말기부터 이름난 명창들은 간략한 이력을 남겼다. 따지자면 최옹은 근현대 정선 아라리의 명창 순서에서 다섯번째로 꼽히고 생존 명창으로는 최고령인 셈이다.

일곱살부터 시작한 최옹의 아라리 실력은 1961년 정선군이 주최한 민요경창대회에서 1등으로 뽑히면서 그 진가를 더 넓혔다. 70년에는 강원도로부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선정돼 요즘은 매달 50만원씩의 지원금도 받고 있다.

최옹은 평생 아라리만 불렀다. 특별한 생업을 가질 수도 없는 길이었다. 들판에서 큰 일을 할때 최옹의 아라리 가락은 일꾼들의 신명을 돋구었고 이름 있는 모임이나 잔치 관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들는 힘이었다.

정선 사람들은 혼자 있을때나 모여 있을때나 아라리를 즐긴다. 서글픈 심정에도 아라리가 였했고 흥겨운 마당에도 아라리의 화창이 빠질 수 없는 정선이기에 최옹의 삶은 1천2백여수의 아라리 가락 그 자체다.

"적적할 때 혼자 부르건 여럿이 흥을 잡고 부르건 아라리는 사람의 마음을 밖으로 뽑아 놓습니다. 마음 속의 기쁨이나 고통을 밖으로 꺼내 버린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로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면 어찌됩니까. 시원해요. 그 시원한 곳에서 사랑도 나오고 새로운 힘도 나오고 충절의 기개도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고단한 인생의 희한과 아름다운 산수 자연의 감탄도 다 한 가락의 아라리 끝에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아라리 가락 한대목 한대목마다 세상사는 이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최옹에게 있어 아라리는 세상사와 자연,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분출 시키는 생명이다. 마음을 비우는 구도행으로까지 상승되는 아라리의 힘은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년은 젊게 보이는 최옹의 외모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라리로 비워낸 마음이 아우라지 강물 같이 맑고 평온한데 몸이 늙겠는가.

최옹은 정선 아라리가 정선이라는 지방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발전되어 왔다는 특징을 인정하는 만큼이나 정선 아라리는 온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함주어 말했다. 민초들의 노래에는 민초의 삶에 깃든 애환이 있을 뿐 지역과 사상 같은 분별의 틈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옹은 93년부터 문을 연 '정선아리랑 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다. 매년 8월에 4일식 여는 아리랑 학교에는 전국에서 2백여명씩 몰려 온다. 최옹은 매주 수요일마다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라리를 강습하면서 "아라리의 본 고장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한다. 본 고장의 소리가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신념 때문이다.

최옹에게는 사무치는 염원이 있다.

"내가 해방의 기쁨을 한 소절의 아라리로 읊었듯이 분단의 철조망이 무너지는 감격을 아라리로 부르며 북녘땅을 밟아 보고 싶습니다."

글=임연태 · 사진=고영배 기자 (ytlim@buddhapia.com)



◇5백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채 구전되어 온 정선지방의 아라리는 민초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민요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정선아리랑의 최고령 기능보유자 최봉출옹이 1945년 해방의 기쁨을 가사로 얹어 부른 아리랑 한 가락을 부르며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제1회 정선아리랑학교
정선아라리의 올곧은 삶을배우자
때:93.8.[illegible] 곳:정선동면 화동국민학교

◇1993년부터 개설된 정선아리랑 학교에는 매년 2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아라리를 배운다. 첫번째 아리랑학교에서 아라리를 전수받은 사람들과 최봉출옹(아래줄 가운데).

취재수첩 정선아라리란

5백년 전부터 구전 향토민요
愁心 · 산수 · 무상 등 주제 다양

정선 아라리의 역사는 5백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이 개국 된뒤 태조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고려의 대표적인 충신은 72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김위, 전오륜, 김충한, 고천우, 이수생, 신안, 변귀수 등 일곱 충신은 벼슬을 버리고 개성에서 정선 남면 낙동리로 들어와 산나물을 뜯어 먹으며 죽을때까지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켰다. 그들이 살던 동네가 지금의 정선군 남면 거칠현동(居七賢洞)이다.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장마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십리 아니라며는 해당화는 왜 피며
모춘삼월이 아니라며는 두견새는 왜 울어"

정선 아라리 채록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가사는 일곱충신들이 나라와 자신의 처지를 절규하며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아리리의 발상지를 거칠현 동으로 여기고 있다.

정선 아라리는 현재까지 1천2백여수가 채록됐다. 수심(愁心), 산수(山水), 애정, 처세, 무상 등 주제가 다양하다. 가사의 내용에 따라 빠른 음절로 부르기도 하고 느리게 부르기도 하며 엮음아리리란 독특한 형태도 있다. 엮음아리리란 본래의 아라리 보다 길게 가사를 얹어 처음에는 빠른 음절로 엮어 내다가 나중에 본래의 아라리 형식으로 돌아 오는 창법이다.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영동 여성입상

장식흔적 · 광배 화려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충북 영동시 신안리 반현부락에 있는 미륵석불입상은 특이한 여성보살이다.

신안리 도로변에 인접한 민가 근처 약 3평의 노천 보호각에 안치돼 있는 여성보살은 높이가 2m18cm, 폭은 73cm, 머리의 높이가 60cm, 광경은 71cm이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으며 광배가 있다. 얼굴빛 두광배는 색칠을 하는등 각종 무늬가 화려하고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석불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가사는 두껍게 처리한 통견양식을 갖추고 있다. 여성보살은 장식물의 흔적이 보이는데 목걸이를 걸치고 가슴을 U자형으로 깊이 드러냈다. 오른손은 아래로 내렸는데 그 길이가 1m7cm에 이른다. 왼손은 시무외인을 하고 있다.

여성보살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목부위에 약간 보수한 자국이 남아있고 하체의 일부가 무릎까지 묻혀있어 균형미가 떨어진다.

석불문화연구회 유영열회원은 "화려한 장식과 색깔로 보아 여성보살이다"며 "불상의 미적감각과 조각기법 형태등이 매끄럽지 않고 인위적인 것으로 보아 지방문화가 발전했던 고려후반기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민심통일 위해 조성
고려후기 석불 추정

조성동기는 알 수 없으나 반현부락에서 주민들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3년에 한번씩 길일을 정하여 복덕을 기원하며 제를 올린다고 한다.

특히 매월 음력 14일 밤이면 미륵부처님이 화현하여 주위를 돌아다닌다는 전설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날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며 공양물을 차리고 기도한다고 한다.

원래는 남성입상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보살은 민심의통일을 위한 토호세력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정리=김원우 기자

정토사 석불은 조선시대 조성 약사여래불
고증: 정영호 박사
눈감고 살짝웃는 입술 '이채'



서울 공창동 정토사 석불(본지 181호 24면 참조)은 상호가 아주 좋다. 손에 보병을 들고 있고 삼도가 없어 약사여래불이 확실하다. 원래 여래불은 장식이 없는데 염주목걸이를 하고 있고 좌상의 경우 약함을 들고 있는 것이 통례인데도 약병을 들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나발에 육계가 유난히 뾰족하게 솟아 있고 눈을 감고 입술을 가늘게 처리하여 살짝 웃음 짓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정토사 약사여래불은 옷주름이 형식화되고 조각이 세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조성된 불상이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세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禪은 인간 구할 정신문화"

무차선회 세 큰스님 법어

18일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에는 5천여 사부대중이 모여 ...다. 세 스님의 법문과 수좌들과...



"의심이 클수록 깨달음..

서옹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악 력
- 1912년 충남 논산 生
- 1932년 백양사서 만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62년 동국대학교 선원장
- 1964년 무문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선원 조실 역임
- 1974년 조계종 제5대 종정
- 現 장성 백양사 운문암에 주석
- 저서 〈선과 현대문명〉 〈절대현재의 참사람〉 〈절대 참사랑〉 등

"의식 · 무의식 초월 망심을 다스리면 단박에 평화찾는다"

인류는 지금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과학문명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서양 학자들은 동양 문화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 문화를 찾고 있습니다. 선(禪)은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을 근원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정신 문화입니다. 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선의 도(道)는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은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내 것' '네 것' 등 분별심에 기초한 문명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때부터 위대한 성인들이 나와 인류 구제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세계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 문명의 총아인 과학이 자연에 대해 품고있는 주요 생각은 '자연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류의 삶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편리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 반디불이와 다슬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학 문명이 수세기 동안 지속돼 낳은 결과 중 극히 일부분일 뿐 입니다. 분별심에서 비롯된 과학과 자연의 대립적 관계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경각으로 치닫고 결국 대자연은 파괴될 것입니다. 대립과 투쟁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았던 20세기 초에 결국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은 둘이 아닙니다. 선은 원융무애한 자비심을 키워주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 줍니다. 선의 입장에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등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단박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선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망심(忘心)을 다스려주기 때문입니다.

망심 중에서 분별심은 현 위기 상황의 주범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대립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보다 한몫 거해 분별된 것을 선과 악의 대립구조로 다시 나눕니다.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 등의 분별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악이 득세해 선을 선이라 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선이 선이 아니고 참이 참이 아니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아니면 절대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별 의식이 낳은 망심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생사(生死)와 죄악(罪惡)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선(禪)입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이 끊어진 곳에 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서구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것을 잠재의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에서도 잠재의식에서도 망심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껏 의식의 세계는 주관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면할 수도 없고 죄악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식 세계가 있는 동시에 무의식(아뢰야식)의 세계도 있습니다.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는 동일한 차원이므로 둘 다 주관과 죄악과 생사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관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죄악과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초월하여 주관과 죄악과 생사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초월한 경지에서 어떤 걸림도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경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선방에서는 "의식도 투과하고 무의식도 투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으론 의식을 투과할 수 있겠지만 무의식을 투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길은 화두를 드는 방법 밖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생사 문제의 해결은 지해(知解)로도 성취하지 못하며 의식을 무조건 끊는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사선의 공안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르며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천7백여개의 공안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한히 많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화두 공안이든지 그 중에서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공안은 일시에 해결됩니다.

공안을 제대로 참구하려면 먼저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생사를 해결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안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조주스님은 "뜰 앞의 잣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선종의 시조인 달마스님이 서쪽 인도에서 중국에 오신 뜻을 묻는 것은 조사선에 대해서 돌었다고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어째서 '뜰 앞의 잣나무'라 했는지 의심을 하되, 분별심으로 따져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뜰 앞의 잣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없이 '뜰 앞의 잣나무'와 한 덩어리가 되어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의심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의심이 통일(統一)하게 됩니다. 더욱 더 용맹정진하면 의식이 아주 딱 끊어져서 돌덩어리 쇳덩어리 같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경지에 서면 지금까지 화두에 쏠렸던 의심은 더욱 성성(惺惺)해 질 것입니다. 이것이 두번째 과정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의식 뿐만 아니라 무의식 조차 초월하게 됩니다. 이 경지에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현성(現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계에는 생사도 없고 죄악도 없고 공간도 시간도 없이 무한히 자유자재합니다. 모든 것이 상호 원융무애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무한히 초월하고 현성하면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활발발 자유자재 하더라도 실제로는 앞뒤가 있어서 따로 따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노(愚老)가 말하는 조사선의 궁극적인 경지입니다.

법거량 수좌: "부처님도 스님도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고불총림 임제스님만이 참석하셨습니다. 임제스님보다는 스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서옹스님: "내 모습이어도 30방이요, 내 모습을 투과(透過)해도 30방이다."

진제스님
동화사 조실

"눈밝은 선지식만나 바른 참구법 배워 자나깨나 화두들라"

부처님과 조사의 해탈의 도를 알고자 할진대
만가지 법이 비록 옴이나 서로 이르지 못한지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이 다 끊어짐이나
소리와 빛깔의 무더기 속에 넓고 넓은 땅이로다.
온 세상의 禪을 다 참구하는 자여!
항상 활구선을 참구할 지어다.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후 하신 말씀이 "31일동안 사유하고 사유해도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고만고 끝에 도를 깨달은 후 왜 열반에 드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신 것입니까, 부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올바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문수보살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법은 비록 그러하나 방편으로써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니 부처님께서 "너의 말에 일리가 있구나!"하시고 49년간 인연과 그릇을 따라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내가 49년동안 인연과 그릇에 따라 팔만사천 법문을 설했지만 실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면 그 의미의 머리와 꼬리를 멋있게 장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서양인들은 '마음 다스리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불교의 심인법이 되었습니다. 이같은 한국불교의 심인법은 혜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혜능스님이 어느날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받치고 밝기로는 일월보다 밝고 검기는 옻칠보다도 검다. 이름도 모양도 없되 일상 동용(動用) 중에 가고 오고 말하는 가운데 쓰고 있으면서도 거두어 얻지 못하니 이 무엇인고?"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한 납자가 일어서서 답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불성입니다"라고 했지요. 이에 혜능스님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하고 호통을 쳤다.

그후 7년만에 회양스님이 찾아와서 답하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하니 혜능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닦아 증득함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닦아 증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오염될 순 없습니다"

혜능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이 오염되지 않음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이라. 네가 벌써 이러하고 나 또한 이러하니라"라며 회양스님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혜능스님이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를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부처님 정안(正眼)의 법을 면밀히 이은 사들은 돈오돈수를 다 주장하고 있습니

우리가 출가한 본래의 뜻은 견성성불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견성성불을 위해서는 어떻게 정진해야 하느냐? 참선을 해야 합니다. 고래부터 많은 들이 활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니다.

"활구를 참구하여 분명히 크게 깨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 된다"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활구 참선이겠습니까? 일천(一千) 인의 말을 일시에 투과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스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연막 소독 살충기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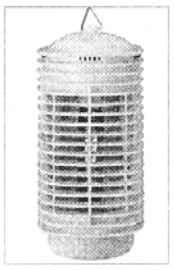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
(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78,000
※ 현 금 가 : ₩140,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해충퇴치기
〈안내표시등〉
₩28,000
※ 별도 판매 가능

⊙ 연막소독기 구입시
해충퇴치기
무료 사은품 증정!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법화경을 바로 알자!
독도는 우리 땅
법화경은 〈법화삼부경〉의 약칭입니다.

요 주 의

⊙ 법화경에는 <나무묘법 연화경>을 부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 법화경에는 <제목봉창>을 하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일본의 어떤 종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척하고 일본의 한 승려를 부처로 추앙하는데서 <남묘호렌게교>를 부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말로 <나무묘법연화경>입니다.

부처를 바로 알고 법화경을 바로 공부합시다.

한국승가대학원
(사) 한불종 · 법화경교단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 전화 : (053)952-8711,017-501-8711
▪ 서신 : (우)701-600대구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관음출판사

♠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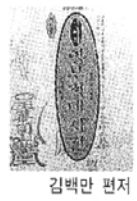
哲學博士 曺誠佑 지음
/ 값 15,000원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知彼知己는 百戰百勝」이란 말도 相對를 알아야만 勝者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相學이란 分野가 우리 生活과 얼마나 그 比重이 무거운가 하는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家庭에서는 實踐으로, 職場에서는 處世指針書로 젊은이 등에게는 社會生活의 必順 參考書로 銘記해 善用하여 探讀할만한 敎養書로 一讀을 勸誘하는 바입니다
- 周易通信大院長 梁哲庵



승월스님 著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책을 펼쳐 보십시요,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김백만 편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길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申 坪 지음
古典
풍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값18,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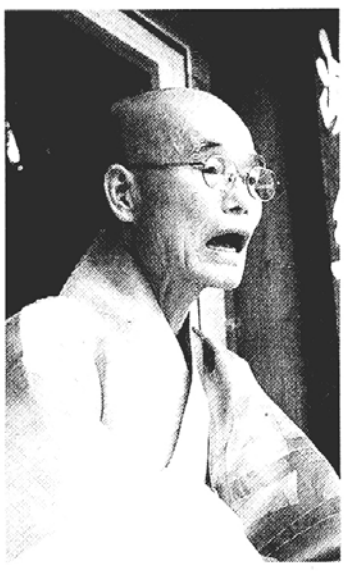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열린 무차선회 고승대법회
암·진제스님의 법어을 들었
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삿된 지식과 학문 버리고 마음의 눈으로 광명보자"

혜암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약 력
- 1920년 전남 장성 生
- 1946년 합천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47년 경북 봉암사에서 청담, 향곡, 성철스님 등과 결제
- 1949년 한암, 고봉, 동산, 금오, 경봉스님등 선지식을 참방(參訪).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선원에서 일중일식, 장좌불와 등 두타행
- 現 해인사 원당암에 주석

불법은 본래 부처님과 달마스님이 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남산에 구름 일어나면 북산에 비 내리고, 구름 흩어지면 청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곳에 모인 대중들에게 묻노니 한 마디 일러 보시오. "대체 만 길 되는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구해내겠는가?"

공의 경계 걱정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밝은 달을 바라보면 옛 길을 밟으리라.
푸른 구름과 들의 학은 짝을 지어 오가는데
흰 바위 푸른 솔은 온몸을 드러내네.

큰 도(道)에 이르는 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떠난 지식과 학문은 깨끗하고 순진한 인간의 본래 마음을 더렵혀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가 일쑤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도 깨끗한 눈에서는 장애가 되고 거울 위에 먼지가 쌓일 수록 마음의 눈은 더욱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을 가리는 삿된 지식과 학문을 미련없이 버리고 허공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 마음의 밝은 눈을 활짝 열어 무한의 광명을 뚜렷이 바로 봅시다. 이것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우리 자신은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본래 모습은 먼지에 덮인 구슬과 같습니다.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구슬의 본 성질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슬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닦아낸 구슬은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본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가 자기이기에 미물, 곤충, 유·무정물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인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기에 만약 자기 밖에서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으며 잘못된 법입니다.

현대는 물질만능에 휘말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다와 같고 천상천하에서 최상의 보물입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거품은 물질일 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중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21일 뒤 녹야원에서 아야교진여 등 5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하실 때 "나는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중도설은 모든 양변(兩邊)을 여읜데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중도와 변견(邊見)을 다 버리고 정등각(正等覺)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도는 부처님 당시에만 쓰던 것이 아니고, 고금을 막론하고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도를 알면 불법을 알고, 불법을 알면 조사선(祖師禪)을 알며 견성(見性)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견성성불이며 구경각입니다. 즉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견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중도를 정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견성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조사선은 도(道)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증득한 수행자라면 반드시 스승의 한 마디에 대해 분명히 두 마디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한 길이며 한번의 견성은 모든 것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돈오돈수니 점수니 하는 논쟁이 필요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들이 속세를 등지고 출가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견성성불을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까. 견성에 이르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화두 참구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일반적인 알음알이를 투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활구참선을 정진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우리가 일하고 장사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화두를 놓지않고 계속 의심하며 곱씹어야 합니다. 앉으나 서나, 기쁘나 슬프나 화두를 항상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낮과 밤을 잊어버리고 결국 우리 자신 또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화두 참구법이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삼독에 찌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부처님의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일등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간 속에서도 참선을 지속해야 합니다. 참선에는 간화선, 염불선, 묵조선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간화선이 으뜸입니다. 바로 화두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심 삼매가 다지나고 나면 아주 깊은 깨달음 즉 견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상승의 도(道)인 만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수행정진해야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공부를 안하고 지나가니
죄와 허물이 하늘에 넘치고
오늘도 닦지않고 이러하니 호랑이 밥이로다.
둘 셋은 묻지 않거니와 격 밖의 한 마디는 어떻게 하려는가.
동쪽에 해가 뜨니 낮과 같이 광명이 비치고
무차선회를 하니 비로불이 광명을 놓네.
주인공아, 예예 하는 것이 이뭣고,
백암산 꼭대기 뿌리없는 나무는 가을바람 아니라도 단풍이 아름답네.

법거량 수좌: "참다운 도와 실상관에 대해 일러주십시오"

혜암스님: "미혹과 깨달음을 쳐부수니 하늘과 땅이 밝아지도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참다운 도를 알 수 있어. 깨달음 그대로가 실상이며 삼라만상 그대로가 실상이야. 깨닫고, 못 깨닫고가 문제지."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본성은 영원하고 무한 하늘과 땅 무너져도 자기는 변함없어요"

◇서옹스님이 18일 백양사 대웅전 광장을 가득 매운 5천여 사부대중에게 "현대 사회의 위기는 분별심에서 비롯됐다"며 "원융무애한 자비심을 키우는 선(禪)만이 이 난국을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옹스님의 법문에 이어 혜암·진제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크다"

약 력
- 1934년 경남 남해 生
- 1954년 해인사에서 석우선사를 은사로 득도
- 1967년 향곡선사로부터 임제법통 인가
- 1976년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 1994년 이후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 現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원 주석
- 저서 〈석인대소〉 〈선백문백답〉 등

일천 성인의 말을 투과할 수 있도록 화두를 참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투과한 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기(機)와 용(用)을 가지런히 쓰는 수완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눈 코 귀 입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용맹정진 대신심을 가진다면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 조인들이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곳에 있는 대중들은 이제 '천명의 성인들의 말이 어떠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흑탄속에 거꾸러짐이로다"라고 대답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필경에 오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천번을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도 아는 사람이 없네./향(向)하는 아래의 글이 길으니, 내 말에 있어 부치리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법거량 수좌: "대웅전 뒤 쪽의 백합이 아름답습니다"

진제스님: "차나 한잔 들게나."

나의 수행일기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는 약 10년에 한번 꼴로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살아온 듯하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40대 후반에 겪은 고통이 아닐까 싶다. 특별히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음에도 수년동안 세상사에 대한 회의와 정신적 갈등을 겪으며 살았다. 요즘도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 내가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념에 빠질 때가 있다. 아마도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은 꼭 10년전이다. 당시 나는 모 신문사의 경제부장으로 재직중이었다. 나는 사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오직 일에만 열중했다. 그러나 일과를 끝낸 다음 돌이켜보면 내가 한 일 가운데 내 삶의 영원성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단 한가지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일쑤였다.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지 않으면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고뇌에 시달렸다.

"10년전 아내의 신행보고 발심 삶의 새로운 목적·방향 찾았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나에게 이번에는 뜻밖에 정치부장이란 직책이 주어졌다. 정치권의 행태를 보다 가까운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환멸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실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눈빛이 더욱 맑아지고 온화한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얼굴의 피부도 얼마전에 비해 더 투명해진 것이 분명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가능한 한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모습도 여러차례 보았다.

그러나 절에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의 피부색마저 바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이같은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같은 변화는 매일 아침 마음을 다해 백팔배를 올리면서 기도하고 일상생활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 데서 나온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마음가짐이 바뀜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다음 학기부터 불교대학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장애가 생겼다. 사전에 한마디 귀띔도 없이 특파원 발령이 난 것이다. 불혹의 나이 후반에 영원한 삶의 행로를 잡아보려는 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다. 회사내 일각에선 경제부장 정치부장에 이어 주미 특파원이라는 요직을 두루 거쳐가는 나의 신문기자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더이상 세속의 경력을 쌓는 것보다는 더 늙기 전에 새로운 삶의 방향, 목표 등을 정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우리 네 식구는 한마음이 되어 매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화엄성중님께 지성껏 기도를 올렸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진지했다.

외국생활 초기엔 여러 면에서 안내해 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불교신자라는 단 한가지 이유에서,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자는 요청을 거절했다 해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두 딸에게도 처음 경험하는 미국의 학교생활을 도와 줄 친구가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신심은 더욱 확고해졌고 모두가 짧은 기간 내에 잘 적응해 갔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을 부처님과 보살님, 화엄성중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네 식구는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액파 차단) 특별보시!

⊙목판·동판·인쇄 복사본보다 생필인 진품이 영기와 영험이 더 있습니다.

※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천수자 수강생모집. ▶▶ 통신도 가능 ◀◀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1998년도 불교지도자를 위한
불교의식 (범음·범 패)학인 모집

1 교수 및 교과내용
● 개강일시 : 98년 9월 19일(토) 오후 2시
● 교 수 : 정대은 학장스님 직강
● 교과내용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등)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예불, 헝선축원, 천수경, 불공(삼보통청, 지장청 및 각단불공) 시식 등 천도의식, 법회의식, 생일의식, 결혼의식, 장례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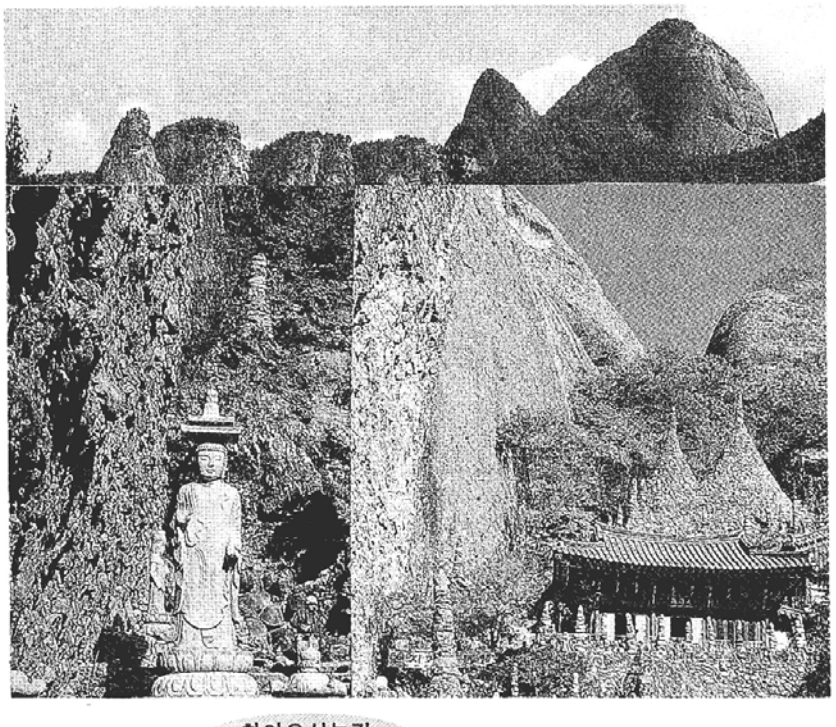
2 모집방법
● 모집인원 : 30명 ● 자 격 : 제한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원서교부 및 접수 : 98년 8월 22일(토)~9월 18일(금)
● 강의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30분

3 입학금 : 일십만원
※ 특 전
①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이며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고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전통 불교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② 포교사(국내, 국제) 자격 취득 가능
③ 동국대학교 대학원과정 입학 가능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FAX: 765-3169
해동불교 범음대학
해동불교 의식 교육원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98 사진영상회 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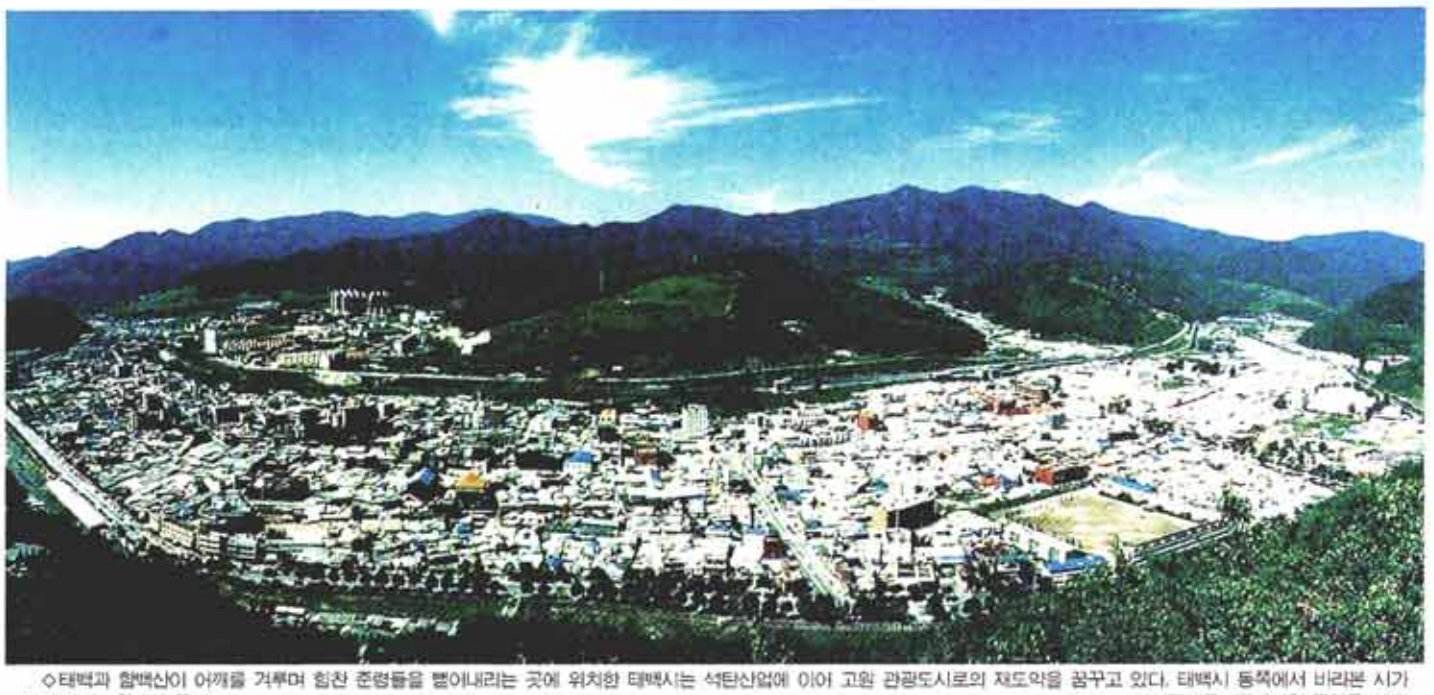
태백산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6←

백두대간을 소백산에서 거슬러 올라가 만나는 태백산(太白山 1567m)은 거대한 태백산맥의 종주이자 모산(母山)이다. 북으로 두타산, 오대산, 설악산,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은 함경남도 원산의 황룡산에서 비롯된다. 북쪽 인근에 6미터가 더 높은 함백산(1573m)과 어깨를 겨루고 있으며 서쪽의 장산, 남서쪽의 구문산, 동남쪽의 청옥산, 동쪽의 면화봉 등 1천미터가 넘는 준령들을 휘감고 있다. 〈삼국사기〉는 태백산을 토함산, 지리산, 계룡산, 부악(팔공산)과 더불어 신라의 오악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삼척 읍지인 〈삼척진주지〉 척주부(陟州賦)에는 "태백산 중에서 가장 높고 흰 산이 문수산이며 흰모래와 자갈이 눈 덮힌 듯 쌓여 있어 산이름을 태백산이라 부르게 됐다"고 전한다.



◇태백과 함백산이 어깨를 겨루며 힘찬 준령들을 뻗어내리는 곳에 위치한 태백시는 석탄산업에 이어 고원 관광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태백시 동쪽에서 바라본 시가지와 태백 · 함백산 줄기. 〈사진제공: 태백시청 문화공보실〉

한반도 적시는 큰 젖줄기 분출

멀고 아득한 태백산을 서쪽에서 바라보니
기암괴석이 구름 사이에 솟아있네.
사람들은 산마루 신령님의 영험이라 말하는데
분명코 천지의 조화로세.

조선시대의 문장가 설잠 김시습은 태백산을 바라보며(望太白山) 이렇게 읊었다. 기암괴석과 구름이 자아내는 신령스런 분위기, 그리고 낙동강과 한강, 오십천의 발원지를 품고 있어 반도를 적시는 큰 젖줄기를 분출하는 산이자 하늘과 인간을 잇는 영산(靈山)으로 받들어지는 태백산.

태백산에는 생각보다 사찰이 많지 않다. 신라의 대국통(大國統) 자장스님이 창건한 정암사가 가장 큰 절이다. 함백산 아래에 위치하지만 옛날에는 태백과 함백을 합쳐 태백산이라 했으므로 태백산 정암사로 불리고 있다. 봉화쪽에는 각화사가 조선조때 사고(史庫)의 수호사찰로 번창했으나 6·25전쟁으로 쇄락의 길을 걷다가 최근 대웅전과 선원이 중창됐다. 결제때가 되면 각화사에는 운수납자들이 지광이를 끌고 찾아 오고 인근에 자리한 암자에서는 결제와 해제를 가리지 않는 수좌들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정진의 끈을 다잡고 있다.

하늘과 인간 잇는 山

태백산 정상에 이르는 길에는 청원사와 유일사 망경사등이 있다. 그러나 전란에 의한 파손과 열악한 복구 여건으로 큰 가람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화재도 전하지 않는다.

당골에 위치한 청원사는 알 마당에 '용담(龍潭)'이라는 맑고 깊은 연못이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망경사는 천제단 바로 아래(10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내에 용정(龍井)이 있다. 청원사의 용담과 망경사의 용정,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등 이지역의 우물들에 하나같이 용자가 들어가는 것은 용과 관련된 전설때문이다. 그만큼 태백산은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신비한 곳으로 민간에 인식되어 왔음을 알게하는 대목이다.

태백산은 하늘과 인간을 잇는 으뜸가는 성소(聖所)로 꼽힌다. 정상의 천제단은 둘레 27m, 높이 3m, 폭8m의 원형 제단으로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지방 수령들과 백성들이 풍년과 국태민안을 빌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구한말에는 우국지사들과 독립군들도 쓰러져 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도 매년 개천절마다 천제를 지내고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성화 채화지이기도 하다. 1991년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됐다. 근처에 하단과 장군단등 작은 제단 2개가 더 있어 태백정상의 신성함을 말해준다.

이 밖에도 정상에 이르는 길에는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어 비운의 일생을 마감한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자 세운 단종비와 비각이 있을뿐 아니라 화방재 인근에는 단종대왕당까지 지어져 단종의 애통함을 위로하는 산으로서의 태백산이 갖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검은 노다지' 관광지로

오늘의 태백산은 근현대 한국인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진 사진첩과도 같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 정상의 천제단을 찾는가 하면, 석탄 산업의 흥성과 쇠락, 그리고 고원관광 도시로 새롭게 일어 날 채비를 갖추느라 분주한 곳이 태백산에 걸친 도시들의 초상이기 때문이다.

태백에서 석탄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은 문수봉 아래의 산골마을 금천이다. 1926년 당시 황지에서 면사무소 소사로 일하던 17세의 장혜룡이라는 청년이 먹물빼기 언덕 근처에서 검은 돌덩어리 하나를 줍는데서 태백의 석탄 산업은 시작됐다.

1930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은 1950년대 이후 한때 43개에 달하는 탄광이 태백산에 밀집하기도 했었다.

태백산은 석탄이라는 내장(內臟)으로 인간에게 산업개발과 난방의 원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는 '검은 노다지'로 한 밑천을 잡으려는 꿈을 주는 산이었다. 대체 에너지가 대량화 되어 석탄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태백산이 더 이상 검은 노다지의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 태백산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꿈의 현장이 되고 있다. 태백과 사북 고한 등 태백 준령 아래 도시들이 '개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흥성을 다시 꿈꾸게 된 것은 몇년전 이 지역을 대규모 고원 관광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부터 시작됐다.

풍년 · 국태민안 빌어

스키장과 콘도미니엄은 물론 카지노장까지 들어서는 대규모 위락 단지 개발로 태백산은 이제 갈살마저 인간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된 것이다.

말이 없는 태백산. 인간에게 내장과 갈살을 하염없이 내주면서도 골짝기마다 옥수를 흘려 보내고 계절따라 기묘한 풍광을 연출하는 산이 있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수없이 뚫은 경도 때문에 태백산의 속살이 조금씩 함몰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산의 고도가 낮아지고 지표가 변화된다는 보고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 사람들은 바위틈의 간격이 아주 조금씩 넓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없는 산이 인간의 탐욕을 경해 말없이 내리는 경고가 아니겠는가.

글=임연태 사진=고명배 기자
(ytlim@buddhapia.com)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태백산 입구 청원사의 깊고 맑은 용담.



◇태백산 정상의 천제단.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풍년과 국태민안을 비는 성스런 제단이다.

정암사 수마노탑 · 보궁 유명

청원사 용담 · 망경사 용정 등 龍전설 전해와
갱도 함몰로 고도변화 '인간 탐욕심' 경고

■자장스님 석혈 만항리 뒷산 바위틈 '유골안치' 구전

수마노탑(보물 제410호)으로 잘 알려진 정암사. 폐광과 폐사목들이 즐비한 고한 지역의 스산한 풍경이 끝나는 곳에 정갈한 정암사가 있다. 시절 인연을 따라 흥망하는 인간 삼의 현장이 끝나는 곳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보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귀한 법문이 아닐 수 없다.

정암사는 신라시대에 당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돌아와 대국통에 올랐던 자장스님이 창건했다. 당시 이름은 석남원(石南院)이었다. 스님은 당에서 문수보살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는데 이 석남원 자리가 문수보살을 재친견할 자리라 믿고 절을 지어 정진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자장스님은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넣고 찾아 온 남루한 노인을 만나지 않아 문수보살을 재친견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렇다면 정암사의 어느곳에서 자장스님이 열반했는가. 그 열반지로 꼽히는 곳이 지금의 정암사에서 조금 올라간 곳에 자리한 적조암이란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자장의 시신을 다비하여 그 유골을 바위굴에 안치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요즘사람들에게 그 바위굴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정암사에서 만항재를 오르는 중간쯤에 작은 마을하나가 있다. 만항 마을이다. 이 마을의 동북쪽에는 막 피어나려는 듯 봉긋한 봉우리가 하나 솟아 있는데 이 봉우리의 정상 아래에 자장스님의 유골이 모셔 졌었다고 전하는 바위가 있다. 자장 석혈(石穴)이란 바위다.

마을 사람들은 50여년 전까지만 해도 수마노탑과 같은 재질의 석함(石函)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장스님의 유골을 모신 함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취재팀이 마을 노인의 말을 듣고 찾아 간 바위는 그다지 크지도 않고 누군가 보호를 하는 흔적도 없는 그저 평범한 바위였다. 유골을 모셨을 것 같은 흔적은 40㎝ 정도의 틈새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바위에 얼핏 연꽃 문양 같아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고 무속인들이 만든 듯해 보이는 단이 두세 겹으로 쌓여져 있었다.

정녕 그곳이 자장 스님의 유골이 모셔져 있던 바위굴이라면 우리는 적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



◇자장스님



◇자장스님의 유골이 담긴 석함이 안치됐었다는 만항리 뒷산의 바위.

용성스님 어록



착한 것도
몽환(夢幻)이요
악한 것도
몽환이니
삼계대몽 어서 깨어
나의 본성 통달하면
생사윤회(生死輪廻) 본래 없다.

전법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룡사(0561-748-8815)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믿음 있어야 물러서지 않고 놓을수 있어

나는 업이 많다 고가 많다 나는 죄가 있다 생각을 말고 모든 것을 용광로에 다 놓으십시오

한 마음에 눈빛이 서로를 왕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참 기쁩니다.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 요즘 뿐만은 아니겠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하던데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기를, 모든 건 내 내면 용광로에 맡겨놔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다가 현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서 나온 것을 제자리에다 돌려 놓으면 바로 과거에 입력된 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팔자운명대로 그대로 나온다면 십중팔구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 장난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생활 자체를 마음의 용광로에다 되돌려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거는 정한 이치입니다. 인과의 유전성이라든가 업보, 세균성할 것 없이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다 되돌려 놔야만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앞서의 입력된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에 생각하는 그대로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두가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고들 야단들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한 군데서, 즉 말하자면 가던 길에서 엎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일어설 수가 없다, 단 엎어졌으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런 뜻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자라는 새싹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은 외국으로도 장애인들이 많이 입양되고 또 국내에서도 모두 키울 수가 없어서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이 그렇게 안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나갈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연세가 들어서 노인네라 할지라도 지금 모습이 노인네지 마음이 노인네가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은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또 다시 나올 때에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하간에 우리가 세상에 나왔으면 이름 그대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천이 없이 이론으로만 알고, 학설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아서 무슨 공자, 맹자 소리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을 위로 꿰고 아래로 꿴다 해도 한번의 실천만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실천궁행하는 것을 가르쳤지 말을 배우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야겠기에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자기가 뼈와 살을 빌어서 난 부모의 그 은혜를 백분지 일이나, 천분지 일이라도 갚으려면 이 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한생각 잘못해서 장애인이 나온다 한다면 세상에 그것은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식구들도 전부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정신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장애인은 부모가 기르다가 부모가 죽으면 누가 맡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을 낳으면 내다 버린다고 합니다. 버리면 그 모습만 갖다 버렸을 뿐이지 그 인과의 유전은 절대로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대(代)에 그렇게 됐으면 또 그 다음 대에 나오고 그 대가 아니면 6대, 7대 이렇게 해서, 빨리 나오고 더디 나올 뿐이지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더러 옵니다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과거에 인과로서 유전이 된 그 자체가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하나하나가 장애인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애고도 내 마음 먹기에 달렸고 병고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한두 건입니까.

찰나찰나 나투면서 용도가 바뀌지면서 다가오는 그 모두를 어떻게 타파를 하고 어떻게 허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저것 나눌 게 아니라, 이것은 못하고 저것은 할 수 있다고 나눌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불바퀴에다 놓으면 그냥 타버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불바퀴라고 하니까 잘 알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숙명통, 즉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 잘 아시겠죠. 모든 것이 거기에 입력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다 입력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오는 그 자리에다 다시 돌려놓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만 우리가 인생의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수없이 그런 얘기를 반복했습니다만 백번을 반복해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닿는데 왜 자기는 닿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과거의 업장이 두터워서입니다. 그러니 그 업 자체가 있다는 생각도 거기다가 놔 버리고 아주 맑게 물리가 터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죠.



그림 · 최주현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믿어야 물맛 보게돼 팔만대장경 통달해도 한번 실천만 못해

"나는 업이 많고 죄가 많아서 안 될 거야, 나는 힘이 없어." 이런 마음조차도 거기다가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으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며, 지수화풍 속에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우리가 공기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기주머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듯이 말입니다. 물 밖을 벗어나면 고기가 죽듯이 사람도 역시 내면세계에서 벗어나면 고기가 물 바깥에 나온 거나 진배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겠네 살겠네 하고 야단법석이 나는 거죠. 물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물이 아주 없어지면 없는 대로 죽는 것이니 사람이나 고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살아나가는 방도에 대해서는 마음들이 자기를 이끌어가며 자재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단 생명을 유지하니 감사해야 하고, 먹지 못하면 죽으니 감사해야 하고,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니 감사하고, 땅은 걸어다니고 심어 먹어야 하니까 감사한 것이죠. 독불장군 없이 서로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니까 감사해야 하고, 부모가 길러줬으니 감사해야 하고, 모두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모두 한 데 합친 자체를 이름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그대로 생활입니다. 도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어떤 것을 나누어서 이것이 부처님법이고 이것은 부처님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자식이나 남편을 돌보지 않고 시간 맞춰 아침에 염불을 해야만이 신상이 풀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염불을 할 때 이 지구가 돌아가고 염불을 안할 때는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염주를 목에 걸고 손에 들고만 다녔지 염주가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염주를 돌렸다 봤다. 돌렸다 봤다 한다면 그것은 시공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주를 내면 속에 넣고 우리가 생활할 때, 나투고 한 발 딛고 한 발 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염주 돌리는 겁니다. 우리 생활 그 자체가 그대로 진리인 까닭에 그것이 도이며, 그것이 참선이며, 모든 것에 어긋나지 않는 여여함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놔놓고 불당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대 성인들이 이런 말을 했죠. 너부터 알라구요. 네가 태초요, 네가 있으니 상대성 이 자체가 생긴 것이다. 세상이 벌어진 것도 너로 인해서 벌어졌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안계시다면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영원한 자체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영원한 이 길을 상세히 아실 겁니다. 이 길이라 함은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여여해서 여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도록,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업이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고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다는 생각도 말고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놓듯이 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금은 금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은은 은대로 생산이 돼서 나갈 것이요, 차원대로 자기가 짓는 대로 그것이 생산이 돼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나온 자리에다 되돌려 놓는 공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잠깐 동안만 했습니다.

항상 허리 · 다리아파 고통

문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주는 못 듣지만 기회 나는 대로 큰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나의 전생을 알려면 현세의 나를 볼 것이며 내세의 나를 보려면 현세의 나를 보라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신병(身病), 그러니까 허리, 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전생에 제가 어떤 업으로 이러한 고통을 겪는지 해결이 안되어 스님께 여쭈며 그렇다면 내세에 또 다시 이런 고통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요.

답 '공과 색이 둘이 아닌 까닭에 병불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붙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고가 붙을 자리도 없느니라. 모두가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까닭이니라' 하고 〈반야심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듯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병이 있다' 는 생각을 하고, 또는 나는 업보가 있다. 없다 하고 관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를 모두 놓고 '네 몸뚱이 네(주인공)가 건강하게 해서 심부름하게끔 끝고가려므나' 하면 됩니다. 몸과 정신과, 이 마음 내는 것과 법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와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나오는 것 한 군데다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유마힐거사가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왔을 때, "나는 중생의 병이 다 나아야 내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1)

재화를 쓰는 사람과 쓰이는 사람의 차이.

"재산을 쓰는 사람이 되어라. 재산에 쓰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산이 곧 짐이요 온갖 풍파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쓰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마치 잘 기른 가축과 같아 자꾸 새끼를 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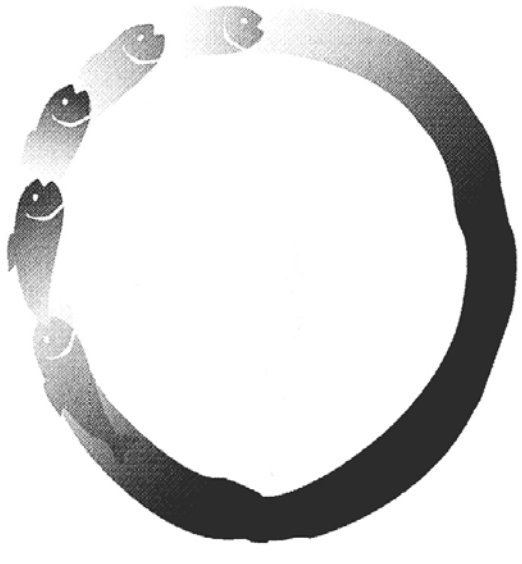
재화를 움켜쥐려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반대로 적어진다.
영예를 따르는 발걸음이 바쁘면 바쁜 만큼 도의 마음은 멀어지게 된다.
가는 것 붙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으며 지혜롭게 둥글게 살아야 한다.

나는 다만 재화의 관리자일 뿐이라고 바르게 안다면 재화의 풍족함을 자랑삼지 않을 것이고 움켜쥐려는 마음도 쉬게 될 것이다.
가령 거금이 생겼다해도 그 돈은 언제나 들고 나는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뿐이라고 생각하라.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집착하지 않고, 매달리려는 마음을 쉬라는 것이다.

일단 호수로 흘러 들어온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되면 썩게 마련이다.
또 배불리 먹고 나면 배설해야만 산다. 모든 소유는 이와 같다.

재물을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하라.
지금 내가 그것과 마주쳤다해도 그것은 어느 사이엔가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리고 흘러야만 한다. 그러므로 흐르게 내버려 두어라.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라. 막아서면 휩쓸린다.

이 우주의 법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단 한순간이라도 고정됨이 없다.
소유도 그와 같이 끊임없이 흐른다.
흐르고 다시 흘러 온다."



여름엔 시원한 것이 좋고 겨울엔 따뜻한 것이 좋다. 자연스러움이다. 여름에 시원한게 좋았다고 겨울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없다. 한때 기쁨을 선사하는 것 같았던 대상이라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배불리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죽는다. 먹을만큼 먹고 적당히 배설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소유도 그와 같다.
집착하면 체증이 생기고 체증이 오래가면 탈이 난다. 고통이 찾아온다.

우리는 재화를 잡으려고만 하지 잡은 것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온 힘을 기울여 뒤쫓는다. 때로는 인생의 모든 것을 내걸고 집착한다.
그 모습이 때로는 불 빛에 이끌리는 날벌레와 같다. 제 몸이 타버리고 말 줄을 모르고 덤벼드는 형상이 똑같다.
그 모습이 때로는 미끼에 유혹 당하는 물고기와 같다. 낚시 바늘에 걸려 목숨을 잃게 되는 줄 모르고 덤벼드는 형상이 똑 같다.

삶은 흐름이다. 흐름은 자연스러울수록 좋다. 여법한 것이다. 그러기에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말라고 한다.
돈을 벌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움이다.
권력이나 명예를 마다하지 않되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기라도 한양 붙잡고 매달리지 않는 게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애착이 고통이지 흐름은 고통이 아니다.
여름엔 시원한 게 좋고 겨울엔 따뜻한 게 좋듯이 그렇게 오고 감에 집착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흐름은 막는다고 제어되지 않는다. 막으면 넘치고 터진다. 때로는 썩는다.
댐의 물도 가두기만 해서는 조절이 되질 않는다. 한편에서 적당히 방류를 해야 제 구실을 하게 된다.

흐름을 따르는 삶은 오히려 주체적이다. 내가 대상을 부릴 때 내가 주인일 수 있지 내가 대상의 부림을 당할 때를 주인답다고 할 수 없다. 비록 내 손에 쥔 것이라도 애착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의 노예일 뿐이다.
재화에 쓰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쓰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자연스러움이요, 자연스러움은 곧 도에 이르는 길이 된다.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활 속에 있다.

협 찬 : 이 동 주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높고 낮음 나아님 없기에 '유아독존'

☞ 15면에서 계속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 소우주 소혹성부터 발견을 해 보십시오. 내 몸뚱이 속에 수십 억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생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즉 자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마음과 자기 몸뚱이 속에 든 것을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장공장 한 곳에서 파업을 일으키면 전체 공장이 쓰러집니다. 전체 공장이 쓰러지면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주인공 하면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그 모두를 한꺼번에 놓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되돌려 놓는 거기에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또는 거기서만이 내 몸뚱이 고쳐서 건강하게 끌고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물러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물러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믿고 거기에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붙들고 하는게 아니라 믿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공부 생각나는대로 되놓는 것이지요"

오늘부터라도 '병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네 몸뚱이 네가 안 아프게 해서 끌고 다녀' 하고 놓는다면 아마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와선이니, 좌선이니, 행선이니, 입선이니 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자체가 참선입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질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상태 관하며 공부해요

문 제가 스님의 높으신 그 주인공 관하는 법을 듣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을 믿고 계속 관하다 보니까 물론 몸에 병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예를 수차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 상태가 항상 욕심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지,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내고 있는지를 거의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혹한 경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밝은 쪽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밝은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가 삿된 길로 가지 않게 올바로 끌고 가는 것이, 주인공을 관해서 견성하여 올바로 가는 수행법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답 '내가 끊어지지 않게 잘 놔야지' 하는 그것까지도 거기다 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믿는다면 이걸 놓는다. 안 놓는다.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생각이 안놨어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한달 후에 생각이 났다 해도 끊어진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삼천년 전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혹간에는 끊어뜨리지 않으려고 붙들고 극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부는 극매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믿고 제자리에다 돌려 놓는 공부, 제자리에 다 놓되 앉으나 서나 생각나면 거기다 돌려놓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 되게 하는 것도 거기지 하고 돌려놓는 법입니다. 또 나를 발견하고 나서 더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둘 아닌 도리를 공부하려면 이것 저것이 나타납니다. 말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온통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계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끔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 보느라고 그렇게 나오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니 속아서는 안됩니다. 그것마저도 제자리에다 가 다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기와 무애행 알고싶어요

문 저는 평소에 마조원상의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무심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스님께서 그것은 옳은 참선이 아니고 잘못하면 무기에 빠지기 쉽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화두를 들고 주인공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염송을 한 뒤에 삼신을 모셔놓은 곳을 보고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무애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고등동물로서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자체가 화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도 화두이고 이 몸뚱이가 찰나찰나에 자동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화두입니다. 또 이 몸뚱이로 말하면 구멍뚫린 자루인데 그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우글거리며 돌아가는 이치도 화두입니다. 내



그림 · 최주현

진짜 화두를 제껴놓고 남이 준 화두를 들고 앉았는 것을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몸을 이렇게 형성시켜서 움죽거리게 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것을 지켜보는 게 첫째가 아닐까요? 그것조차도 뛰어 넘어서 나를 형성시켜 여기까지 끌고온 주인공이 있을테니 일체를 내 몫이 아니라 주인공의 몫으로 돌려놓고 되는 것 안되는 것 따지지 않고 몰고 들어가는 것이 이 바쁜 세상에 뛰면서 공부하는 길이 됩니다. 다 놓고 뛰면 무기에 빠질 까닭도 없고 무애행이니 뭐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계없이 관하는 도리

문 뚜렷한 경계가 없을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럴 때는 관이 활발하지 못한데 이런때 보고 듣는 이가 누구인지 관하면 되는 건가요? 또 스님 말씀중에 시간이 날때 "주인공 너만이 너를 보여줄수 있어"하고 관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는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앉아 있으라는 말씀은 아닌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 이 공부는 서두른다고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한번 반야줄을 쥐었으면 더디다 이르다, 잘된다 안된다는 생각까지도 거기에 놓고 관하세요. 앉으나 서나 누울 때나 말할 때나 어느 때든, 무엇을 하든 놓고 관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방법

문 이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번 질문은 '주인공! 이세상 살면서 드는 모든 고민들 다 네가 맡아! 해결할거면 하고 말려면 말고, 다 너 알아서 해!'…이래도 잘 하는 것입니까? 스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답 이왕 놓고 맡겨서 이 공부 하실 요량이면 놓고 맡긴다는 생각까지 몰록 놓으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절실한 마음, 사무치는 마음이라야 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인연에 착두지 말라는 뜻

문 스님 말씀중에 "인연은 저버리지 말고 착은 두지 말거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중생계에 사는 삶으로서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일면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넘어야 할 경계이겠으나 스승님의 한말씀 듣고자 합니다.

답 무엇이 탈이냐 하면 '나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하는 그것이 탈입니다. 그것만 빠지면 오는 인연 막을 일도 없고 가는 인연 잡을 것도 없지요.

안팎으로 내게 다가오는 경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지않는 상태에…

문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으즘 "나는 누구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계속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보면 그런 상태가 가끔되곤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평온기 가정에서는 가장이 제일 높은 겁니다. 뱃사공은 뱃사공대로 높고,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높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높은 것입니다. 산과 들을 보십시오. 전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낫다고 합니다. 호박꽃도 꽃이라고 자기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그 범위 내에서는 다 높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느니라 해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매다 불락이다 하는 것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색공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 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오지요. 불이 들어왔으면 불만 들어왔지 그 양면의 전깃줄 가설이 된 거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설이 됐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禪)이라는 건 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그 가설된 전깃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깃줄과 불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제 그릇이 비었는지 궁금

문 스님 법문 자주 들고 많은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오늘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또 제가 내보이고 싶은 것은 사실 저라고 내세울 거야 뭐 있겠습니까만, 제가 그릇을 올려놓고 이 그릇이 빈 것인지 찬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화두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책을 보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른 건지, 또 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떠한 바람을 제가 대했을 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어서 그 말씀 올렸습니다.

답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깨달아 발견한 데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둘이 아닌 나툼을 알게 됐을 때는 아무 것을 들이대도 손색이 나질 않아요. 아무 것을 들이대도 공안 아닌 게 없고, 화두아닌 게 없고, 불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들이대도 손색이 없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걸 말없이 말하지 못하니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또 질문 없습니까?

아까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공기주머니에서 이탈하면 아주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기도 물에서 이탈이 되면 어렵듯이 사람도 공기주머니에서 이탈이 되면 어렵습니다. 오존선 만법이라 함은 허공 이 둘레를 말하고, 또는 지구 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혹성, 유성, 행성 모두가 다 이렇게 다르게 돼있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이하 각 기관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오존선의 중심에서 비도 오게 하고 눈도 오게 하고 구름도 일게 합니다. 즉 말하자면 소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거죠. 그리고 통신도 하게 하고 공기도 조절하게 하구요. 그런데 이탈이 돼서 더 올라간다면 태양열을, 즉 말하자면 재료를 탁 흡수할 수가 없어요. 안양의 시장이라면 다른 곳 시장의 일을 범할 수 없듯이. 그러니깐 그렇게 해서 넘으면 모든 것이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탈이 되면 그냥 돌아가죠.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태양열을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살고 있고, 흡수를 하되 이 물 속 밑바닥까지 태양열이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파도를 일으켜서 물을 돌려야 생명들이 죽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이 마음의 중심에서 이탈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막 돌아가지요. 그리고 따뜻하지도 못하고 추워지니까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모두가 이러한 이치로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서 이탈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불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에요. 태양열이 들어가지 않아서 파도로 인해서 모든 게 돌아가면서 생명이 살고 있고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에서 심봉이 꿋꿋하게 서질 못하면 맷돌이 돌아가질 않듯이 이탈이 되면 심봉이 있는데도 맷돌이 건성 돌아가듯 건성 돌아가게 돼 있지요. 그리고 돌아가지도 않구요. 이런 까닭에 우리 이 마음 자체, 지구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양 변두리에 한 혹성이 있어서 그 혹성을 기준해서 살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혹성에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세포가 있듯이, 모든 사대에 피를 조달하고, 통신을 하고 여기를 탁 치면 벌써 두뇌로 해서 사대로 아픔의 신호가 가는 겁니다. 이렇듯이 지구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우리 몸 하나 하나 똑같습니다. 지구에도 세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통신 조달은 바로 오존선에서 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오게 할 수 있고, 춥게 할 수 있고, 덥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지요.

누가 오늘 법회날인데 비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나 이 선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선법이에요. 자기가 얕은 소견으로 그냥 하고 싶고, 안하고 싶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개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포괄적인 하나로서 해당이 되고 생각 자체가 그냥 법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오늘 법회에 비가 와서 걱정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를 여러분이 철저히 하고 포교를 해서 그런 장애인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편도 되고, 장애인이 나온 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과거로부터,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영계성이니, 세균성이니 해서 이게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온 그 자리에다 되놓으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쓰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생각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남편이 술을 먹고

'나다' '내가했다' '내것이다' 그게 탈입니다
마음심봉 꿋꿋치 않으면 맷돌 건성 돌아

합니다. 제대로 수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수면이 잔잔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칩니다.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얽매이지 않아야 자유인이죠. 그럴려면 부와 자가 상봉을 해야 합니다.

마음공부는 내가 죽어 나를 보는 도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유의법에 '나'라고 고정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체를 놓고 관하는 가운데 참나를 발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돈 · 명예 · 이익에 대해

문 이번에 드릴 질문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익도 좋지만 살다보면 돈이나 명예같은 이익을 바라게 되는데 그것을 분수에 맞게 추구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나'라는 이것에 붙게 되는 것도 한마음 주인공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찌하다 보니 질문이 아닌것 같이도 돼버렸지만, 스님께 말씀듣고 확인하고 싶고 틀렸다면 고치고 싶습니다.

답 아직은 나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라는 이것에 붙게 되는 것도 한마음 주인공이 하는 것이다' 한다면 그건 사량이죠. 이 도리는 머리를 굴려서 터득하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무조건하고 놓고 맡기고 관하는 거기에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놓으면 인과도 녹습니까

문 스님 법문 속에서 인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인공에 모두 놓으면 된다, 일념돈탕진이라고 해서 주인공한테 맡기면 인과 자체도 다 멸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락인과와 불매인과에 대해서 저는 증전에 불락인과라고 알아왔습니다. 법력 높으신 도인들께서도 인과는 오되 인과를 받지 않는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경계와 대상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인과는 오되 인과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옛 선사들 법문집에서 보니까 그것이 틀린 거다, 불매인과다, 도인이나 법력이 높으신 분들도 인과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께서 주인공에 맡기면 모든 인과가 다 녹는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답 의심이 그렇게 갑니까. 물론 불락이다 하면 불매가 올 거고, 불매가 있다 하면 불락이 올겁니다. 이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이것이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하는 소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불매라고 했느냐 하면 모두가 하나하나가 떼고 놓고 떼고 놓고,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쉬는 게 없습니다. 쉬는 게 없으니 이것이 다가오는 대로 네가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온다, 안 온다, 불락이다, 불매다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활 자체 여여함이 그대로 불매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생사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불매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불락이라고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여우몸을 쓰고서 5백년이 1초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또 여우 몸으로 살든지, 늑대몸으로 살든지, 구더기의 몸으로 살든지 선지식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이 거기에도 해당되듯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느니라 했거든요.

지렁이 발도 내 발이요, 하다 못해 메뚜기 발도 내 발이요, 인간의 발들도 전부 내 발이고, 내 아픔이고, 내 몸이고, 내 자리이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정에서든지 자기가 다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제3의학 · 심요법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시레비디오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 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산 삼

50~100년생 3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연있는 불자나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019)508-2767
원담스님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길을 찾는 사람에게 - 철학의 길잡이

● 90 분 녹음 (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 · 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012)753-2746/011)535-2746
※ 맞문이 트입니다.
※ 신명과 대화하는 六文 무료중정 -90분 24개 교재 1권

禪武道 수련학생 모집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수련장과 요사를 신축하고 선무도 법사(사범)과정 학생과 건강을 위한 요양객을 모집합니다.

◆수학내용 : 선체조, 선기공, 선무술, 활법술, 불교학, 체육학, 한의학, 외국어, 한국전통예술
◆수학기간 : 3년 및 단기과정
◆입학자격 : 남녀 고졸이상(단 요양객은 기간, 자격 제한 없음)
◆문 의 처 : **골 굴 사** (0561)44-1689
⊙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본회의 국내외 지원, 지부에 지도자로 취업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협회 선무도 대학

건강과 수행의 등불

선 기 공

지도자 과정으로서
2년 수학후 총장 수료증과
협회의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모집기간 : 1998년 9월 5일까지
◆대상 : 남녀 연령, 학력제한 없음
◆지도교수 : 설적운 스님
(경주 골굴사 주지)
▶ 접수처:교학과 02)260-3727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세 계 선 무 도 협 회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학생모집(통신생포함)

◆ 과 목 : 동양역학, 침술, 불교학, 일본어 (초급 · 중급 · 고급 · 회화 동역 비지니스반)
◆ 자 격 : 연령 · 학력 제한없음
◆ 각과정 3개월 졸업 - 졸업장 수여
◆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배려함
◆ 강 사 : 철학박사(스님, 승가대 교수)
◆ 풍수, 운명, 침술 : 직접 감정도 하고 있음.
◆ 수업시간 : - 오후 3시 ~ 5시
- 야간 7시 30분 ~ 9시 30분
※ 과목에 따라 1주에 2~3회 수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로즈데일백화점 1339호/지하철 3호선수서역 3번출구하차)
T. 3413-3185~6 F. 3413-3186
대길사 대길승가대학

사주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 신수 · 궁합 · 장명 · 진로선택 · 이사방위등을 수료후 정확하고 자신있게 간명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수강-주2회(1회 3시간씩)3개월
◆장소-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 명리 연구원
02)713-4852~3

• 구인구직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464-1 **자비사**

0546)53-7700

구 직

◆50대 독신 남자로서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 겸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 주간에 전화 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0351)826-1152

스님을 모십니다.

◇연령 : 40세 이상 (비구 또는 비구니스님)
◇조건 : 같이 수행하실 분
◇위치 : 강원도 동해안 천년 고찰임

011)375-0667(핸드폰)
저녁에 연락 바랍니다.
※ 모시는 이유 : 당사 주지인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스님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탈종공고 •

공 고

대한불교조계종 귀하

◆ 위 치 :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550
◆ 사찰명 : 용화사
◆ 주 지 : 민 춘 식

상기사찰은 현대불교 신문 184호에 탈종공고 되었으나 본인의 착오로 잘못 게재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1998. 8.

탈종 및 사직 공고

대한불교 해동평화종 귀하

본인은 귀 종단의 종헌 종법이 본인의 취지에 맞지않아 귀 종단의 모든 직을 사임하고 탈종하며 귀종단은 본인과 무관함을 공고함.

서기 1998년 8월 14일
수경사 운산 고영환(석암) 합장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 타 •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함장
0564) 33-2037
017) 531-2929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사찰에서 사용할 4륜 구동차 무료로 보시하실 분

전화:0366)32-6544
핸드폰:011)363-3963

※ 홍천에 소재 사찰 ※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7-540-3591

영축아봐타센터

0523)81-1143/011-882-1149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Avatar.

아봐타는,
14개국어 61개국으로 확산된 현재 지구상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사찰안내 •

양도 안내

⊙ 위치: 평창동 / 임야 : 3천평
대지 : 140평 / 건물 : 25평
석굴 : 5평 / 가액 : 4억
⊙ 위치: 수원근교 /부지 : 1,300평
법당 : 12평 /요사 : 30평
가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 진 불 사

<사찰적지급매>

⊙ 충북 · 오창 · 서울 1시간 15분, 중평 I.C 5분거리

· 사찰부지 : 600평(주차 150평)
· 건물 : 직벽돌스라브 60평(방29실)
원장실 3평 (방1실)
조립식식당및 주방 18평
목욕 사워실
※ 발전 : 오창국제공항, 오창과학단지, 오성의료단지
1. 청주:인구 50만, 15분거리
2. 증평:인구 3만, 8분거리
3. 진천:인구 3만, 10분거리

가. 발전요충지, 경관수려한 정남향, 7부능선위치(옛고시원)
나. 산업도로에서 도보로 5분거리
다. 45ton 진입로 양호
라. 전력 360KW 및 220KW
마. 급수시설(정수) 양호
바. 기존전화시설 완비

● 배가 : 1억 3천
· 분납절충 · 전세가능

0431-250-8108/011-466-8107

◆사찰양도안내

◇ 대지 : 85평
◇ 법당 : 17평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요사 : 27평
◇ 위치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매가 :1억 7천만원
◇ 특징 : 산밑 관음기도 영험도량. 시내와 근거리, 지하철 이용가능한 포교 최적지임.

사찰전문용역 금강기획
736-3579~9/011)789-2255

◆ 백운산 계곡(암자터)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016번지
◆ 함양(안의) →서상→ 상부전 마을에서 2Km
◆ 현지 발 실사용 평수 2,000평
◆ 등기 필 평수 465평
◆ 급매가격 : 3,000만원

053)767-5635

※ 토굴터 및 묘터 최적지임. 남해 서면 백장리(남해바다 및 묘도 보임)
◇부지 : 1,775평 준농림지
◇가격 : 3,500만원

사찰급매

◇위치 : 강북구 수유1동 북한산밑
◇평수 : 단독주택 약 25평
◇부처님 삼존불, 방2
◆98년 신축, 입주즉시 법회가능
◇가격 : 전세 4천(월세도 가능)
※지방 이주관계상 급히 양도합니다.

02)984-2427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북 옥천군 군북면 (故 육영수여사 생가 뒷산)
◇대전에서 15분거리
◇대지 :180평 ◇건물 : 30평씩2동
▶ 총면적 1천평
◇양도가 : 1억 3천 정도(절충가능)

042)283-0990 강대업 합장
011)426-2534
※ 특징 경허선사 주석도량으로 알려짐

포교원 급양도

◇위치 : 강남 수서중심 백화점 건물내
◇6만 인구의 유일한 고급 포교법당
◇신도계속 증가추세중
◇35평 : 스님방, 화장실, 주방, 샤워실 최고급
◇가격 : 층 2천만원, 월 55만원 (관리비 30만원 미만)

02)3413-3186
016-357-8254

800만원

◇법당 10평 : 목조 무허가
◇석굴 7평 : 법회할 수 있도록 완벽함
◇위치 : 인천 송도 유원지 부근
※ 방 3개, 주방 2개, 3년간 무료 사용할 수 있음. 수행에 전념하실 인연 있는 스님의 연락 바람.

032)865-9475
011)765-9475

사찰겸 토굴

◇위치 : 경남 마산 마산역에서 30분거리
◇사찰부지 : 158평
◇건물 : 인법당 1동, 요사채 1동
◇가격 : 6천만원 (시설일체 무료기증)

011)9692-8878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 법당 : 부처님 삼존불 약 15평 (입주 즉시 법회가능합니다.)
◆ 요사채 : 주방 2, 거실 2,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스님께 약간의 전세보증금으로 모실까 합니다.

02)823-0788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4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포교원 운영하실 분

◆ 법당 15평 삼존불 및 모든시설 완비
◆ 요 사 : 3층 옥탑, 단독방 1.
◆ 3층 - 방 1, 주방 1, 욕실 1.
◆ 가 격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 모든 시설비용은 최저가격으로 드림.

02)461-6091
011)493-8936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절충가능)

02)936-4785

사찰안내

◇위치 : 장호원(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7평
◇층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4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직접면담-스님 인수시 가격절충)

0331)32-4999
012)925-6118

사찰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계면
쌍계사
(쌍계사에서 칠불사방향 1.5Km 지점)
◇대지 : 510평
◇건물 : 91평
◇가격 : 추후 결정

0595)884-0496

포교당 운영하실분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 전철역 앞
◇대지50평, 실평수25평(단독주택)
◇전세 2500만원, 월세 10만원
(보증금-시설비 · 권리금 합 5천만원)
◇보살도 가능, 삼존불모셔져 있음

0344)956-7717
018)382-0280

◆ 기도도량 (사찰)급매

◇ 위치 : 서울 삼각산 (정릉 국민대 뒤)
◇ 국림공원 임야 약3천평 건물 5동
◇ 계곡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천연의 약수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격 : 5억 5천만원정

02)512-3092

대구시내 포교당 운영하실분

◇평수 : 59평, 3층 건물
◇보증금 : 2천만원(월 30만원)
◇후불탱화, 관세음 보살님 동불 봉안, 대형냉장고, 전화 시설 완전 구비

053)654-6219
011)790-7162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대구시
◇규모 : 2층건물, 법당 28평
◇삼존불 · 동불 · 후불탱화 · 신중탱화 · 산신탱화, 법당시설 완비
◇1층 : 요사채 30평, 방3, 주방, 욕실, 종무소, 반지하 식당-13평
◇매가 : 1억 3천(전세 5천만원)

011)790-7162
053)656-6609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화1리 **용주사**
◇평수 : 대지-150평, 법당 2층-15평
◆요사-30평, 산신각-2평, 종각-2평, 용왕각-1평, 지장단-10평, 천수관음전-2평, 미륵불1불, 해수관음-1불
◇가격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373)374-4459

포교당 매매

◇위치 : 인천 숭의 5거리 도로인접
◇건평 : 3층 45평
◇법당 : 17평, 방3개, 주방
◇가격 : 전세 1천만원, 월세없음.
※ 시설비 따로 문의 바랍니다.

032)887-4884
일심사

◆사찰 운영하실분

※ **가격 대폭 인하**
◇ 위치 : 경희대 회기역 입구.
- 4층 27평.
- 5층 15평.
◇가격 : 보증금 천 4백 월 60만원

011)286-2680

불자 세상보기

식량부족

수해로 쌀 수확량 작년의 80%
음식물 남기지 않기 생활화

한국 식량자급률 27%…세계 기상이변 식량수급 차질

경기지역과 영서·충청지역에 내린 폭우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백만섬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대홍수 등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량부족사태가 초래될 경우 내년이후 국내 식량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호텔과 음식점에서는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옛날 '보릿고개'를 넘던 '헝그리 정신'을 되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폭우로 침수된 농지는 2만 2천ha 정도, 일조량도 지난해보다 25%이상 줄어들었고 벼멸구 등 병충해 발생이 크게 늘어 올해 쌀생산량이 지난해의 80% 수준인 3천3백만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양곡 총수요량 2천만t 가운데 1천4백만t을 해외에서 수입(97년 28억달러)하는등 곡물 해외의존도(식량자급률 27%)가 매우 높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곡 6백만t 가운데 쌀이 5백30만t(88%)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따라서 쌀부족 사태는 물가불안과 경제위기, 사회불안을 거쳐 결국 국가위기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시점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절약정신은 필수적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음식물 소비는 다소 줄었지만 대중 음식점 등의 음식물 쓰레기는 여전하다. 음식 가격을 내리는 대신 식탁에 오르는 양은 오히려 늘리는 등 저가공세로 손님을 끌고있기 때문이다.

스님들의 공양은 배를 채우고 맛을 돋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보와 사중(四重: 국가 부모 스승 시주)의 은혜를 갚고 삼도(三途: 지옥 아귀 축생) 중생의 고통을 건지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

이처럼 국민들의 절식(節食)이 일반화될 때 정부가 추진하는 수매제도 개선(융자수매제), 우량농지 확보, 농업용수 개발 등 각종 식량안보체제 확립방안도 위력이 배가됨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절식운동과 함께 "농업문제와 식량문제를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3일 폭우로 물에 잠긴 경북 상주시 공검면 들녘. 벼 한 포기라도 더 일으켜 세우려는 농심(農心)이 안스럽다.

불교의 눈 "발우공양정신 절실한 때"

〈대살차니건자소설경〉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 가뭄, 폭풍, 비 등 기상상황을 알고 농사의 작황을 살펴 풍작을 위한 대책과 백성의 안락과 슬픔을 알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폭우로 인해 많은 농경지와 재산을 잃는 일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화엄경〉에서 옛날 대광왕(大光王)이란 임금은 "가난한 백성이 몰려오면 창고를 열어 원하는 것을 내주고, 그 기회에 사악한 마음과 탐욕을 떨쳐버리는 지혜를 가르친다"고 했다. 정부차원에서 풍작이 들 때 곡식을 넉넉히 쌓아둘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주경〉의 "음식은 족한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몸을 길러 괴로움과 근심을 없게 할 것이다"는 가르침대로 발우공양의 절약정신을 온 국민이 실천해야 한다. 북한동포와 수재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음식 찌꺼기를 남겨서는 절대 안되겠다. 지혜로운 농경정책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해 그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시론

승가망신

며칠전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이었다. 비를 맞고 시내 식당에 저녁 공양을 하러갔는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식당 주인이 공손히 합장 인사를 하고는 "스님은 종회의원 아니시지요?"하는 순간 마음이 철썩 내려앉았다. 8월13일 TV 뉴스와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된 승려들의 도박사건은 수행승단에 오물을 끼얹은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 나는 승단의 한 사람으로서 식당주인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며 사죄만을 드릴 뿐이었다.



법 산
〈동국대 정각원장〉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하여 쓰러지고 퇴출되어 직장을 잃고 거리의 잠을 자는 경제난국에 게릴라성 폭우까지 쏟아져 엄청난 수해를 입어 나라 전체가 전대미문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즈음 거액의 판돈을 탁의(濁意)하는 승려들의 도박 현장, 그것도 종단의 중진인 종회의원과 큰 절 주지와 소임자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은 부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불교의 위신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린 현상이다.

청정과 무욕을 생명으로 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사회악을 선도해야할 성직의 수행자가 불고기집 밀실에서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혐오의 마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조계종 개혁의 함성이 엊그제 같은데, 아직 개혁 1기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 것에 대해 종단과 종회, 주지, 소임자 등 승단의 모든 구성원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

"도박에는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재산이 날로 줄어들고 도박에 이기더라도 원한이 생기며, 지혜로운 사람이 타일러도 듣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며,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육방예경〉의 가르침 처럼 도박은 근본 10계의 두 번째인 불투도(不偸盜)에 해당된다.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계율 존중하기를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듯이,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듯이 해야한다. 계율은 너희들의 큰 스승이요, 내가 세상에 살아 있더라도 이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하시었으니,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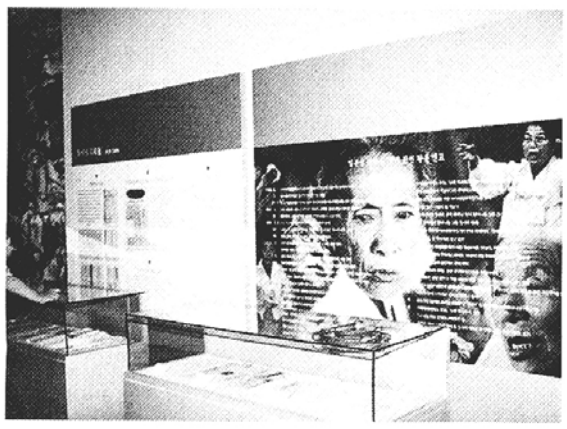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는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며, 도둑질 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같고, 거짓말 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마군의 길을 이룰 뿐이다. 만약 계행이 없으면 비루걸린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한다 했는데, 하물며 청정한 지혜의 열매를 바랄 수 있겠는가.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 한다면 부처님이 늘 계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계율이 수행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마음에 새겨봐야 할 일이다.

> "무욕을 생명으로 어두운곳 밝혀야할 출가 수행자들이 상습도박을 하다니"

이번 도박사건은 적발되어 구속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설사 액수가 적거나 장난으로 해보는 화투놀이라 하더라도 출가의 정진과 제도해야 할 중생이 얼마인데 심심풀이 도박을 하는 스님들의 행위에 철퇴를 내리지 않을 화엄신장이 과연 있겠는가.

승단 전체가 이번의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철저한 계율정신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서산대사의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곧 부끄러워해야 대장부의 기상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명심하여 오늘의 출가 수행자들은 간절한 참회로 거듭나는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 세계 첫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일본군 위안소는 강간센터"

유엔인권委 보고서…관련자 처벌해야

◇경기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에 14일 개관된 세계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내부 전시실. 역사관은 각 60평 40평 규모의 2개동으로 구성되어 △위안소를 재현한 '체험의 장'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증언의 장' △관련 문서와 영상자료를 전시한 '기록의 장' △미술작품을 전시한 '고발의 장' △피해자 위령탑과 쿤항소가 있는 '추모의 장' △연구자료실을 갖추고 있다.

"남이 내 어여쁜 누이동생이나 처첩(妻妾)을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대방편불보은경〉

13일 유엔 인권소위에 제출된 일본군대위안부에 관한 〈맥두걸 보고서〉는 군대위안부는 '노예'로, 군대위안소는 '강간센터(Rape Center)'로 규정,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이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물론 그동안 거의 논의되지 않던 태평양 전쟁 당시 군대위안소 운영에 관여한 구 일본군 사병 및 장교의 체포 기소까지 강도높게 언급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새롭게 하고 있다.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법적 배상책임이 소멸됐다는 일본측 논리에 대해 보고서는 "협정 체결 시점에는 일본의 직접적 개입이 은폐돼 있었으므로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협정을 국가간 재산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배상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재경 기자

시민단체 '의회발전 시민봉사단' 발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회발전 시민봉사단'(대표 손봉호)이 24일 발족, 활동을 개시했다.

대졸이상 학력의 실업자 가운데 선발된 1백여명의 봉사단원들은 의회가 움직이는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직접 감시에 나서는 리얼타임(동시간대) 모니터 활동을 국내 처음으로 벌이게 된다. 전체 국회의원이 2백99명이라 단원 한 명이 3명 정도의 의원을 밀착 마크하는 셈.

1개팀 4명씩 25개팀으로 구성되는 감시단 중 15개 팀은 국회 상임위를 하나씩 맡는다.(정보위원회는 대외비여서 제외) 각 상임위 담당 팀들은 하나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때까지 전체 과정을 추적한다. 감시단은 특히 그간 실제 주요 결정이 이뤄지던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에도 주목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실업극복 국민 대바자'

롯데백화점서 9월3일까지

실업극복국민운동은 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10일 동안 롯데백화점 서울지역 5개 점포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 대바자' 행사를 연다.

8월26일 오전 10시30분 롯데 잠실점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과 강원룡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등 국민운동의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추준석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여해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

근로복지공단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박성범 맹형규 의원 등 국회의원과 인기연예인들이 일일판매자원 및 애장품 판매에 나서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국민운동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은 청자 1점을 판매용으로 내놓았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약 2억원 상당을 마련해 실업기금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불/자/정/보 (사찰) ♣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 32-8322~4
<자택> 051) 335-6392
011) 881-4863
012) 1568-6392

금화 공인중개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사찰 분납 운영하실 분

◇위치: 경북 예천
◇부지: 700평(100% 사용 可)
◇법당: 23평/ 요사:37평 이상
◇가액: 6천 5백만원(분납가능)
◇상담: 스님 직접(0584)53-7262

◇위치: 경북 김천역에서 10분 거리
◇부지: 3,000평 농장겸용 사찰
◇법당: 30평/ 요사: 50평
◇가액: 전세 5,000만원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2)512-4447/ 012)1648-6334

※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므로 일반인, 보살, 무속인 대리상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사찰운영하실분

◆위 치 : 강원도 홍천(市 승격 준비작업 완료) 2,000년대 서울서 1시간 거리
◆부 지 : 대지 198평, 임야 125평, 전 1,159평(合 1,482평)
◆법 당 : 13평(고전 한옥기와) 등기 필 / 요사 : 28평(고전 한옥기와) 등기 필
◆부속건물 : 17평(창고, 외부샤워장, 외부화장실) ◆가 액 : 3억(절충가능)
◆특 징 : 수려한 산세(천하절경 명산의 기암괴석 청정자연계곡)와 사계절 1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과, 넓은 주차장 지하 80M 암반을 굴착하여 나오는 엄청난 양의 암반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700m(사찰 전용도로)거리인 쾌적한 교통환경, 산속에 소재한 기도 도량으로 대덕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 현지 답사 환영 ※
상담 : 홍천 0366)33-217 / 011)361-3260 주지 혜선 스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 건 물 : 4층 40평, 옥상 사용가능
◇ 방 3개, 주방, 욕실, 법당
◇ 가격 : 전세 1천,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51)204-6868
0373)78-0808

암자 매매

◇ 평수 : 약 280평(하천부지)
◇ 자연수 및 상수도, 2개선 전철 10분거리, 마당에 주차, 법당·요사채 2개 건물, 방 3개 外 등등.
◇ 미륵불 外 3불 ◇ 가격 : 1억 9천만원
02)3216-1382
011)343-3631

사찰부지안내

(타용도 가능)
◇위치 : 경북 상주군 외서면
◇평수 : 45만평(분할판매 가능)
◇가격 : 평당 2,300원
051)625-6359
※ 감·밤·잣·표고버섯 등 유실수 있음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 법당, 사무실, 방 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무(無), 시설비 - 1천 3백만원)
0344)979-0212
011)667-0212

포교원 안내

◆ 위 치 : 부산 최고 요지
◆ 평 수 : 50평
◆ 법 당, 사무실, 공양실, 방3개, 창고
◆ 보증금 : 1,000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 A급 : 신도카드 A급 400개
051)441-6773
011)825-1662

사찰안내

◇위치 : 부산시 진구 범천동
◇평수 : 약 1000평, 국유지
◇법당 : 27평, 스레이트 건물
◇요사 : 1동(스레이트)
◇삼성각 : 기와 ◇가격 : 2억 3천
◆ 특징 : 송림숙의 사찰로서 부산 오륙도 앞바다가 훤히 내다보이고 서면거리가 5~10분, 감포동 10분, 부산 중심가
051)644-6936/017)569-5540

◆포교원 안내

- 광명시 포교원(3층 건물)
- 평수 : 35평 - 가격 : 전세 5천만

◆사찰 매매

- 삼척 : 550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3, 종각, 탑
- 매가 : 2억
011)753-0768



◇ '평화캠프'에 참여한 청년지도자들이 공동체놀이로 우의를 다지고 있다.

종교벽 허문 화합 한마당

6대종교 '평화캠프'

우리나라 각 종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지도자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화합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 회원종단인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 종단을 대표하는 청년 60여명이 17~19일 경기도의정부 다락원캠프장에서 제1회 종교청년평화캠프 행사를 갖았다.

종교에 관계없이 '화합' '평화' '이해' '만남' 등의 팀으로 각기 나누어 진행된 평화캠프에서 청년지도자들은 각 종단의 종교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각 종교의 노래와 춤을 배우고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캠프에 불교계 청년지도자로 참여한 박정호씨(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근무)는 "젊은 세대의 상호교감을 통한 상호이해를 토대로 종교간의 배타적인 벽을 허물고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건전한 청소년환경 만들자"

청소년불자들 유해환경 조사

"청소년들은 갈곳이 없어요.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청소년출입에 대해 어떤 관여조차 않는 어른들을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건전한 교육·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청소년교화연합회(이하 청교련) 보령·대전·인천지부, 목동청소년회관 등이 자원 봉사 프로그램으로 중·고등학생이 직접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교통실태를 조사하고 비행예방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의 장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청교련 보령지부(지부장 정운)는 9월9일 관내 중·고등학생 3백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발족시키고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홍보와 가두 캠페인도 전개한다. 정운스님은 "청소년 감시원의 지적을 받은 유해업소 업주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 교통실태를 조사하고 도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청교련 대전

청소년시설·정책 제안
비행예방 거리 캠페인
사례집도 연내 발간

지부(지부장 종실)가 5월부터 월3회 실시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매회 중·고등학생 1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행예방 가두 캠페인' 프로그램도 개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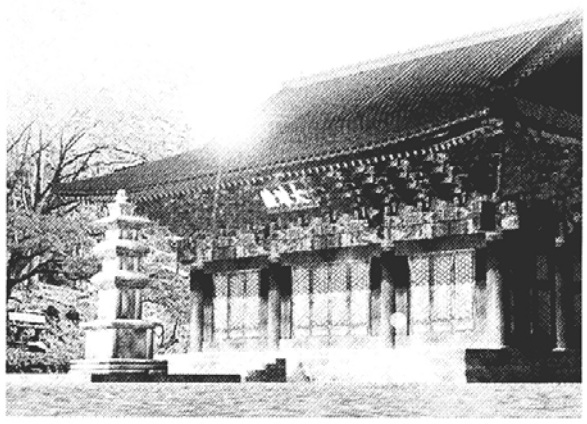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



◇청교련 대전지부가 매달 실시하는 '비행예방 가두캠페인'에 참여한 대전지역 여고생들.

와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는 이미 8월 초 유해환경 1차 조사를 마무리 하고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공간에 대한 통계' '청소년 참가기' 등이 수록된 '사례집'을 제작하는 한편 △유해환경지도 제작 △청소년 보호 정책안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 사례집은 12월경 각기 발간될 예정이다.

국선희 간사(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 개개인의 목소리는 작지만 힘이 합치고 꾸준히 노력하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신념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KBS 특수촬영팀에 의해 컴퓨터그래픽으로 복원된 신계사 대웅전.

금강산 신계사 그래픽 복원

K-1TV 국내 최초 방영

한국전쟁때 소실된 금강산 4대 사찰중의 하나인 신계사가 3차원 그래픽으로 복원돼 국내최초로 안방극장에 선보였다. KBS-1TV는 금강산의 실제 모습을 축소한 미니어처(소형 모형)를 특수촬영해 제작한 특별기획 '금강산'을 23일 밤10시35분부터 60분간 방영했다.

소설가 고원정씨가 금강산 길라잡이를 맡아 내금강 장안사를 시작으로 만폭동과 비로봉, 외금강의 옥류동, 만물상 등 금강산 곳곳의 절경을 안내했다.

원성스님 티벳생활 소개

K-2TV '도전지구탐험대'

티베트 라다크지역의 해미스 사원에서 매년 7월 5·6일 양일간 열리는 전통불교축제의 탈춤극 공연에 동승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중앙승가대4)이 도전장을 냈다.

KBS-2TV는 원성스님이 해미스 사원에서 라마승려들과 생활하며 수행하는 과정과 '해미스 축제'의 탈춤극 공연에 참여키 위해 티베트의 전통춤을 익히는 모습 등을 조명한 '도전지구탐험대'를 9월6일 오전 9시40분부터 오전11시까지 80분간 방영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이희호여사 수재 성금

BBS '거룩한 만남' 참여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의 불우이웃 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에 대통령부인 이희호여사가 격려전화를 걸고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

이희호여사는 14일 '거룩한 만남'이 마련한 수재민 돕기 특별모금방송에 전화를 걸어 "이번 천재지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이 다시 용기를 되찾길 바란다"며 김대중대통령 명의의 금일봉을 전달하고 제작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주부신행담

너무나 소중한 만남 ④·끝

"아버지, 병이 어디서 왔을까요? 온 곳이 있으면 틀림없이 병이 사라지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하염없이 수그러 들던 아버지의 숨소리같은 여린 목소리가 "그래, 알았다" 하셨다.

그날 밤을 아버지 옆에서 새우고 싶었는데 애들 학교 보내는 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토요일에 애들 다 데리고 가야지, 이젠 좀 자주 가뵈어야지'하는 생각을 했었으나 아버지는 그날 저녁을 잡수시고 앉아 계시다 그렇게 가시었다. 아마 8시 40분쯤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여동생과 제부는 진통제를 사러 갔었고 큰 형부는 옆에 앉아 있었음에도 앉아있던 아버지가 주무시려고 누우신 줄 알았다고 하였다.

그 시간 난 닭장에서 병아리 먹는 물을 큰 통에 받으면서 귀로는 물이 얼만큼 받아지는지 소리에 신경쓰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관하고 있었다. 간절한 마음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죄스러운 마음이 일었다. 고통을 오래 받으실 바에는 빠른 시간내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순간적인 내 마음이 너무도 죄스러웠다. 시계를 봤더니 8시35분 쯤이었다. 그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죄스럽다.

"내 빚이 이웃 기쁘게 할때까지…"



그림·문병성

4월달부터 앓기 시작하셔서 불과 2개월 앓다 가신 아버지는 그 짧은 기간동안 내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가셨다. 가끔씩 절에 가거나 생각나면 관음정진 좀 할 뿐이던 내가 이제는 하루 하루 수행정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아침에 불교방송 예불문을 틀어 놓고 108배를 시작하며 경전공부를 한다.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하려고 '자비의 전화'는 상황에 따라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서 듣는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하거나 신앙일기를 쓰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공부가 됨을 느낀다.

아버지의 삼우제 때 먹고 버린 수박씨가 가을날 산기슭에 7개의 수박으로 주렁주렁 달렸다. 경소에 1남6녀를 위한 기도를 늘 하시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7이란 숫자, 사십구재 때 7주에 한번 수박을 한덩이씩 꼭꼭 가져갔는데 그것도 7개였음이 우연치고는 오묘한 우연이 아닌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깊은 산 속에 한톨의 수박씨가 큰 수박이 되었음을 볼 때 문득 저번에 먹은 수박과 그 씨앗에서 열린 큰 수박에서도 큰 의미를 되짚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우연인 듯 싶은 저절로 자라는 풀 한포기에서도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풀 한포기, 지저귀는 산새 한 마리에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껴야 마땅하지 않을까?

삶은 하나하나 화두이며 공부의 재료이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당황할 필요없고 좋은 일이 있다고 자랑스러워 할 필요없다. 내가 빚나서 나의 빚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의 거울을 닦고 싶다.

주위의 인연지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부처님과의 인연에 제일로 감사드리고 싶다.

김정숙〈구미시 선산읍 생곡동〉

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건강 365일 〈30〉 초룡담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골담초라고도 하는 초룡담은 신경통에 좋다하여 민간요법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약초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담낭(쓸개)의 기운을 돋아 주는 풀이란 뜻이다. 담낭은 우리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잘 보호해야 한다. 담낭이 허약하면 잘 놀래고 심장이 자주 뛰며 잠을 잘 못잔다.

또 담낭에 풍기운이 들어가면 편두통(쪽골)이라 해 한 쪽 골치가 자주 아프며 입맛이 없다. 담낭에 열이 들어가도 목구멍이 자주 붓고 축농증이 생긴다. 담낭은 방광과 유기적인 관계도 있어 이상이 생기면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이외에도 담낭이 좋지 못하면 머리털에 윤기가 없어지며 피부가 거칠어 진다.

쓸개 보호 담력 길러주는 약초
초룡담 8g에 감초 4g 넣고 달여

담낭이 약해지면 결단력이 부족해져 무슨일에건 갈팡질팡 망설여 진다. 또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흔히 어른들이 겁이 많고 배짱이 없는 아이들에게 "저렇게 담력이 약해서 무슨 큰일을 하겠나?"고 얘기하는 것을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데 이것도 바로 담낭이 쇠약해져 일어나는 증상이다.

담낭은 우리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담낭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의 좌우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견비통(어깨통증), 좌골신경통, 무릎관절 신경통 등이 발생한다.

담에서 분비되는 담즙도 소화액의 작용을 하는 등 중요하다. 소화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담즙이 분비가 안되면 밥맛이 없어지고 소화불량이 일어난다. 담즙은 섭취한 지방을 분해시키기도 한다. 만일 이때 섭취한 지방을 분해시키지 못하면 간장에 지방이 축적돼 지방간이란 병을 얻게된다. 지방간은 근육조직에 기름기가 분해되지 못하고 쌓이기 때문에 만성피로와 특히 여성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와같이 인체에서 중요한 담낭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는데 초룡담은 좋은 효과를 낸다. 초룡담 8g, 감초 4g을 달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02)762-5510

석용산 스님 대법회!

수필집 『진짜 나와 가짜 나』, 시집 『우리님 높으시어 지옥극락 하나됐네』 출판 기념

모시는 글
회주 석용산 큰스님께서
3년 고행을 마치시고 포교활동을 재개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자가 인생의 승리자라 하였습니다. 기도기간중 보여 주셨던 여법하신 스님의 인욕수행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행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리라는 것을 믿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을 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첫째날 〈강연 및 장학금 전달 그리고 찬불가〉
• 일시 : 1998년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제문화센터(국제신문 4층) 대강당
둘째날, 셋째날 〈강연회〉
• 일시 : 1998년 9월 18(금), 19일(토) 오후 2시(이틀간)
• 장소 : 부산공덕원 대법당(용호동 부산은행 5층)
• 연락처 : (051)625-2253, 2254 FAX : (051)623-3946

대구
• 일시 : 1998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대구 공덕원 대법당(만촌동 2군 사령부 후문)
• 연락처 : (053)741-0077, 0088
FAX : (053)741-0066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임직원 일동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부산, 대구, 아산, 인니, 미국, 제자 일동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진짜 나 와 가짜 나

왜, 침묵했던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생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루들과 숨어 사는 성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가슴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석용산 에세이 | 신국판 350면 | 값 8,000원
석용산 시집 | 30절판 | 값 5,5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656

석용산 스님의 최근 모습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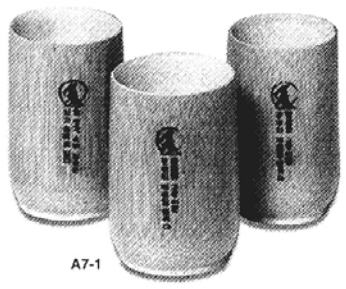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 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가격 ₩ 120,000**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A7-1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법성게 걸망



A12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빔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A13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기모지
특징 색이 번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14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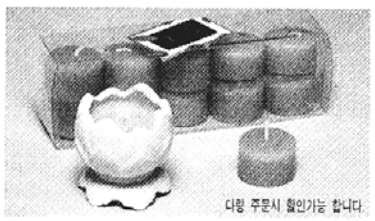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바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벗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내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등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연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 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지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도자기 연꽃 향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형 주문시 협의가능 합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 하신후 낱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꽃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크기 가로 5.5㎝, 세로5.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라벤다향) 1set(10개) ₩ 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100% 청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4.5 (가로)㎝, 6.2 (세로)㎝ , 547쪽

가격 : ₩ 4,000

부다피아 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송 :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 양,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마다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야외 기도, 가정 기도, 제사, 신소등 용도다양

포장재질
- 천연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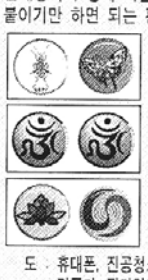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가 격 : 1세트 ₩ 25,000

신상품

유해 전자파 보호장치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전자파, 우리주변에서 항상 건강을 위협하는 수맥의 공포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 인체공학적 생체 리듬 보호, 휴대폰 수신 감도 증가
- 붙이기만 하면 되는 편이성





용 도 : 휴대폰, 진공청소기, 믹서, 컴퓨터, 전기면도기, TV등과 수맥방지가 필요한 모든 장소

규 격 : 2개 1세트 **가 격 : ₩ 9,000**

신상품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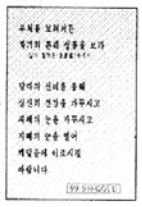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순금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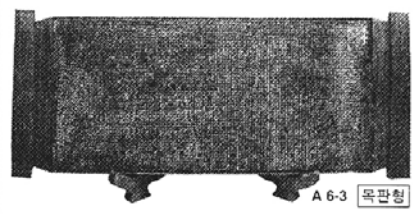
특 징 : 순금을 최대한 얇게 뽑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 순금99.9%
크 기 : 5.2㎝ × 7㎝

가 격 : ₩ 20,000

신상품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A 6-3 목판형

재 질 : 100% 폴리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 격 : 1개 ₩ 100.000



경판받침

앞치마

연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생활 앞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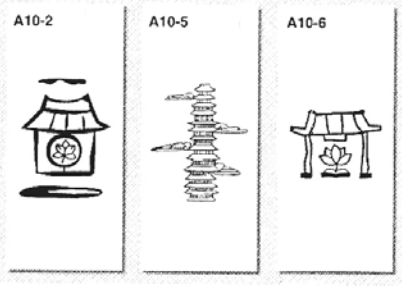
내부그림

색상 : 자주색
재질 : T/C (면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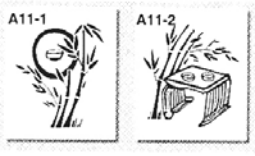
가격 ₩ 5,000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신상품

기도포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다포

기장 : 50㎝ 폭 39㎝
지질 :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A9-1

가격 : 낱개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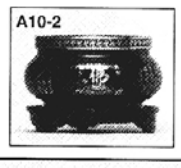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9-2



A10-2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츰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송)하여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선택사항 : 수공에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A8-1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 불보살의 기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 늘 마음에 새기던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이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새롭게 밝혀진
쑥의 100가지 효능!
과연 어떤 것일까요?

쑥 유태종 박사의 식품보감에 의하면 쑥에는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무기질, 칼슘, 치네올이 풍부한 식물이다. 특히 비타민 A는 눈을 밝게 하고 피부를 탄력있게 하며 병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해 주는 면역효과가 있다.

쑥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이 나빠 고생하시는 분께 좋으며 옛날부터 황달에는 쑥을 달여 먹었다.(최석영교수의 임상실험으로 쑥이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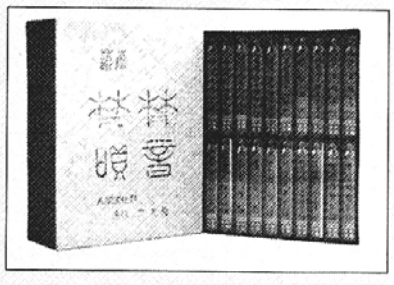
쑥 면역기능 및 항암작용까지 있어 꾸준히 쑥뜸을 뜨고 쑥을 달여 먹으면 잔병치레를 하지 않으며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 주므로 항암능력이 길러진다. 이렇듯 쑥의 엄청난 효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현대 한방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1팩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천호 인술한의원 기술제휴 한의학박사 한택천 (前명지한방병원장) -

가 격 : ₩ 53,000

문구암스님 범음 · 범패집



1. 불공의식
2. 심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 · 명전점안
20. 종성 · 천수작법 · 요잡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 격 : ₩ 50,000

신상품

법회안내



월탄스님(청주 용화사 주지)26일 오전 10시30분 천안 천불사 큰스님 초청대법회. (0417)557-3223



설봉스님(무애원 원장)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강화 무애원 군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서울 무애원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법회. (032)932-5087



영조스님(광주 증심사 주지)매월 음력 3일 오전 10시 초사흘법회. 매월 음력 7일 오전 10시 초이레법회. (062)226-0107



법안스님(대길사 주지)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보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가족법회. (02)3413-3185

법공스님(광명사 주지)매월 음력 1일~3일 오전 10시 30분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30분 법등기도법회. 매월 음력 19일 오전 10시 30분 영가천도대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기도법회. 매월 세째주 토요일 오후 9시 3천배 참회기도법회. (0344)978-9782

능인스님(광주 광륵사 주지)매월 음력 8일 오전 10시 약사재일 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천도법회. (062)222-7801



송위지교수(외국어대) 28일, 9월 4일, 9월 11일 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 단해법당 정기법회. (02)730-910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8월27일 (목)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사상강좌 "착한 벗을 찾아서"=30일까지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불교와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역사와 대승불교의 세계, 현대인의 보살도 등에 대해 강의한다. (02)3411-6167

8월28일 (금)

■대구 팔공산 불굴사 기도=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6시 30분 대구 팔공산 불굴사로 기도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8월29일 (토)

■정토사 연꽃축제=오후 5시 성남 청계산 정토사 제2회 연꽃축제에서는 국악과 전통춤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푸르른 연잎처럼 새롭고, 힘찬 정진의 기회를 마련한다. (0342)723-9797

■부산불교계 지도자 수련대회=30일까지 부산불교신도회 주최로 곡성 태안사에서 열린다. (051)464-2020

■제9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오후 4시부터 30일 12시까지 남양주 봉선사에서 '대중불교결사운동의 과제' '재가불자의 신앙형태'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02)754-1613

■산너머 개똥아!·연극 공연=오후 7시 통도사 부산포교원 3층법당에서 공연되는 가족연극 '산너머 개똥아!'



◇정토사 연꽃축제에서 푸르른 연잎처럼 새롭게 힘차게 정진하는 원을 세워보자.

는 경제적 어려움에 수해까지 겹친 요즘, 가족간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051)816-2241

■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기도=서울 보현정사는 우란분절 맞이 영가 천도 기도 입재를 오전 10시 30분에 봉행한다. 9월5일까지 (02)927-3301

■대구구도회 철야정진법회=30일까지 해인사 지족암에서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053)654-8533

8월30일 (일)

■사찰구도법회=서울불교청년회는 서울 근교 사찰로 구도법회를 떠난다. 관심있는 청년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02)730-9108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기행=오전 7시 탈속의 사찰 완주 화암사와 송광사로 문화기행을 떠난다. (02)582-6613

9월1일 (화)

■인덕노인학교 개강=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 서예, 고전무용, 단전호흡, 가요교실, 한글교실, 풍물놀이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된다. (02)385-8205

■실상사 장기귀농학교 개설=실상사 장기귀농학교가 11월 30일까지 개설된다. (02)723-1884

■낙산사 홍련암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낙산사 참배 및 홍련암 철야법회를 갖는다. 오후 9시에 출발한다. (02)278-1191

■동련불교 교사대학 입학식=오후 7시 양정청소년회관에서 1백여명의 어린이청소년지도교사들이 입학식을 갖는다. (051)868-0750

■영어수학교실=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교실을 연다. (042)633-1141

9월2일 (수)

■육바라밀 강좌=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 만해법당에서 보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이 강의한다. (02)730-9108

■보탑사 칠장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6시 30분 연꽃골 보탑사와 칠장사를 참배하기위해 떠난다. (02)278-1191

■민족사 벽암록 가을 강의=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민족사에서 지현스님의 지도로 진행된다. (02)732-2403

게 시 판

♣ 알림

△이웃을돕는사람들은 최근 전화번호를 (02)3147-2600~1로 변경했다. 팩스는 (02)3147-2602로 변경됐다.

△불교통신 대표 신상철은 최근 마포구 동교동 173-14 천일빌딩 305호로 이사했다. (02)336-1090, 336-2330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강북구 수유3동 182-46 광명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전화번호는 그대로 (02)723-6258

♣ 강좌

△한지공예=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매주 월, 목요일 오전 11시 여불련 사무실에서 한지공예강좌를 연다. (02)738-5586

△IMF실직자를 위한 재취업강좌=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IMF실직자를 위한 재취업강좌를 실시한다. 컴퓨터 이용법과 인터넷 사용법, 홈페이지 작성법 등을 강의한다.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다. (02)421-6077

△주부요리프로그램=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주부요리프로그램반을 개설, 중국요리 가정요리 도시락 반찬 빵만들기 등을 교육한다. (02)282-1100

△정보교양강좌=양정청소년회관은 영어 일어회화, 컴퓨터, 미술 등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양강좌를 준비했다. (051)868-0750

♣ 모집

△한국불교문화대학=한국불교문화대학은 교양과정과 전문과정, 연구과정 등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02)336-1090

△노인주간보호소 이용자=인덕노인복지회관은 65세 이상 경증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주간보호소 이용자를 도집한다. 증식과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이 제공된다. (02)385-8205

△머리미용, 조리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컷트, 파마 등 국가기술자격시험대비 머리미용반과 한식조리사 자격증 대비 조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02)852-0525

△놀이치료=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정서 사회 인지적 측면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운영한다. 만 3세~12세 아동. (02)421-6077

△장애인 컴퓨터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컴퓨터에 능숙하고, 장애인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된다. (02)852-0525

△사랑의 도시락 후원자=두송종합복지관은 사랑의 도시락, 기쁨의 쌀 보내기, 반찬제공등을 지원해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남성 사회복지사=조계종사회복지재단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인 남성 사회복지사를 구한다. 서류전형 및 면접. (02)989-4215

△반야불교대학 신입생=대구 반야사 부설 반야불교대학은 불교교리반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3개월 과정으로 개강은 초급반 9월1일, 중급반 9월24일. 수강료는 무료. (053)765-4335

△대구교육원 신입생=대구 한국불교교육대학 대구교육원은 대학과정·대학원과정·삼장법사과정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9월12일 개강한다. (053)557-6917

♣ 답사

△부여백제문화탐방=국토문화연구회 옛동에서는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백마강, 낙화암 등 부여백제문화탐방을 떠난다. 30일 오전 7시30분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서 출발한다. (02)275-4333

△수원성=터사랑은 30일 '수원성과 효의 근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 효기행을 떠난다.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씨가 안내한다. (02)725-1284

종단소식

조계종

행자교육원 지원자교육

조계종 교육원은 21일 오전 9시~오후 5시 서울 법련사에서 제15기 행자교육원 직할교구 입교지원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전교육에는 천수경 예식 암송 등의 기본습의와 발우공양, 습의교육 등이 실시됐다.

오봉산 초안스님 49재



경기도 양주군 오봉산 석굴암(주지 도일) 회주인 초안당 유성대선사 49재 추모대법회가 지난 19일 오전 10시 조계종 전 종정 서암·동국역경원장 월운·봉선사 주지 밀운·불암사 주지 일면스님과 정연세 해운협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태고종

총무원 승려연수 교육

총무원(원장 인곡)은 9월 9일부터 일주일간 선암사에서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승려연수교육은 종단 중진스님과 합동득도, 비구니, 교임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강의와 토론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종단 현안검토와 진로모색, 불교신앙의 현대적 조명 등을 주제로 폭넓게 다뤄진다.

울산 종무원 간부회의

울산교구종무원(원장 법우)은 7일 울산 약사사에서 종무원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문제와 경남 밀양 소재 용암사 분규문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제주종무원 수련대회

제주종무원(원장 수암)은 20일 표선 원각사에서 각 사암 주지스님과 대표스님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대회 및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진각종

실직자녀에 IMF 장학금

진각종립 경주 위덕대학교(학장 손제석)는 2학기부터 'IMF 장학금'을 신설해 재학생 중 실직자 자녀들에게 등록금의 30%(기성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위덕대는 또 은행학자금 융자와 노동부의 실업자 자녀 학자금 대부를 적극 유치해 학생들이 끝까지 면학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총지종

10월경 복지법인 설립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13~14일 양일간 충남 예산 가야호텔 회의실에서 전국 승직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단총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해 집중 논의된 이날 총회에서는 (가칭)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5억원을 출연키로 하고, 이사 선임 및 운영계획 등 제반사항은 사회복지법인추진위원회(위원장 총지화 통리원장)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총화종

승려의식 법계고시



총무원(원장 남정)은 11~12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진사 관음전에서 1박2일에 걸쳐 승려의식 교육 및 법계고시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행사는 교육원장 일봉스님을 비롯해 종단 소속 2백여명의 스님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총무원은 9월 중순경 수진사에서 총본사 및 총무원 이전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법상종

종단소속 승려교육

총무원(원장 법륜)은 11~13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안성 쌍미륵사에서 종단 소속 전 승려가 참가한 가운데 종단 승려 교육을 실시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성하출판 TEL:273-4451~2 FAX:273-4450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위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황광우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양산 위산의 법제자로,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석가로 불릴 만큼 총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앙종(爲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화영 옮김 / 값 6,500원

부산불교계 사회복지 사업 활발

올 '내원' 등 법인 설립…복지시설 백여곳
무료진료·급식·장학등 다양한 사업 전개

부산 불교계의 복지활동이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잇달아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협의체'도 구성될 전망이다. 각 사회복지법인 실무자들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부산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2곳. 내원정사(주지 정년)가 '내원'을, 관음사(주지 지현)가 '늘기쁜마을'을 설립했다. 이로써 부산불교계의 사회복지법인은 95년 처음 설립된 불국토를 비롯 공덕원 법어사 등 5개로 늘어났다.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들은 복지관 위탁운영, 장학사업, 무료급식, 병원위문활동, 효도관광, 어린이집 운영을 비롯 각종 건강·생활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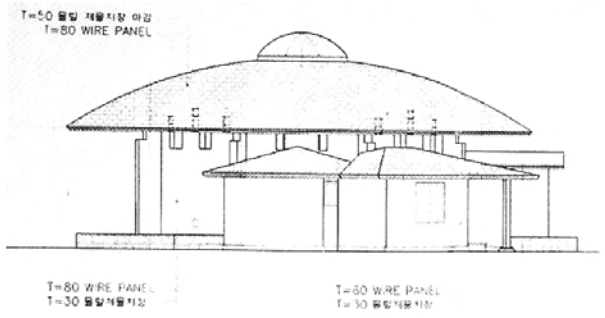
내원은 장학사업과 무료진료사업, 병원위문사업 등과 함께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늘기쁜 마을도 효도관광 무료급식 등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부산지역 교계 복지시설은 1백여곳. 이 가운데 90%이상이 95년 이후에 설립됐으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역의 각 복지시설들은 수적증가에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IMF 관리체제를 맞아 무료급식, 실직자 취업교육, 무료진료 등의 사회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송·공창·개금·몰운대사회복지관을 비롯 범어사가 구서동 전철역에서, 국민회의 연등회가 부산역에서 각각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또 한국불교자원봉사회(회장 김차진)가 19일 사하구 괴정시장에 무료급식소를 개원했으며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도 9월 15일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무료급식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불국토 한의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농촌지역 순회진료에 나서기로 하고 16일 밀양시에서 제1차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불국토 한의원은 노인 실직자 및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부산 교계의 각 복지시설들은 저소득가정, 실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여 개금복지관장스님은 "한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어 여러법인이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법어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프로그램 개발, 복지사교육, 복지법인의 발전계획 등에 대해 분기별로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비행접시 모양으로 건립되는 비승사 설계도.

비행접시형 법당 건립

항공사령부 호국비승사
30평 규모 연말께 완공

비행접시 모양의 이채로운 군법당이 지어진다. 경기도 이천 육군 항공사령부 호국비승사가 막사법당 10년만에 비행접시 모양의 새 법당을 짓는다. 21일 기공법회를 갖고 공사에 들어간 호국비승사는 비행접시 모양의 철골 돔형 법당 30평과 요사채 식당 등으로 구성, 올 연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담당 군법사가 없는 가운데 장·사병불자회 회원 80여명이 법회를 주관해 온 비승사는 새로운 형태의 법당이 신세대 사병들에 대한 포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사령부의 이미지를 포함시켜 지어지는 이 법당은 불자 설계사인 정운영(예공건축사무소대표)씨가 무료로 설계했다.

8천여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갈 예정이며 조계종 포교원이 건축기금 3천만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공사비는 불자회 회원들이 화주를 통해 모금하고 있다. (국민은행 230-01-0334-574 신동우)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진각종 종무 전산화 추진

통합DB·네트워크 구축…통신포교 선도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이 종무행정 전산화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진각종은 최근 정보화사업 시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실을 개설, △문서의 표준화·전산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부서별 업무관리 △종단과 지역 심인당간의 네트워크 구축 △신도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대내외 기초자료 수집 등 준비단계를 거쳐 1단계 사업으로 종무행정 전산화와 통신포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성초 통리원장은 "21세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대중포교와 체계적인 종무행정을 통한 신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진각종은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통해 종단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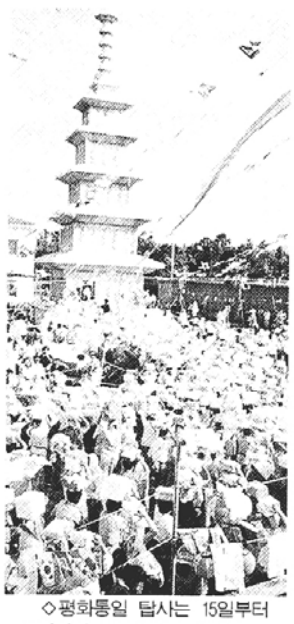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통일불사리탑 낙성
불자 1만여명 참석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사(주지 도림)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전국의 불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통일불사리탑사 낙성법회를 비롯 불사리 이운및 마정수기, 법화예찬 108참회, 법화경 사경 이운식, 일보일배탑돌이, 지장탑 점안식 등이 진행됐다. 평화통일불사리탑사는 88년 기공식을 갖고 10년만에 낙성됐다.

〈이영지 명예기자〉



◇평화통일 탑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껌 판돈 2백만원 수재의연금 전달

부산불교 운전기사회 수재민들의 시름이 온 국토를 덮고 있는 가운데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가 껌을 팔아 모은 2백만원을 수재민 돕기에 보시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17일 국제신문사를 방문, 3백여 회원이 택시내에서 껌을 팔아 모은 2백만원을 전달,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불이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이번 보시행은 10년동안 꾸준히 해 온 부산운불련의 실천중 하나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개인택시를 '달리는 법당'으로 꾸미고 '거리의 포교사'로 활동해 온지 10년. 노인 영정사진 무료촬영, 교계행사시 교통정리, 장애인 탑승시 30% 할인, 교통표지판 청소, 사찰주변 환경 보호 등과 함께 껌을 판 수익금으로 매년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영호 상임부회장은 "집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수재민이 결코 남이 아니므로 내 형제 내 부모의 아픔에 조그만 힘을 보탰을 뿐"이라며 수재민들의 빠른 복구를 기원했다.

천미희 기자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부산운불련 기사들.

천태종 청년회 배구대회
27팀 참가…영춘지회 우승

천태종 제25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가 16일 충북 단양군 영춘중학교에서 열렸다.

전국 27개팀이 참가한 이날 배구대회에서는 영춘지회배구단(회장 안기수)이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부산 삼광사가, 3등은 서울 관문사와 울산 정광사가 공동수상했다.

이날 배구대회에서는 총무원장 운덕스님, 총무부장 국성스님을 비롯해 각 사찰 주지와 신도, 이원종 도지사, 이건표 군수 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의 열띤 응원 속에 이번에 추가된 족구와 줄다리기 단축마라톤 등도 진행됐다.

중앙청년회가 주최한 배구대회는 전국 종별 배구대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로 대한배구협회 국제심판과 협회 사무국장들이 경기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도필선 기자

우리절 불사

봉인사 '자광전'



◇60%의 불사가 진척된 자광전 전경. 원내는 주지 적경스님.

생활불교 수련원 세운다

열린 시민휴게실 추진
공정 60%…자금난 겪어
1250 나한상 봉안 계획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자락에 자리잡은 봉인사(주지 적경) 앞마당에는 생활불교를 일궈낼 수련원 '자광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4월4일 공사를 시작한 자광전은 총 건평 1백26평 규모로 1층에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열린시민휴게방과 공공화장실을 꾸밀 예정, 2층에는 30평 규모의 수련장과 식당, 그리고 수련생들을 위한 화장실과 세면장을 갖춘 6개의 방을 마련하게 된다.

"자광전은 故 한길로 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자들이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머물고 싶을때 찾아와서 스스로 맘껏 수행을 하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해 생활속으로 다시 돌아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생활수련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주지 적경스님은 말한다.

현재까지 60% 정도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총공사비 3억원 가운데 1억6천만원 정도가 부족해 내장공사 마무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얼마전 수해로 토사와 물이 공사 현장을 덮쳐 피해를 입기도 했다. 현재 봉인사는 수련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부처님 당시 장엄했던 영산회상을 재현코자 금강경에 밝힌 1천2백50명의 나한 성상 봉안불사를 추진중이기도 하다.

스님은 "나한성상 봉안불사와 더불어 노년을 수행으로 회향할 불자들이 건립에 뜻을 모아주면 더욱 좋겠다"면서 "불자들이 공동체적인 삶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500여년전 창건된 봉인사는 1619년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탑에 봉안돼 많은 이들의 귀의처가 되었고, 부휴선사 6세손인 풍암대사를 비롯 조선의 3걸로 손꼽히던 설두스님이 주석하며 고승대덕을 배출해 냈던 곳이다.

일제시대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일본으로 밀반출 되는 등 폐사가 돼버린 것을 지난 78년 한길로 법사가 사재를 털어 땅을 사들여 법당을 짓고, 그 맥을 오늘에 살리고 있다.

(0346)574-5585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통도사 톨게이트 이전 반대

주민등 서명운동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톨게이트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도사와 양산시 하북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측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통도사 톨게이트를 울주군 삼남면 방면으로 2003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통도사와 주민들은 불자들의 통행불편과 상권저해 등을 들어 이전반대를 표명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주민 서명운동을 펴 저지키로 했다.

또한 통도사는 현재의 톨게이트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바다가 있어 외롭지 않다.
은빛모래,
반짝이는 발자욱마다
추억이

가슴으로 젖어오는 바다.

들이 아니어도
외롭지 않은데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어

침묵속으로 다가오는
보랏빛 물결
파랗게 부서져 내린

파도를 온몸으로 감싸안으며
어깨위로 밀려온 고독은
끝내
파도울음 터트리며
잔잔하게 노을빛으로
내려앉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무료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복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랑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 불교환경교육원 '지역통화운동' 첫 실시

봉사-물품교환등 '두레서비스'

지역사찰 경제공동체 시험운동

'고2 학생을 둔 A보살이 B사찰의 법당을 청소하면, 대학생 C불자가 A보살의 자녀에게 과외공부를 무료로 지도한다. A사찰의 주지스님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 C불자에게 불화를 가르친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통화 운동(일명 레츠: 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이 교계에서 처음 시도된다.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9월 초 IMF관리체제하의 고실업시대를 맞아 환경단체들이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사회의 연대감 강화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을 시작한다.

지역통화 운동이란 올들어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녹색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가입회원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기술력이나 노동력, 상품 등을 교환하는 방식. 1983년 캐나다의 마이클 린톤이 뱅쿠버의 실업률이 18%에 이르자 지역 자체의 고용능력을 높이고자 설치한 녹색달러 시스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세계적으로 1천5백여개의 상호신뢰 체계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있다. 국내에서는 '미내사'가 3월에 통화소를 개설했으며, 녹색연합, 부산 한살림회 등도 설립을 준비중이다.

불교환경교육원은 50여명의 회원을 등록받아 지역통화 '두레' 통화소를 출범시켜 각종 서비스와 물품의 교환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거래 예정인 서비스들은 청소·우편물 발송 등 단순노동과 행사(법회) 사회자 및 안내자, 한문·외국어 번역업무, 인터넷 정보검색, 컴퓨터 기술자문, 비디오 촬영편집 등. 참선·요가·선무도·불화 지도, 경전 번역 및 지도, 사찰 건물 보수, 공양주 일, 사찰주변 청소 등 거래가 가능한 불교관련 서비스와 물품(불화, 불상, 불서, 다기 등)은 무궁무진해 회원 기반이 넓어지면 교환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통화소를 거쳐 가상의 지역화폐 단위인 '두레'로 거래되는 지역통화는 기존의 화폐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 화폐'의 역할도 한다.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봉은사 등 사찰 신도들과 환경단체 회원 등을 회원으로 시작하는 이 모임이 성공할 경우 (가칭)불교도농공동체와도 연계, 사찰이 지역 경제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옥수-청담-자양복지관 등 노인주간보호센터 '열다'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더욱 외로운 노인들. 이러한 때에 교계 복지관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시간동안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하는 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잇달아 개설해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말 개소한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18일 개소한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9월1일 개소예정인 자양사회복지관 등 3곳, 지난해 개소한 인덕원과 연꽃마을에 이어 5곳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역 노인복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잇단 개설은 일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드문 일이다.

△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는 1일 20여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상담·의료·여가·재활·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02)806-1375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 서비스 센터와 정수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중이다. (02)282-1100 △자양사회복지관은 노인건강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동시에 개소할 예정이다. (02)458-1664

김재경 기자

조계사 청년회, 음식점 '대청마루' 운영

수익금은 복지기금으로

조계사청년회(회장 이종찬)가 음식점 '대청마루'를 개원하고, 청년회 회원들이 전개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재정 지원에 나섰다. '대청마루'는 조계사(주지 현근)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구재완씨(조계사 청년회 자문위원)의 초기 투자이 힘입어 마련됐다.

조계사 청년회 회원들은 탑골공원 결식노인들에게 월3회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제정사(주지 묘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로원을 월2회 방문해 봉사하는 등 10여 곳에서 자비행을 펼치고 있어, 복지사업을 위한 재정 마련이 절실한 형편.

구재완씨는 "청년불자들의 복지 정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장사인 만큼 좋은 재료로 음식만들고 싼 가격으로 팔 것"이라며 "최소의 이익금을 모아 최대의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청년회는 대청마루 운영 수익금 전액을 적립해 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지난 한달간 대청마루는 6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오종욱 기자



횡성재활농장 배추 첫 수확

승가원 횡성재활농장(농장장 남도)에서 처음으로 수확된 배추 6천여 포기가 20일 중앙승가대학 교정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승가원은 배추 4천 포기를 강북·종로구청을 통해 수재민들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 2천 포기는 승가원산하 10여개 복지시설과 봉은사 개운사 보타사에 각각 전달했다. 사진은 개운사 신도들과 승가원 직원들이 배추를 옮겨 싣는 장면.

송광-선암-대흥사 복합문화재 승격 추진

전남도, 관리국에 요청

순천 송광사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전라남도 주요사찰을 복합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들 사찰 경내에는 다수의 국가·지방문화재가 소장되어 있고 주변 경관이 수려해 복합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단순 명승지에서 사적 및 명승지로 지정해 줄 것을 18일 문화재관리국에 요청했다.

전라남도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송광사 선암사 대흥사를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뒤 문화재 자료 34호로 지정된 구례 화엄사와 개별문화재 6점이 소장되어 있는 장성 백양사 등에 대해서도 복합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한다. 강지연 기자

'직지' 세계유산추진위 발족

청주시민회 직지찾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현문)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직지 원본찾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운동본부는 9월1일 '직지 세계기록유산 등록추진위원회'를 발족, 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달말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월주스님 회장추대

불교방송후원회 총회

불교방송후원회는 19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26일부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월주스님을 당연직 후원회장에 추대키로 결정했다.

부회장에는 태고·천태·진각·관음종 총무원장과 중앙승가대총장 지하스님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월서스님 등 6명을 선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에 불교방송재단이사장 도후스님을 위촉키로 하고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제외한 한국불교각 종단의 총무원장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불교신행단체대표, 불자기업인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한편 새로 개편된 범종단적 불교방송후원회는 10월말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서계동 보현의집 침술-이·미용봉사 주민들에 호응

조계종 서계동 보현의집(소장 김익중)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침술 및 이·미용봉사를 펼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현의집은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낮시간을 활용, 지역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들을 상태로 이같은 봉사를 하고 있다. 침술봉사단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5시, 이·미용봉사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중이다. 특히 침술서비스의 경우 매번 10여명의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찾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

서계동에서 노숙자 숙박시설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 없는 깨어있는 의식이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계동 보현의집에는 정원 65명에 51명의 실직노숙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02)711-7735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29일 대원회 대중결사

한국불교대원회가 제9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대회장 박윤흔)를 29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연다.

불교계 재가불자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 성낙승 불교방송사장 등의 '대중불교결사운동의 과제' '불교방송의 현황과 발전전략'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02)754-1613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효봉장학회 발족

효봉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발전과 중흥에 노력한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효봉장학회(이사장 김봉호)가 7월 19일 발족됐다.

효봉장학회는 부산불일회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김대각성보살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김봉호거사와 자녀들이 세운 것. 장학회는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불일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됐다. 이은자 기자

불광사 도서실 개설

불광사 2층에 불광도서실이 새롭게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른 도서 분류와 전산화를 마친 불광도서실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불자는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검색과 무료 대출 등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보다 다양한 자료의 구비를 위해 불교관련 서적과 개인이나 단체가 스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받는다. (02)413-6062 이은자 기자

양심수 전원석방 성명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8·15 사면과 정치 수배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단행된 8·15 대사면 조치는 양심수 가족의 바램을 무너트린 처사"라며 3백52명의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즉각 석방할 것과 정치수배들에 대한 현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지장보살입상 발견

경남 김해시 진례면 관음정사의 요사채 확장 공사장에서 최근 석조지장보살입상과 토기가 발견됐다. 또 장유면 상수도 시설공사장 자연암반에서 마애불상 2기가 발견됐다.

지장보살상은 높이 90cm로 폭 30cm 크기의 독립된 입상이다. 국립김해박물관측은 이 보살상을 조선시대 이후인 최근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상수도 시설공사장에서 발견된 마애불상은 높이 58cm와 50cm 크기의 약사불과 아미타불로 확인됐다. 제작연대는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1부 기자〉

파라미타 살림걱정

96년 발족한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가 표류하고 있다. '이사들이 회비를 잘 내지 않아 재정이 어렵다' '불자 청소년의 정체성을 찾는 프로그램이 없다' '국장·과장 등 사무국 중요 직책이 공석이다' 등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정섭과장(파라미타 중앙사무국)이 〈법회와 설법〉 9월호에 '파라미타 청소년 포교의 평가와 활동방향 모색'이라는 글을 기고하고 파라미타의 현안들을 지적해 주목된다.

이 글에서 한과장은 "파라미타는 불교학교 학생회를 격려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청소년포교의 선도를 표방했지만, 이를 실현할 인적 요건이 부족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라미타 운영 재원은 이사 회비와 조계종 지원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사 30여명 중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이사는 5~6명 정도. 파라미타 발족 당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교구본사 주지를 이사로 선임한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한과장은 "재력을 지닌 재가불자들을 이사로 영입하고, 현실적으로 조직활동의 재원이 모자라면 그 대안으로 인적인 유대감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실 파라미타는 인력 운영에도 헛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장·과장이 공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행정 전문가가 없다. 96년에 발간한 지도자용 지침서 4권을 제외하곤 지금껏 변변한 조사·연구 출판물을 발간하지 못했다. 확고한 운영체제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파라미타에서는 회원 자격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조직의 내구성을 뒷전으로 미루고 몸 불리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게 주변의 지적이다.

(gobaoou@buddhapia.co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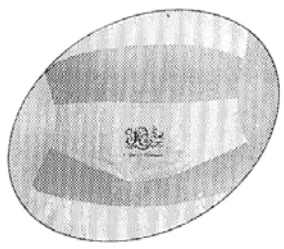
야간 : (0342)706-306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페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명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빈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입 문

일상에서 만나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성열 엮음

붓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 것은 부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나 그 만남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부처님 말씀을 골라 듣기란 더욱 어렵다.

그렇기에 이 책은 더욱 값지다. 믿음, 수행, 가르침, 세속의 장으로 분류하고 그 주제에 맞는 작은 소주제별로 부처님 말씀을 묶었다.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먼저 편찬되었다는 이점을 중심으로 엮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멀고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현실적 삶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늘 곁에 두고 부처님 말씀을 새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 현암사 13,000원 (02)365-5251

불교에 대한 구체적 이해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권영환 지음

불교를 쉽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리보다는 사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물과 불상, 그림 등 절의 모든 것을 컬러 화보와 함께 꼭 알아야 할 부분만 명쾌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의 장점. 3백50여장의 사진과 30항목의 그림 그리고 18개의 도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엮었기에 현장감도 생생히 전달된다.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가고 있는 요즘 한국인의 마음과 한국의 얼을 새기고 있는 사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자 또다른 창조의 길을 여는 첩경.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까지 풀은 문체가 권안함을 더해준다.

전원문화사 15,000원 (02)704-1626

에 세 이

반만년 산하 '우리얼굴'



■산천을 닮은 사람들/고은 외 지음

땅과 더불어 호흡하는 삶은 거짓일 수 없다. 저 농부의 손을 보라. 소금바다에 갈라진 어부의 파안대소를 보라. 이들이 있는 한 땅은 끝없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책은 이렇듯 반만년을 민족과 함께 살아왔고 또 살아갈 이나라 산천의 혼과 아름다움을 전한다. 문인 12명과 화가 13명이 지난 1년간 전국을 누비며 글과 그림으로 민족과 고락을 함께 한 '우리의 얼굴' 백두대간을 보여주는 답사기.

백두에서 한라까지 고은 신경림 고형렬 등의 문인과 김정헌 임옥상 민정기 등의 화가들이 1대1 짝을 이뤄 자신의 연고 산천을 찾아 각각 글과 그림 4~5점씩을 실었다. 시원(始原)의 땅 백두산을 비롯해, 불국토의 영원이 어린 경주 남산, 넉넉한 풍세의 아버지와 같은 팔공산, 사람을 버리지 않는 땅 백두산, 여명의 땅 한라산 등이 민족의 기개를 일깨운다.

효형 9,000원 (02)756-0262

열린마음 통해 보는 세상



■개짖는 소리/대주스님 지음

열으로 여는 데 길들여진 사람은 열으로 먼저 문을 연다. 하지만 여닫는 문이 열리지 않다. 문제는 마음의 문. 어떻게 생긴 문이든 간에 마음의 문은 자기 스스로 열어야 편하게 열리는 법.

이 책은 닫힌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담았다. 교훈을 줄 만한 단편들로 채워져 있는데,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서부터 자살, 가정윤리, 문명의 이기로 인한 인간성 상실 등에 관한 문제들을 갖가지 우화를 등장시켜 예리하게 파헤쳤다.

읽고 나면 마음이 한층 성숙해 질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백선출판사 6,000원 (02)923-3867

기 타

佛名의미 자세히 소개



■불명사전/고성훈 엮음

불명(佛名)은 자성을 상징하는 방편으로서 자성을 일깨우는 도구다. 모든 거사와 보살들이 지닌 불명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각각의 불명이 갖고 있는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으로 거사불명 7백개와 보살불명 7백20개 등 모두 1천4백20개의 불명을 실었다. 이들과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절을 곁들여 수록함으로써 자칫 불명만 설명되어 식상하기 쉬운 사전식의 체계에 다양함을 가미했다. 또 경신도들 위해 수계(受戒)의 의미와 의식 순서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했다.

시시처처 누구나 할 것 없이 5계와 불명을 받아 지니고 그 불명대로 수행하고 공덕을 짓는다면 이 사회는 낙토 중으로이일 것이라는 염원도 책 속에 담았다.

우리출판사 20,000원 (02)313-5047

수행자의 삶 '바른 길'



■힘든 세상 도나 닦지/효림스님 지음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 속에서 더욱 푸르게 보인다. 수행자의 삶이란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옛글에도 '눈이 온 뒤에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안다'고 했을 것이다.

산청을 비롯하는 수행자들의 이야기들을 묶었다. 주변환경에 자신의 지조를 팔지 않는 수행자들의 고뇌와 구도열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누구나 하는 말이 "갈수록 세상이 힘들다"는 한탄이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 또 자신을 향해 바른 길을 가려는 몸짓으로 외치는 절규는 중생들에게는 희망의 메아리이리라. "힘든 세상 도나 닦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저자의 독백. 우리 삶의 나침반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기서원 7,000원 (02)335-7554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베스트

눈밝은 선지식들 화두 수행담



■화두 짓는법/토방편집부 엮음

선은 더이상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근간에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선수행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대로 화두를 들지 않고서는 올바른 참선수행은 어렵다.

이 책은 역대 눈밝은 선지식들이 어떤 화두를 들고 정진했는가에 대한 글을 모은 것으로 처음 참선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안내서다. 화선의 정의와 함께 성철 청담 만공 한암 송담스님 등 14명 스님의 화두 드는 법과 참구 참선법이 일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참선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생사심(生死心). 그래야만 진정한 의심이 일어난다고. '심(心)'자 한 자에 세상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고도 하는데…

토방 7,000원 (02)722-4588

참된 삶 이끄는 주옥같은 금언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성우 · 지현스님 지음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은 두지 말라. 남의 흠을 헤아리지도 말고 악업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써 자신을 살펴 나가라'(잡아함경)

(아함경) (법구경) (선가귀감) (유마경) 등 경전과 고승들의 어록, 문집에서 이런 주옥같은 금언만을 골라 뽑은 금언집. 참된 삶은 무엇이고 수행 과안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지 등을 주제별로 나눠 묶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삶의 양식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 번 읽고 그냥 지나치기 보다는 어려울 때 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민족사 5,000원 (02)732-2403

예불, 그속에 깃든 의미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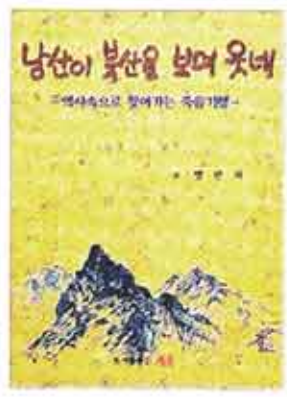
사찰이식의 시작인 도량석에서부터 법공, 법고 등 사물을 치는 까닭, 계율과 선정, 향공양을 올리는 까닭, 해발지견의 오분향에 깃든 의미, 지심귀명례를 이루는 방법 등 예불문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상세히 풀이함으로써 예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밝히고 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절은 물론이요 상호의 카피를 깁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김현준의 는 공부하는 자세로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보살들의 자비와 권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고사를 통해 감동적으로 풀이하고 있어 읽는 재미도 크다.

효림 5,000원 (02)587-6612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맹란자 지음

역사 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을 떠났다. 거기에서 세네카와 네로, 광해군과 마지막 환관 부의,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두보와 김삿갓,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동소경과 스탈린 등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 1백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되찾는다. 죽음기행의 종착역은 다름 아닌 열정적인 삶임을 이 책은 보여준다.

삶을 가장 확실히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죽음. 남은 생을 생각해 보라. 눈물이 나지 않는가.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요즘같이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무엇인지도 더불어 느낄 수 있어 금상첨화다.

세훈출판사 7,000원 (02)3462-2277

구도자가 찾은 깨달음 세계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신규탁 지음

도(道)가 무엇이냐고 묻는 객승에게 조주스님은 말한다. "도란 너의 집 담 너머에 있다." 그래도 못알아듣고 객승은 다시 묻는다. "그런 도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대도(大道)를 여쭌 것입니다"라고. 조주스님의 대답은 냉담하기만 하다. "큰 길은 암큼님 사시는 장안에 있다"

용담선사 일화 등 52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 깨달음의 길을 보여준다. 깨달음의 세계, 거기가 바로

도에 미쳐서 도를 찾는 이들을 일깨우는 말이다. 갈 길을 못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저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 그 길에 흘려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선어록을 읽는 방법도 친절히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고판이라 읽기 쉽고 편안하다.

장경각 5,000원 (02)269-3227

금주의 추천도서

종교학 입장서 본 불교사상 '신선'



■종교론 · 진리론/사이구사 미쓰요시 엮음

불교를 종교학 · 종교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불교가 제시하는 진리와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불교를 고찰한 학술서. 일본에서 발간되는 '강좌 불교사상' 제5권 (종교론 · 진리가치론)(1982, 편집책임, 동경)을 번역한 것으로 현대 일본의 불교학 · 종교학 · 철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했다.

제1부 '종교론'에서는 종교학 · 종교철학 · 종교심리학적 시각에서 불교를 바라봄으로써 불교의 종교성과 종교로서의 불교를 고찰했다. 제2부 "진리론"에서는 인도 · 중국 · 일본 등에서 전개된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와 가치 문제를 논하고 그것들의 추구, 달성과정, 사상적 특징 등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 논고는 교리 중심적 내지는 문헌 중심적 연구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 불교학계의 경향에서 탈피, 논고자들 각자의 주체적 시각에 입각해 불교 자체의 사상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역자는 조윤호씨.

불교시대사 12,000원 (02)730-2500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松江 企劃

내면의 울림
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ania!

명상말씀
찬불가
불교음악
법문
경전
독경



·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 TEL: (02)745-6015
· FAx: (02)745-6017

협 · 찬 · 사

불교음반기획제작